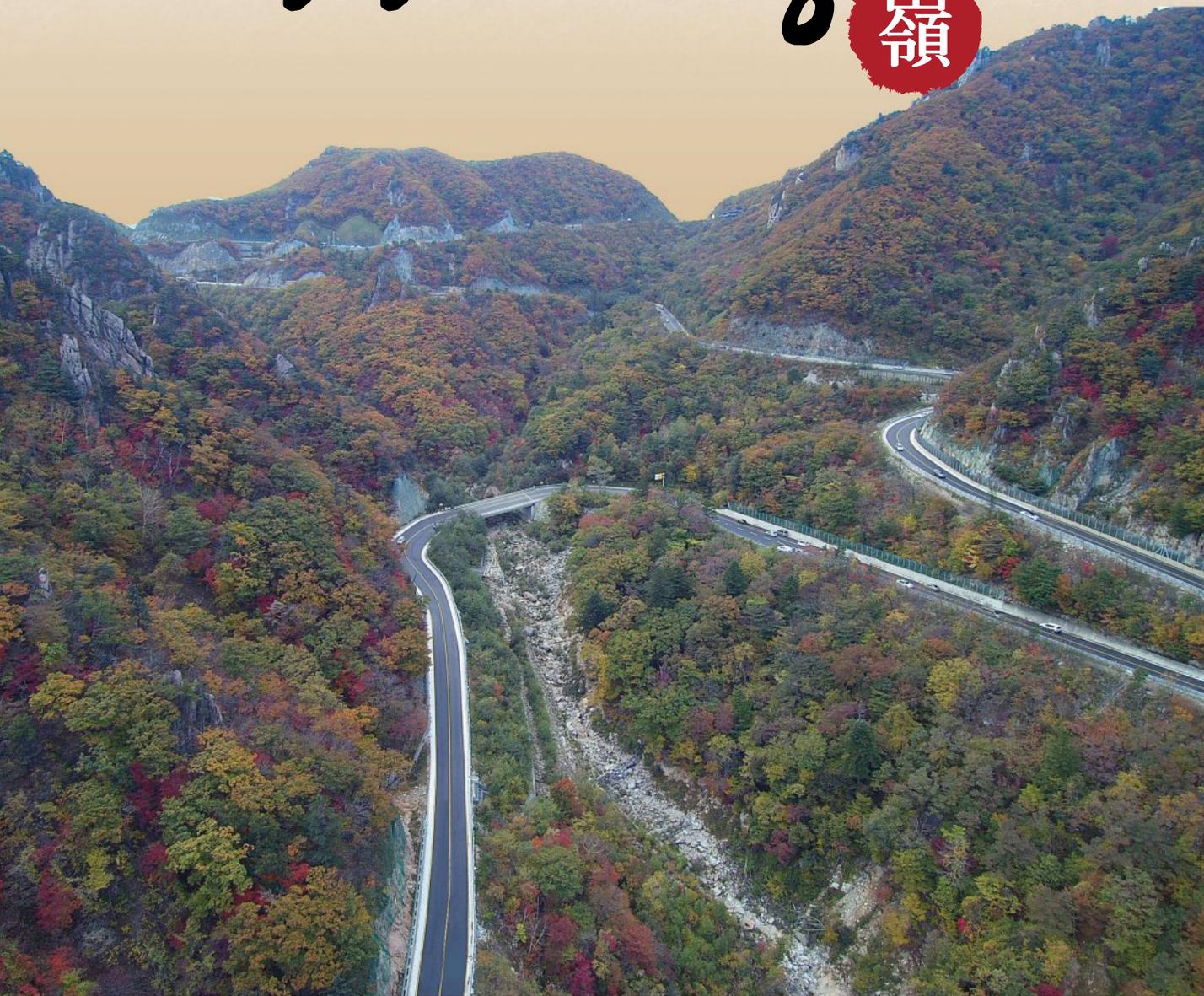


양양지방의 영 嶺



양양문화원

오색령

수도권에서 동해(東海)로 제일 가까운 곳이 양양이다.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의 연장이 153km이다.

그러나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기 전 우리 선조들은
한양 등 서쪽으로 가려면 1,000m가 넘는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했고, 백두대간의 동과 서는 기후와
삶의 양식이 확연히 달랐다.

내륙의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교역을 하기 위해 백두대간을
넘나들던 길이 영(嶺)이다.

영은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중요한 통로이며, 우리
선조들의 삶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다.

양양에는 이러한 영이 북에서 남으로 오면서 총 6개가
있었다.

우리 선조들의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영이 교통의
발달과 개발시대를 맞으면서 그 이름들이 왜곡되거나
잘못 표기되어 역사의 정통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있어
우리 문화원부설 양양학연구소에서 고문헌의 조사와 현지
실사 등을 통하여 상세하게 정리한 양양지방의 영(嶺)
이라는 사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사료집이 우리 선조들의 삶을 이해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양양지방의 영을 편찬하기 위해 애써주신 양양학
연구소 연구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양문화원장
박상민

목 차

제1편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서쪽 영로(嶺路) -----	1
	제1장 오색령(五色嶺) -----	7
	I. 머리말 -----	9
	II. 오색령과 한계령의 관계 -----	11
	1. 설악산과 한계산 -----	11
	2. 소슬령과 오색령(한계령) -----	12
	3. 소슬령이 오색령인 근거 -----	14
	III. 일제강점기 오색령 -----	17
	1. 일제강점기의 오색령에 대한 표현 -----	17
	2. 해방 이후 오색령(한계령)의 변화 -----	34
	IV. 양양 오색령 지명복원 -----	39
	V. 맺는말 -----	42
	제2장 필여령(弼如嶺) -----	45
	I. 머리말 -----	47
	II. 필여령에 관한 고찰 -----	48
	1. 고문헌 속 필여령 -----	48
	2. 고문서에 나타나는 양양 지역 영의 순서 -----	54
	3. 영의 순서를 현대 지도에 표기 -----	55
	4. 필여령 접근로의 변화(상행선 기준) -----	55
	III. 필여령의 유래와 변화 -----	59
	1. 필여령의 유래와 지명의 변화 -----	59
	2. 마의태자와 피래 -----	59



3. 필레약수와 온천	64
4. 태백산맥과 은비령의 무대	65
5. 보부상의 바꾸미 길	67
IV. 필여령을 마치며	69
제3장 단목령(檀木嶺)	71
Ⅰ. 위치 및 식생	73
Ⅱ. 영 이름의 변화와 고문헌 속 단목령	74
1. 영 이름의 변화	74
2. 고문헌 속 단목령	77
Ⅲ. 단목령의 이용실태	79
1. 조선시대 이전	79
2. 조선시대	80
3. 근대의 피난길 단목령	82
4. 광복 이후	85
IV. 단목령을 마치며	86
제4장 소동라령(所冬羅嶺)	89
Ⅰ. 머리말	91
Ⅱ. 소동라령의 위치와 의미	92
1. 고지도를 통해서 본 소동라령	92
2. 요해처인 소동라령	94
3. 문헌 기록을 통해서 본 소동라령	96

4. 경계기록을 통해서 본 소동라령 -----	98
5. 하천기록을 통해서 본 소동라령 -----	100
6. 거리기록을 통해서 본 소동라령 -----	102
Ⅲ. 현재 지명과 비교 및 실사 -----	104
1. 소동라령과 소어령, 북암령 -----	104
2. 현지 실사를 통해서 본 소동라령 -----	105
Ⅳ. 오색역과 소동라령의 관계 -----	107
1. 오색역의 역할 -----	107
2. 소동라령과 오색역의 변화 -----	108
Ⅴ. 맺음말 -----	112

제5장 조침령(鳥寢嶺) -----	115
Ⅰ. 머리말 -----	117
Ⅱ. 조침령의 고찰 -----	118
1. 고문헌 속의 조침령 -----	118
2. 조침령 이름에 대한 고찰 -----	120
Ⅲ. 조침령로의 변화 -----	122
1. 옛 조침영로 -----	122
2. 군사도로 -----	124
3. 418번 지방도 -----	125
Ⅳ. 조침령로의 이용실태 -----	126
1. 옛 조침령로 쇠나드리 -----	126
2. 현 조침령로 -----	128
Ⅴ. 맺는 말 -----	129



제6장 구룡령(九龍嶺)	131
I. 이름의 유래	133
II. 구룡령의 변화	134
1. 두 개의 구룡령길	134
2. 동서와 남북 교류의 흔적, 구룡령 옛길	135
3. 바꾸미들이 넘던 고개	136
III. 역사속의 구룡령	137
1. 양양남대천 수원중의 하나	137
2. 구룡철광	137
3. 반쟁이	138
4. 황장봉산	139
5. 명승 제29호	141
IV. 구룡령옛길의 가치	141

제2편

7호선 국도로 이어지는 영(嶺) 143

고송고개와 말령고개	145
밀양고개	145
진등고개	146
만세고개	146
잔교리고개	147
동산고개	148



광진고개	-----	148
남애고개	-----	148
눈고개	-----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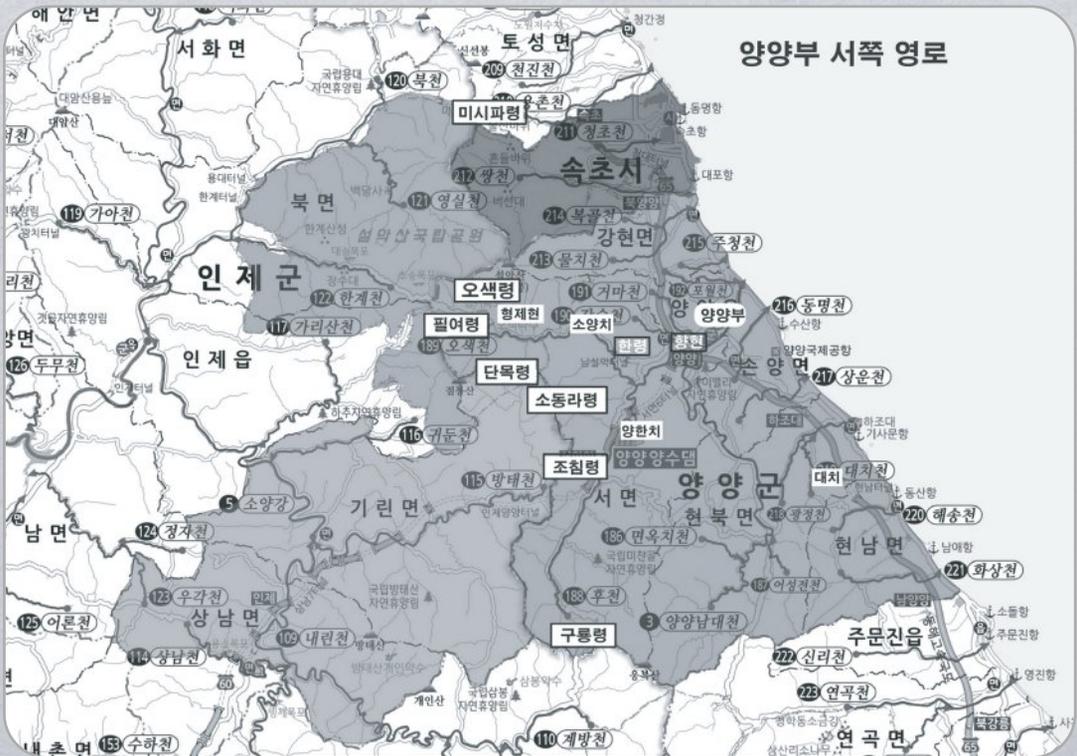
부록(附錄)

151

읍면별 영, 치, 현 현황	-----	153
----------------	-------	-----

제1편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서쪽 영로(嶺路)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서쪽 영로에 들어가면서

과거 양양부(襄陽府)에서 백두대간을 넘어 서쪽으로 통하는 영로는 총 6개가 있었다. 그러나 이글의 성격상 6개 영을 개별적으로 정리하다 보니 전체를 한 번에 이해하는 자료로서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여 설명을 부가한다.

우선 영의 순서를 오색령에서 구룡령까지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며 양양부에서 출발하면 인근 고을 어느 곳에 이르는지를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인제현으로 가는 영로는 오색령(五色嶺)¹⁾과 필레령(必曳嶺)이 있고, 연수파(連水坡)²⁾와 조침령(鳥寢嶺), 소동라령(所冬羅嶺)³⁾은 춘천부 기린현으로 가고, 구룡령(九龍嶺)은 강릉부로 가는 영로였다.

여기에서 인제현은 지금의 인제군청 방향을 말하며, 춘천부 기린현은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가 되었고, 구룡령 넘어 강릉부는 홍천군 내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최근 오색령(한계령)을 두고 인제군에서 소동라령과 같은 영이었다고 잘못 해석함으로써 산악인들에 의해서 인터넷상에 마치 정설처럼 여겨 잘못된 내용을 퍼 나르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보면 다음과 같다.

양양부에서 서쪽으로 통하는 영로(嶺路)는 6개였지만 이 중에서 사람과 물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역을 매개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한 역로(驛路)는 소동라령이었다. 오색역(五色驛)이란 이름 때문에 오색령이 역로로 활용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다.

-
- 1) 오색령(五色嶺)의 옛 이름은 소솔령(所率嶺)으로 1915년 일제가 조선 침탈을 목적으로 만든 1/50,000 지도에 오색령을 한계령으로 표기한 이래로 오색령의 지명은 한계령이 되어 현재까지 쓰이고 있다.
 - 2) 단목령(檀木嶺)의 옛 이름은 연수파(連水坡)로 불리다가 광여도(1737~1776)와 대동지지(1861~1866)에서 박달령(朴達嶺)으로 기록된 후 박달령으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인 1917년(대정6) 총독부에서 발행한 지도에 박달령(朴達嶺)을 단목령(檀木嶺)으로 기록하였는데 그 후부터 단목령이 공식적인 표기가 되었다.
 - 3) 북암령(北庵嶺)의 옛 이름은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 하며 바드라재라고도 한다.



그러나 오색령의 돌산을 뚫고 우마차가 통과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9년 이후 부터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제45 간성군 산천(山川)조에 ‘미시과령(지금의 미시령)은 고을 서남쪽 80리쯤에 있다. 길이 있으나 예전에는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1493년(성종 24)에 양양부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다 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 역원(驛院)조에는 ‘원암역(元岩驛) 옛터가 있는데, 고을 서남쪽 63리에 있었다. 미시과령(彌時坡嶺)의 길이 열리면서 오색역(五色驛)을 철폐하여 여기로 옮겼다.’ 는 기록이 있다.

결국 1493년에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역로(驛路)로서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미시과령(彌時坡嶺)이 열렸고, 소동라령의 역로(驛路)를 유지 보수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오색역(五色驛)도 폐지되어 새로운 역로를 따라 간성지역으로 옮겨갔으며 원암역(元岩驛)에서 이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인제에서 주장하는 오색령이 소동라령이라는 억지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오류임을 확실하게 밝혀두는 바이니 바르게 이해하기 바란다.

6개의 큰 영들이 지금은 백두대간(白頭大幹)⁴⁾을 종주(縱走)하는 대간(大幹) 길로 이용되며 총 35구간 중 31구간은 구룡령에서 조침령까지 24km이고, 32구간은 조침령에서 오색령(한계령)까지 25km이다. 총 42구간으로 나누면 각각 37구간과 38구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특히, 조침령과 구룡령에서는 자전거 힐클라이밍⁵⁾ 경기가 종종 개최되어서 과거와는 다른 기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6개의 큰 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작은 영을 넘어야 하는데 작은 영으로는 향현(香峴/향재 : 상평고개), 소량치(所良峙 : 서늘재)⁶⁾, 한령(寒嶺 : 빨딱고개), 형제현(兄弟峴)⁷⁾, 망령(望嶺)고개⁸⁾, 작은양아치(小兩峨峙), 큰양아치(大兩峨峙)⁹⁾ 고개가 있다.

4)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 고유의 지리 인식체계이며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금강산, 설악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중심산줄기로서, 총길이는 약 1,400km에 이른다. 지질구조에 기반한 산맥체계와는 달리 지표 분수계(分水界)를 중심으로 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인간의 생활권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산지 인식체계로 1정간 13정맥으로 되어있다.

5) 힐클라이밍, 혹은 힐클라임은 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통해 주어진 지점까지 가는 시간을 기록하여 경쟁하는 모터스포츠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지금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이용하여 언덕을 오르는 경기로 확대되었다.

6) 소량치(所良峙)는 흑간리(黑澗里 : 양양철광)에서 가라피리(加羅皮里)로 넘는 고개

7) 형제현은 만경대와 용소폭포 탐방지원센터 사이에 위치한 두 봉우리

8) 망령고개는 송천리와 논화리 경계로 북암리로 가는 행로

9) 작은양아치(小兩峨峙)와 큰양아치(大兩峨峙)는 붙어 있으며 영덕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도로 폭이 마치 개미허리처럼 가늘고 높고 험하게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본래는 양한치(兩寒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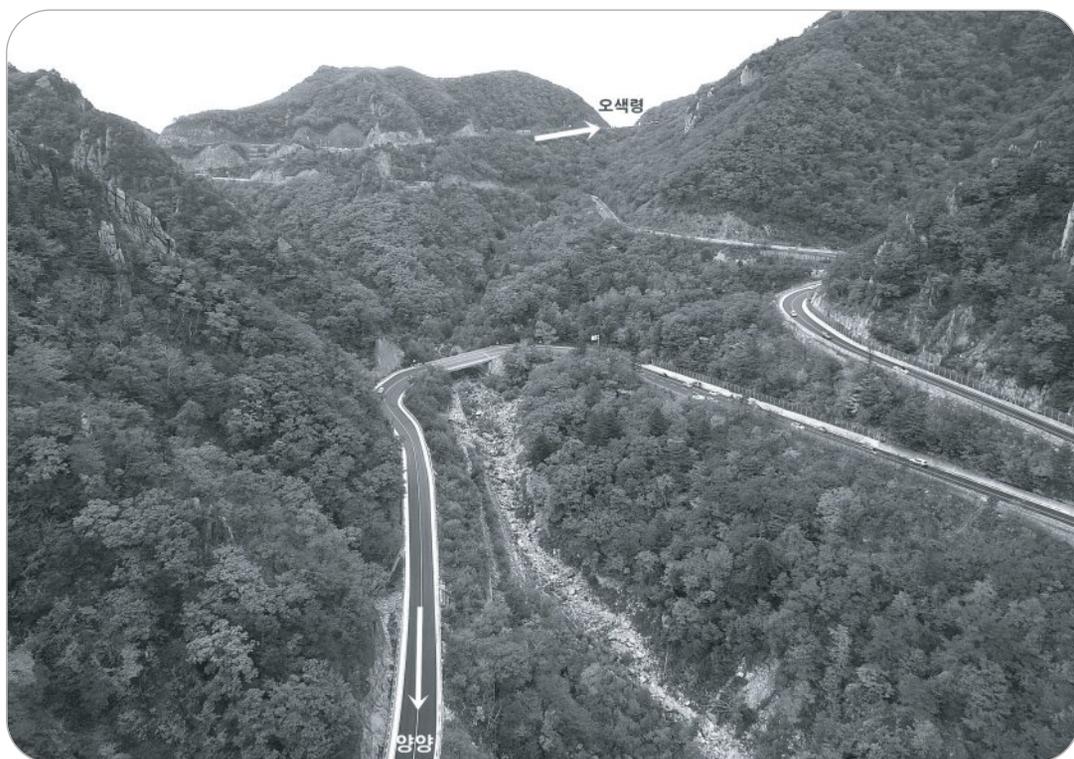
위의 작은 영로들은 각종 지리지나 시문 등에 등장하는 곳으로 각각의 위치는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 글에서 작은 영로는 위치만 확인하였을 뿐, 따로 큰 영들처럼 정리하지는 않았어도 필요에 따라 부가적인 설명을 하였기에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줄로 안다.

큰 영로의 대부분은 확·포장되어 국도와 지방도로 이용이 되면서 과거의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단목령(연수과)과 북암령(소동라령)은 아직도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조침령과 구룡령은 옛길은 남아있으나 새로운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추억 속의 영로가 되었다. 이중 단목령(연수과)은 1982년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987년부터 입산이 통제되었으며, 2011년 《양양향토사연구소》에서 탐방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암령(소동라령)은 역로의 기능을 잃은 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폐쇄상태이기에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작은 영로도 소량치(서늘재)와 망령고개, 형제현을 빼고는 모두 포장되어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영로 모두는 별개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웃 고을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의 시발(始發)로 양양부의 물자와 사람이 영서로 통행하면서 물물교환 내지는 상행위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소금과 해물이 주로 인제로 갔지만 멀리서 홍천, 원주, 양구, 춘천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오색령 2등 도로 개착 진정서”에서 확인하였다.

6개의 영로는 비슷하면서도 개별적인 특징과 사람 살아가는 맛과 멋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영을 읽어가면서 이들의 미묘한 차이와 우리 《양양학연구소》에서 전하려 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꼈으면 한다.

—
제1장
오색령(五色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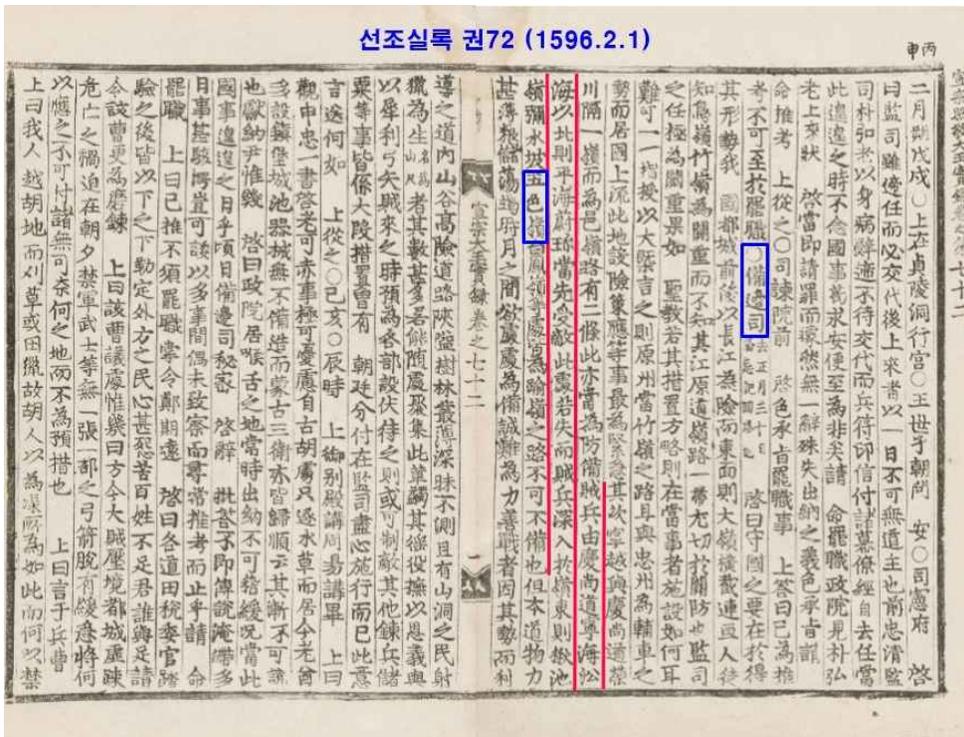
오색령로 전경





I. 머리말

오색령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30번지이며, 해발 1,004m¹⁰⁾로 예전부터 영동과 영서를 잇는 주요 영로였다. 임진왜란 중인 선조 29년(1596) 2월 1일에 비변사(備邊司)가 아뢰기를 적병이 영동으로 침입하면 이 영(嶺)을 넘을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이 오색령의 효시(嚆矢)이다.



<그림 1> 『선조실록』 권72 비변사(備邊司)에서 주청(奏請)한 오색령

조선 말기 지리학자 김정호는 대동여지도의 고본(稿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여도(東輿圖)에서 오색령을 고대로(古大路)라 하였고, 그 외 각종 고지도(古地圖)와 고지시(古地誌)에 한결같이 기록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조선총독부는 도로 규칙을 제정하여 조선의 총독이 직접 관

10) 과거의 오색령은 1,004m이다. 그러나 44번 국도를 공사한 후의 오색령은 920m이다.



리하는 1·2등 도로와 도장관(지사)이 관리하는 3등 도로, 기타 부윤, 군수 등이 관리하는 등외도로로 구분하였다.

오색령은 1913년 「관보」에 3등 도로¹¹⁾로 고시되면서 공식적인 관리주체가 알려지게 되었다. 3등 도로로 지정된 것에 반발하여 1923년에 영서지역의 춘천·홍천·양구·인제 등 4개 군이 각각 군별(郡別)로 강원도에 2등 도로로의 승격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영동에서도 강릉·삼척·울진군이 동참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었으나 2등 도로¹²⁾로의 승격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조선총독부가 행정 내적으로는 오색령 도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1915년에 조선 침탈을 목적으로 만든 1/50,000 지도에는 오색령을 한계령으로 오기(誤記)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9년에 전국의 지명을 재조사하면서 경계에 위치한 영에 대하여는 양쪽의 의견을 받아서 지명을 확인해야 함에도 시·군 단위로 행정구역 내에 포함된 지명을 해당 군 단독으로 조사하도록 하였다. 한계령은 한계리를 근거로 인제군 조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양양군에서는 한계령을 오색령으로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이후 1961년 4월 22일 전국의 지명이 고시될 때 한계령으로 확정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제군 북면 한계삼거리부터 양양군 서면 오색리까지 이어지는 국군의 전술도로가 1966년 4월 1일 착공하여 1971년 11월 30일 완공되면서 모든 이정표가 한계령으로 표기되었다.

특히 1971년 8월 31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해 국도 제44호선 양평 ~ 양양선으로 137.2km가 지정되면서 한계령은 오색령을 대신하는 지명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이유로 양양문화원은 2016년 9월에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오색령 정상에 기존에 설치한 소형 표지석을 제거하고 “백두대간 오색령”이라고 각자(刻字)한 대형 표지석으로 교체하였다. 이는 군민 정서에 반한 지명변경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며 반드시 오색령 지명을 복원해야 한다는 군민의 단합된 의지 표명

11) 3등도로 : 부청(府廳) 또는 군청끼리 연결하거나 부·군 내의 교통요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도지사가 관리하며 폭 4m 이상, 구배 1/20이하, 곡선 반경 11m 이상
12) 2등도로 : 도청 상호 간, 도청에서 부·군청 소재지 간 연결, 총독이 관리하며 폭이 32ft(5.4m)이상, 구배 1/25이하, 곡선반경 15m이상



이었다.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에서는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로 2011년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 제26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서 논문 부문의 최우수상을 수상 한 바 있다. 2012년에는 “소동라령에 대한 고찰”로 제22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글에서는 오색령이 변모한 내력과 왜, 언제, 누구의 잘못으로 오색령이 한계령으로 변했으며, 오색령으로 복원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풀어보고자 한다.

II. 오색령과 한계령의 관계

1. 설악산과 한계산



<그림 2> 오색령 정상의 표석

설악산(雪嶽山)은 강원도 양양군, 인제군, 속초시, 고성군에 걸쳐있는 산으로 197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대청봉(1,708m)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향로봉과 금



장산을, 남쪽으로는 점봉산과 오대산을 두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한라산(1,950m)과 지리산(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1965년 11월 5일 천연기념물 171호인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1970년 3월 24일 산 중심부 174km가 국립공원 5호로 지정되었고, 1982년에 설악산 남쪽의 점봉산(1,424m)을 포함한 393km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UNESCO)의 생물권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1984년에는 공원이 오색, 점봉산까지 확대되어 현재의 공원면적은 398km²이다.

설악산은 예전에는 설산(雪山), 설봉산(雪峰山), 설악산(雪嶽山) 등의 이름으로 불리웠으며 주봉은 대청봉으로 행정구역상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번지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22대 지증왕 때부터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설악산에서도 제례를 올렸다고 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설악산이 한가위부터 내리는 눈이 하지(夏至)가 되어야 없어지는 산이라는 기록이 전하고,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암석이 눈처럼 하얗기 때문에 설악이라 불려진다는 기록이 있다.

예전에는 대청봉이 있는 양양쪽 산을 설악산이라 하고, 귀뚜기청봉이 있는 인제쪽의 산은 한계산(寒溪山)이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2. 소솔령과 오색령(한계령)

지금 한계령의 옛 지명은 소솔령(所率嶺)이었다.

1589년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한 팔곡 구사맹(八谷 具思孟, 1531~1604년)의 『팔곡집(八谷集)』에 수록되어 있는 「한계산(寒溪山)」 시(詩)의 주석(註釋)을 살펴보면 “옛 절 한계사는 양양에서 소솔령(所率嶺)을 넘어 인제로 이어지는데 많은 사람이 한계사(寒溪寺 : 장수대 인근의 절)에서 투숙함으로 이들을 접대하기 힘들고 감내할 수 없어 스님들이 절을 버려두고 떠나 절은 허물어져 빈터만 남아있다 . . .”¹³⁾라는 글이 있다.

13) 『팔곡집(八谷集)』 한계산(寒溪山) / 시(詩) / 주석(註釋) 팔곡 구사맹(八谷 具思孟)

古寺 卽寒溪寺 自襄陽所率嶺 抵麟蹄舊路 經由寺下往來人 必投宿于寺 寺僧不堪迎接之苦 不肯居住 遂致空廢 今則頽圮已久 只有舊基 砌礎宛然 曾是巨剎也

石墮无堪怕。遂陟繁喜巔。坐無草可藉。扶杖立斯須。時
 目窮高下。嵩巖樂疊纏。馳逐或迎迓。捷拔挿蒼宮。未嘗
 屈腰膝。褒鄂整冠劍。彷彿聞叱吒。陰崖常帶凜。白雪留
 朱真。森爽不可駐。漸降如噉蔗。千丈展蒼鮮。倒掛飛泉
 射。巨廬與朴淵。唐突論聲價。兩恨久早餘。未見長虹跨
 暮校上。乘庵林端絕。啞々金堂照素秋。玉燈炯長夜。上
 雲有遺墟。兩髯曾所架。感世馬能久。掃盥不少假。嚴程
 輟窮搜。來去寧免余。亦足慰平生。且向山靈謝。緬懷金
 剛秀。茲山合居亞。五嶽尊岱宗。其次較高華。終未敵純
 王。猶能依偏霸。古寺即寒溪寺。自襄陽可率嶺抵麟蹄
 舊路經由寺下往來人必宿于此寺。
 僧不堪血。接之者不肯居住。遂致空廢。今則禪地已久。
 只有蒲菴。砌礎宛然。曾見巨刹也。此山在麟蹄為寒溪。

其在襄陽者曰
 雪岳。實一山也。

奉送湖叟還都

白雲猶在天。明月不肯留。之子戒風裘。驅馬向中州。終
 南在何許。故國養德之。行々可指日。莫言歸路脩。與兄
 同自出。姓異心則侔。綺紉早自脫。擗藻驚凡儔。不從科
 第選。陰陰豈無由。愛矣璣不謂。當未厭從遊。鯨波忽滔
 天。奔竄窮深幽。三霜駐海曲。相思搔白頭。兄來自關西。
 會合不曾謀。居然對床語。疊々回青眸。月能幾何復。
 此起離憂。兄云寧久淹。孤死必首丘。先人室已燬。瑩瓏
 樹木樛。省視得一哭。餘生志願酬。江南有荒田。行且親
 鋤耨。所以輕作別。把衣淚欲流。進賢世已遠。斯人不見

<그림 3> 『팔곡집』 권2 (한계산)

下小室不蔽風日。室下海濤激石。山形如掀。屋板長
 鳴。余下至洞口。雲山與僧繼十來迎我。至寺。智生出
 迎館待。甲午平明。余坐亭上望出日。智生饋朝飯。引
 余見觀音殿。所謂觀音像。技極精巧。若有精神焉。殿
 前有正趣殿。殿中有金佛三軀。余出道南路西轉。而
 行。行將二十里。至襄陽府前川上歇馬。又行十里。八
 雲岳。陟所於嶺下峴。則川水在左。峰巒在右。過盡山
 麓。涉川流而左。山明水秀。白石交加。略如金剛山大
 藏洞。沿流而上。至五色驛。山月已白矣。是日。陸行三
 十里。山行四十里。乙未發五色驛。度所率嶺。雲岳巖
 嶺。無慮數十餘。峰皆頭白。溪邊石亦白。俗號小金
 剛山。非虛語矣。雲山曰。每八月。諸山未霜。而此山先
 雪。故云雪岳。嶺上石間。有八分書一絕云。生先禪帝
 戊辰歲。眠及箕王號。馬韓留與永郎遊水府。又率春
 酒滯人間。墨跡尚新。書之必不久也。世無仙者。豈非
 好事者偶題歟。然子程子以國祚之祈天永命。常人
 之至於聖人。以此修煉之。引年濊山大澤之中。亦有
 這般等人。未可知也。讀其詩。令人有出塵之想。余於
 嶺上辭東海。下嶺西南行。樹道塗險絕。洞壑幽溪。
 折取丁香花。插馬鞍。以聞香。過眠巖。行將三十里。歇
 馬。過新院。又行十五里。有川自雪岳西面而來者。與
 所率川合流。至元通驛。下為大江。前至元通。山川曠
 莽甚佳。自元通履平地。又行二十五里。涉元通川。麒
 麟縣水於此合流。循江行五里。宿麟蹄縣。是日。山行
 六十里。陸行三十里。丙申。乘舟渡瓶項津。西南行。過

<그림 4> 『추강집』 권지5 「유금강산기」

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 1454~1492년)의 『추강집(秋江集)』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는 “오색역(五色驛)을 출발하여 소솔령(所率嶺)을 오르니 여기를 소금강산이라 부르는 것이 빈말이 아니구나 하고서 영(嶺)위에서 동해를 하직하고 원통을 지나 인제현(麟蹄縣)에서 묵었다.”¹⁴⁾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양양에서 영을 넘어 한계사(장수대 부근)를 지나 인제를 통하는 지금의 한계령의 옛 이름은 소솔령(所率嶺)이었다.

3. 소솔령이 오색령인 근거

오색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찾을 수 있다. 선조실록 권 72(宣祖實錄 卷七十二) 1596년 2월 1일에 비변사(備邊司)가 선조께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적병이 경상도 영해(寧海) 연해를 따라 북상하게 되면, 평해와 울진이 가장 먼저 적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곳을 만약 지키지 못하면 적병이 깊숙이 영동(嶺東)으로 침입하여 추지령(楸池嶺)¹⁵⁾·미수과(彌水坡) : 미시령·오색령(五色嶺)·백봉령(白鳳嶺)¹⁶⁾ 등을 차지하고 모두가 영로(嶺路)를 넘게 될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¹⁷⁾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토록 많은 문헌에서 언급되던 소솔령(所率嶺)이라는 고개명은 이때부터 모든 기록과 지도에서 사라지고 오색령(五色嶺)이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이는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비슷한 명칭의 고개 이름(소과령, 소솔령, 소어령, 소동라령 등)에서 벗어난 특별한 지명을 통해 위치를 쉽게 기억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김수증(金壽增)¹⁸⁾의 『곡운집(谷雲集)』에 수록된 『한계산기(寒溪山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91년 5월 9일의 기문(記文)에 “한계사(寒溪寺) 옛터를 지나니 북쪽 사면의 모든 산봉우리는 곧게 솟아 있고, 나무들이 무성하여(중략) 물가의 돌 위에서 점심을 들었다. 지나는 스님을 만나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오색령(五色嶺)을 지나서 양양(襄陽)으로 가는 길인데 대개 이곳에서 바닷가까지의 거리는 80리

14) 『추강집(秋江集)』 권지5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
乙未。發五色驛。度所率嶺。雪岳亂嶂。無慮數十餘。峯皆頭白。溪邊石木亦白。俗號小金剛山。非虛語矣 ...余於嶺上辭東海...自元通履平地...宿麟蹄縣。

15) 강원도 회양군 안풍면과 통천군 벽양면(지금의 통천군 중천리와 금강군 화천리) 사이에 있는 고개.

16) 동해·삼척과 정선·임계 이어주는 백두대간 능선 고갯마루

17) 備邊司 啓曰:……賊兵由慶尙道寧海, 沿海以北, 則平海蔚珍, 當先受敵。 此處若失, 而賊兵深入於嶺東, 則楸池嶺, 彌水坡, 五色嶺, 白鳳嶺等處, 皆爲踰嶺之路, 不可不備也。

18) 김수증(金壽增 1624~1701) : 본관은 안동(安東). 1650년(효종 1) 생원시에 합격, 1652년 세마(洗馬)가 되었다. 형 조정량, 공조정량을 거쳐 각사(各司)의 정(正)을 두루 역임. 젊어서부터 산수를 좋아하여 금강산 등 여러 곳을 유람한 뒤 기행문을 남김. 『곡운집』, 『곡운구곡도첩』 등을 저술



정도라고 하였다.”¹⁹⁾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에서 우리는 양양에서 영을 넘어 한계사 터를 지나 인제로 가는 영이 소솔령임을 기록을 통해 확인했었다. 그런데 지나가는 스님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으니 오색령을 거쳐 양양으로 간다고 대답했다. 이로써 소솔령이 오색령으로 이름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한계사지 전경

양와 이세구(養窩 李世龜)의 문집인 『양와집(養窩集)』에 1691년 10월 3일 기록한 「동유록(東遊錄)」이 있는데 “조침령의 북쪽은 오색령이고 그 동쪽은 양양(襄陽)이고 서쪽은 인제(麟蹄)이며 오색령 북쪽이 미시파령이다.”라고 적고 있다.²⁰⁾

식산 이만부(息山 李滿敷)의 『식산집(息山集)』 「금강산총기」 서두에 “대체로 우리나라의 산은 백두산에서 비롯되었으며 백두산(白頭山)의 낙맥(落脈)이 남으로 흘러 철령

19) 歷寒溪寺舊基。北面諸峯矗立森羅。(생략) 至溪邊石上午飯。逢過去僧。問其何向。則曰由五色嶺至襄陽。蓋此距海路八十里云。

20) 曹砧之北爲五色嶺。其東則襄陽。西則麟蹄。五色之北爲彌時坡嶺。



에 이르며 남북의 경계를 이룬다. 이곳에서 동으로 굽이치면 추지령·쇄령·온정령 등 세 개의 큰 영(嶺)으로 팔백리를 왕래하며, 온정령 남쪽 삼십리에 금강산이 있다.

금강산에서 동해를 따라 백리를 내려가면 진보령〔진부령〕이다. 진보령에서 오십리를 더 가면 석과령이고, 그곳에서 삼십리를 더 가면 미치령〔미시령〕, 다시 육십리를 가면 한계산이고, 다시 삼십리를 가면 오색령에 이르며, 이곳에서 구십리를 가면 오대산에 이른다. 여기서 다시 삼십리를 가면 대관령이고, 사십리를 더 가면 백복령이고, 백리를 더 가면 태백산과 황지 연못이다. 이 영들은 대체로 위든 아래든 지세나 풍경이 빼어나지만 좁고 험준한 모습이다.”²¹⁾라고 적고 있다.

『증보문헌비고』 양양 산천편(襄陽山川編)에는 “양양 오색령은 서쪽 50리에 있다. 구불구불한 여러 산이 총설에 나타나 있다. 영로(嶺路) 오색령은 현재 양양의 영로로 필여령과 함께 나란하며 서로(西路)는 소동라령·조침령이다. 구룡령은 강릉으로 가는 도로로 형제현, 양한치도 모두 서쪽을 향하는 도로이다. 인제 영로(麟蹄嶺路)는 미시령·흘이령·탄둔령·두모치·건리치·오색령·서과령·가노치·진보령이다.”²²⁾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입증하듯이 앞에서 본 고지도들에서도 소슬령과 오색령이 함께 표기된 지도는 없다. 모든 고지도에서 소슬령이 사라지고 오색령이 나타나고 있다. 한계사에 투숙객이 많아 이를 감내할 수 없어 절을 버리고 떠날 정도로 이용객이 많았던 소슬령이란 지명이 모든 지도에서 사라지면서, 필여령의 북쪽 영으로 모든 지도와 문헌에서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오색령이 과거의 소슬령임이 분명하다. 오색령은 소동라령이 없어진 후 당시에도 양양과 인제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영로로 지금의 한계령(옛 오색령)임을 알 수 있다.

21) 大抵我東之山 起自白頭 白頭之脉 南流至鐵嶺 限南北界 東迤爲楸池 鎮 溫定三大嶺 通八百里 溫定南三十里 爲金剛 金剛東邊海百里爲眞寶嶺 五十里爲石坡嶺 三十里爲 彌峙嶺 六十里爲寒溪山 三十里爲五色嶺 九十里爲五臺山 三十里 爲大關嶺 四十里爲百複嶺 百里爲太白·黃池 此其上下形勝阻阨大體也.

22) 『增補文獻備考』 卷二十八
襄陽 五色嶺在西五十里右諸山見總說 嶺路五色嶺見襄陽嶺路 弼如嶺並西路 所冬羅嶺 阻沈嶺 九龍嶺江 陵路 兄弟峴 兩寒峙並西路 麟蹄嶺路 味施嶺……屹伊嶺 炭屯嶺……頭毛峙……建里峙……五色嶺 見襄陽 嶺路 西坡嶺並東路 加奴峙南路 眞寶嶺北路



Ⅲ. 일제강점기 오색령

1. 일제강점기의 오색령에 대한 표현

일제강점기에도 행정 내적으로는 오색령이란 지명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조선총독부 「관보」 제140호(1913. 1. 21)에 “강원도의 3등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하다. 양양~인제 간(藥水里, 五色嶺, 魚頭里 經由)”이라고 고시²³⁾ 하면서 오색령(五色嶺)을 공식 지명으로 사용한 것이다.

朝鮮總督府官報 第一四〇號 大正二年一月二十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	
○ 地方廳公文	
朝鮮總督府江原道告示第一號 本道三等道路左ノ通告 [△] 大正二年一月十五日 朝鮮總督府江原道長官 李圭完	
蔚珍、竹邊間	蔚珍、竹邊間
江陵、見召津間	江陵、見召津間
襄陽、麟蹄間	襄陽、麟蹄間
密岩店、五里津間	密岩店、五里津間
杆城、巨津間	杆城、巨津間
通川、庫底里間	通川、庫底里間
淮陽、土城間	淮陽、土城間
安峽、金北間	安峽、金北間
金城、平康間	金城、平康間
金城、華川間	金城、華川間
淮陽、內坪里間	淮陽、內坪里間
華川、麟蹄間	華川、麟蹄間
麟蹄、砥平間	麟蹄、砥平間
橫城、安興間	橫城、安興間
寧越、旋善間	寧越、旋善間
旋善、大和間	旋善、大和間
旋善、平昌間	旋善、平昌間
漣川、土城里間	漣川、土城里間
平昌、酒泉間	平昌、酒泉間
大光里、龍潭、鐵原邑、月井里、平康邑	大光里、龍潭、鐵原邑、月井里、平康邑
平安	平安
平安	平安
鐵原邑	鐵原邑
山陽里	山陽里
化川、末輝里、文登、楊口邑	化川、末輝里、文登、楊口邑
楊口邑	楊口邑
陰陽里、城山里、洪川邑、楊德院	陰陽里、城山里、洪川邑、楊德院

<그림 6> 조선총독부강원도고시 제1호 관보

가. 오색령 2등 도로 개착을 위한 노력의 개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每日申報, 1922. 12. 6.)에 의하면 양양군에서는

23) 1913. 1. 21. 조선총독부 관보 제140호, 조선총독부 강원도 고시 제1호 본도 3등 도로.



오색령 도로를 2등 도로를 만들기 위해 “오색령 통과 기성동맹규약(五色嶺 通過 期成 同盟規約)”을 만들어 3개년에 걸쳐 완성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중 15만원²⁴⁾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목표를 세우고 규약을 만들었다.

이 규약에 따라 1922년 12월 6일부터 양양 오색령로를 2등 도로로 개착(開鑿 : 산을 뚫거나 땅을 파서 길을 냄)해야 한다는 진정서(陳情書)를 영서에서는 춘천을 시작으로 홍천, 인제, 양구가 연쇄적으로 강원도에 제출하였고, 영동에서도 강릉, 삼척, 울진 등이 오색령 도로 개착(開鑿)을 찬성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당시 강원도로부터 오색령 도로 직로(直路)를 위한 답사 하명(下命)이 있자 1931년 11월 8일 양양군수 박재수(朴在洙)는 군내 관민유지(官民有志) 45명을 대동하고 조침령(鳥砮嶺)을 통해 인제군 현리를 경유(經由)하여 인제군청을 방문 인제군수 김극일(金極一)과 원만한 협정을 마친 후 오색령 도로를 시찰하고 11월 14일 귀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32년 3월 15일에는 인제군 북면 주민 800여 명이 연서로 날인하여 인제읍에서 기린을 거쳐 양양으로 관통하는 도로는 불가하니, 인제군 북면 원동리를 중심으로 오색령(五色嶺)을 관통케 해달라고 인제군청과 강원도에 진정서를 제기하였다고 동아일보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2등 도로로 고시된 경성(京城)~오리진선(五里津線)이 경성(京城)~간성선(杆城線)으로 변경된 후 우리군과 주변 7개 군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오색령 직통노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38년 12월 1일 「조선도로령」에 의해 춘천~간성선이 65번 국도가 되면서 양양~인제 간은 국도에서 제외되었다. 그러자 ‘양양 4개면(양양, 서, 손양, 강현)은 연합으로 오색령 도로를 수선(修繕)하여 탐승객(探勝客)의 불편을 조금도 없게 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매일신보(1938. 12. 6.)에 전해온다. 결국 양양군민의 16년간 노력이 물거품이 되자 부역(負役)을 통해서 자력으로 당장 도로 수선을 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오색령 통과 기성동맹 조직

1922년 12월 6일 양양군민은 모든 면의 대표가 참여하여 “양양 오색령 통행 기성

24) 공사비 20만원으로 설계 된 것이 1932년이니 양양에서 목표한 금액 15만원은 1940년 환율로 쌀 80kg 1가마 가격이 22.68원이니 6,614가마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동맹 규약”을 만들고 회원 50명이 참여하는 “오색령 이등도로 개착 기성동맹회”를 조직하였다. 오색령이 2등 도로로 승격하면 매년 5만원씩 3개년간 총 15만원을 공사비로 기부하는 조건으로 당국에 청원한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 襄陽 五色嶺 通過 期成同盟規約

(양양 오색령 통과 기성동맹규약 1922. 12. 6)

既報와 如히 襄陽郡에서 組織된 五色嶺 二等道路 開鑿 期成同盟會規約은 左와 如하더라 第1條 本會는 襄陽郡 興亡問題인 襄陽麟蹄間 五色嶺 二等道路 開通에 對하여 左記 方法에 依하여 向三個年 間을 期하여 完成하기로써 目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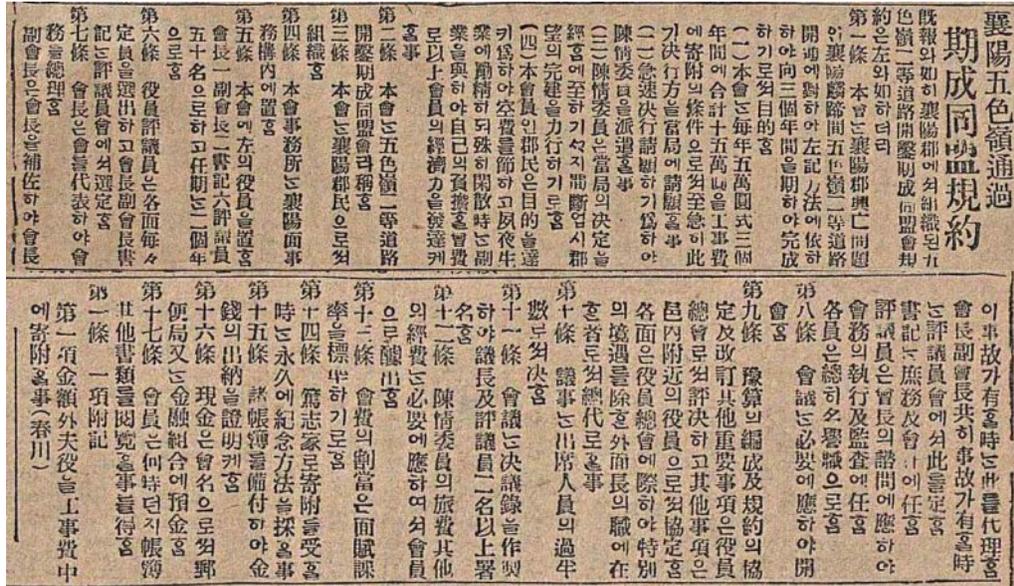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양양군에서 조직된 오색령 2등 도로 개착을 위한 기성동맹회 규약은 아래의 표기와 같다.

제1조 본회는 양양군 흥망의 문제인 양양~인제 간 오색령 2등 도로 개통에 대하여 좌측에 기록된 방법에 따라 향후 3개년간에 완성하기로 목적을 하였다.

- (1) 本會는 每年五萬圓式 三個年間に 合計 十五萬圓을 工事費에 寄附의 조건으로써 至急하여 此기 決行方을 當局에 請願할 事.
 - (2) 急速決行請願하기 爲하여 陳情委員을 派遣할 事.
 - (3) 陳情委員은 當局의 決定을 經함에 至하기까지 間斷없이 郡望의 完建을 力行하기로 함.
 - (4) 本會員인 郡民은 目的을 達기 爲하여 空費를 節하고 夙夜生業에 厲精하되 殊히 閑散時는 副業을 與하여 自己의 負擔한 會費로 以上會員의 經濟力을 發達케 할 事. 副業을 與하여 自己의 負擔한 會費로 以上會員의 經濟力을 發達케 할 事.
- (1) 본회는 매우 급박하여 매년 5만원씩 3개년간 총 15만원을 공사비로 기부하는 조건을 이번에 결행한 방법으로 당국에 청원한다.
 - (2) 급속히 결행하고 청원하기 위하여 진정 위원을 파견한다.
 - (3) 진정 위원은 당국의 결정이 목적에 이르기까지 중단없이 군민의 바람대로 건설이 완료되도록 전력을 다해 행한다.



(4) 본 회원인 군민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고 밤낮으로 생업에 정성으로 매진하되 특히, 한기할 때는 부업을 하여 자기가 부담한 회비가 회원의 평균 이상 금액이 되어 경제력을 발달케 한다.



<그림 7> 1922년 12월 6일 매일신보 기사

- 第2條 本會는 五色嶺 二等道路 開鑿期成同盟會라 稱함.
- 第3條 本會는 襄陽郡民으로써 組織함.
- 第4條 本會事務所는 襄陽面事務所內에 置成.
- 第5條 本會에 左의 役員을 置함.
會長1 副會長2 書記6 評議員 50名으로 하고 任期는 2個年으로 함.
- 第6條 役員評議員은 各面 每每 定員을 選出하고 會長 副會長 書記는 評議員會에서 選定함.
- 第7條 會長은 會를 代表하여 會務를 總理 함.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여 會長이 事故가 有할時 늘 此를 代理할 會長副會長共히 사고가 우할 시는 評議員會 에서 此를 定함. 書記는 庶務及 會舍에 任함. 評議員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여 會務의 執行及 監査에 任함. 各員은 總히 名譽職으로 함.
- 第8條 會議는 必要에 應하여 開會 함.



第9條 豫算의 編成及 規約의 協定及 改訂其他 重要事項은 役員 總會로써 評決하고 其他 事項은 邑內附近의 役員으로써 協定함. 各面은 役員總會에 際하여 特別의 境遇를 除한 外面長의 職에 在한者로써 總代로 할 事.

第10條 議事는 出席人員의 過半數로써 決 함.

第11條 會議는 決議錄을 作口하여 議長及 評議員 2名 以上 署名함.

제12조 陳情委員의 旅費 其他의 經費는 必要에 應하여서 會員으로 釀出함.

第13條 會費의 割當은 面賦課 率을 標準 하기로 함.

第14條 篤志家로 寄附를 受할時는 永久에 紀念方法을 採할 事.

第15條 諸帳簿를 備付하여 金錢의 出納을 證明케 함.

第16條 現金은 會名으로써 郵便局 又は 金融組合에 預金 함.

第17條 會員은 何時든지 帳簿其他書類를 閱覽할 事를 得 함.

第1條 1項 附記

第1項 預金 外 夫役을 工事費 中에 寄附할 事(春川)

다. 오색령 2등도로 개착을 요구하는 진정서

오색령을 2등도로 개착(開鑿)하기 위해서 진심을 다한 이웃 7개 군과 함께한 노력과 추진 내용에 대한 기사를 아래에 정리하였다.

- 襄陽直通의 必要로 春川에서도 陳情
(양양 직통의 필요로 춘천에서도 진정 1922. 12. 6)

京城五里津線이 杆城線으로 變定됨에 對하여 方今 襄陽으로 陳情委員이 上道하였다 함은 既報와 如하거니와 此에 對하여는 春川一般이 舉留贊助 하는바 異口同說로 春川 發展策은 寧히 杆城을 開鑿함보다 襄陽을 開鑿함이 必要라 云하는바인대 勿論 春川入場으로는 杆城도 開鑿하고 襄陽도 開鑿되면 더욱이 滿足타 謂할지나 若杆城만 開通되고 襄陽은 開通치 아니하면 도리혀 襄陽으로 開鑿함이 春川에서 하는 影響이 多하다. 認하는 同時에 本月 日에는 春川邑內 有力者 多數가 春川郡廳에 集會하여 萬端協議한 結果 陳情委員을 選定하여 上道하였스며 又是 左와 如한 陳述書 까지 提出 하였다 하더라.



경성~오리진선²⁵⁾이 간성(杆城) 노선으로 변경 확정됨에 대하여 방금 양양의 진정 위원들이 강원도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춘천의 일반주민은 모두 함께 찬성하고 돕고자 하는 바인데 물론 춘천의 입장으로는 간성도 개착하고 양양도 개착되면 더욱이 만족스럽다 이르겠으나 만약 간성만 개통되고 양양을 개통치 아니하면 도리어 양양으로 개착하는 것이 춘천에 끼치는 영향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본 월 일에 춘천 읍내 유력자 다수가 춘천 군청에서 집회하여 여러 가지를 협의한 결과 진정 위원을 선정하여 도청으로 올라갔으며 또한 좌측과 같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

陳情書(진정서)

京城東海岸間의 路線에 對하여 釋컨대 地方 發展策 特히 春川의 發展策으로하여 卑見을 陳하여 當局의 諒解를 求코자하오니 賢察하여 주시기를 望하와 左記 理由를 具하여 陳述함.

경성에서 동해안 간의 도로 노선에 대하여 풀어 보건데 지방발전대책, 특히 춘천의 발전대책으로 우리의 의견을 진정하니 업무를 맡은 기관의 양해를 구합니다. 현명하게 살피시기를 바라며 좌측에 기록하여 이유를 자세히 진술합니다.

1. 春川의 位置에 對하여 論하면 春川은 西으로 京城이 二十餘里 東으로 東海岸 三十里北은 華川이 十里 南은 洪川이 十里 인바 西,南,北의 交通 不完全의 時代에는 春川邑內戶數 三四百戶에 不過하더니 交通機關이 完備된 今日에 在하야는 頓然히 一千五六百戶에 達하얏스니 若 今日로 東海岸을 直通될時는 不過 幾年에 幾千百戶에 達할줄로 預想함.
2. 春川 物貨 輸入先을 論하면 第一位는 東海岸인바 東海岸 中要地는 襄陽으로 (大浦의 築港은 既히 成立되고 注文津도 將來 大大로 擴張될터인데 其 距離로 하야도 襄陽이 最近한 地方이라) 第二位는 京城, 第三位는 華川, 第四位는 洪川인바 西,南,北은 既히 交通이 便利하게 되얏스즉 更論할바이 無하나 東海岸에 就하야 論하면

25) 서울에서 오리진까지의 도로로 오리진은 지금의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로 속칭 오리진(五里津)이라고도 했다하며, 조선총독부 관보 제1070호(1916. 3. 1일)에 간성군 죽왕면 사무소가 1916년 2월 5일 같은 면의 오진리(五里津)로 이전했다.(杆城郡竹旺面事務所ハ本年2月5日同面五里津里ニ移轉セリ)는 기록이 전한다.



江陵, 襄陽, 杆城, 通川의 物産은 京元線 汽車로 京城을 經하여 京春線 馬車로 春川에 到達됨으로써 海陸 産物이 腐敗毀傷의 慮를 免키 難함은 口陳을 不要하거니와 右四郡中 最히 重要한 地方은 江陵, 襄陽인데 此 兩郡으로 京城, 春川까지 人馬의 通行 貨物의 運輸는 襄陽邑으로 五色嶺을 經하여 通行하는것이 直經이라 云하겠는데 今에 珍富嶺을 通하여 杆城에 二等路線을 設定케된다하면 江陵, 襄陽으로의 旅行 及 貨物로 하야금 長距離를 口上하야 更히 南에 回口 하야 通行케되니 江陵은 大關嶺에 襄陽, 高城으로는 京元線을 經하야 京城에 通行케 될것이니 此의 路線은 杆城에 限하야 施設함에 不過하다 云하노라

3. 經費關係로 論하건대 珍富嶺을 通하면 工費가 少하고 五色嶺을 通하면 工費가 多大하다하나 地方發展을 主로 함에 는 工費의 多少에 拘泥할것이 安일줄로 思하거던 又況 襄陽人民으로서 15萬圓을 自擔하기로 既히 上申이 有한 듯하니 然則 工費에 對하야서도 別로 憂慮가 無할 줄노思하노라
4. 珍富嶺과 五色嶺과의 比較를 論하면 珍富嶺은 路面이 狹隘하여서 四리에 巨하도록 圓寂할 뿐 아니라 風致, 景色, 産物 等 可取할것이 無하나 五色嶺은 人家連接하고 左右 風致景色이 恰似 金剛山의 趣味가 有하고 且 五色泉의 特産燒酒는 自古로 全鮮에 特殊 且 貴重한 佳釀이라 云하에 將來 益益 更히 發現하여서 世界에 美名을 振할 豫想이 有하다 云함.
5. 二等路 開通 後 春川에 及 할 影響을 論하면 江陵은 大關嶺을 經하야 京城에 直通함으로써 此道路가 珍富嶺을 開通한다하면 既 通行에는 毫도 利害關係가 無함으로 春川에는 何等效力이 生치아니하니 五色嶺을 通하야 襄陽에 開通할시는 江陵, 襄陽 全部의 人馬 貨物은 舉皆 春川을 經하야 京城에 通行될것이오 從하야 高城, 杆城도 亦然 할지니 如此則 春川으로는 此에 無上의 幸福이될줄로 思하노라 (春川)

■ 五色嶺 道路에 關한 陳情

(오색령 도로에 관한 진정 1923. 2. 5)

京城으로 春川 麟蹄를 經하야 嶺東海岸에 中心地인 襄陽郡에 直線되는 五色嶺 開鑿問題에 對하여 該 郡既成會로 陳情委員이 上道함은 既報와 如하거니와 同郡 人民의 一心期成할 希望熱은 益益 激甚하야 今 又 陳情次로 一月 三十日에 同會 副會長 金翼



濟外 四氏가 雪堀을 踏破하고 上道하였는데 此에 對하야 襄者 春川郡 有志로 贊同하야 陳情書를 既히 提出한바이오 麟蹄, 楊口, 洪川, 等 三郡 有志도 各其 郡物産 貿遷의 共公利益과 京春聯合의 交通便宜를 條條說明한 陳情書를 本道廳에 陸續提出하얏고 追 又 傳聞에 의하면 江陵, 三陟, 蔚珍 等 郡에서도 亦 將同聲 協贊 云하니 此에 對하야 襄民一同의 熱誠渴望은 고사하고 四郡陳述과 三郡協贊을 隨聞推測하면 該 五色嶺 道路 開通은 東西 各郡의 通商及 交通發展上에 最大機關으로 確認할뿐 不 可 라 襄陽郡民에 對하야는 死活問題에 屬함이 無疑한 것은 以上으로 推測하더라(春川)

경성에서 춘천 인제를 경유하여 영동해안의 중심지인 양양군으로 바로 가는 노선인 오색령 개착 문제에 대하여 춘천군의 기성회 진정 위원들이 도청으로 올라간 것은 이미 보도한 바와 같다. 춘천군의 인민이 한마음으로 목적인 희망의 열기는 더더욱 격심하여 지금 다시 한번 진정을 하려던 차에 1월 30일에 춘천군 진정위원회 부회장 김억제 외 4명이 눈 속을 뚫고 험한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 왔는데 이에 대하여 양양 사람들은 춘천군 유지들이 찬성하고 동의하여 진정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인제, 양구, 홍천 등 3개 군의 유지도 각기 자기 군의 물산을 무역하고 옮기는 것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과 경춘 연합의 교통편의를 조목조목 설명한 진정서를 강원도청에 계속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바로는 추가로 강릉, 삼척, 울진군에서도 역시 장래에 한목소리로 협조하고 도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에 대하여 양양군민 모두의 열렬한 정성과 갈망은 고사하고라도 4개 군의 진술과 3개 군의 협찬으로 들은 바를 헤아려보면 마땅히 오색령 도로 개통은 동서 각 군의 통상과 교통발전 분야에서 기관에게는 최고로 큰 사업임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양군민에 대하여는 사활의 문제에 속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 그 이상으로 헤아려야 하더라.

■ 五色嶺道路 開鑿과 洪川郡民의 希望
(오색령 도로 개착과 홍천군민의 희망 1923. 2. 8.)

襄陽 直通인 五色嶺 二等道路 開通에 對하야는 洪川郡民도 希望하는바 有하야 郡有志 金聲遠 外 64人은 連名하야서 道에 陳述書까지 提出하얏다는 대 그 陳述의 內容은 如 左하더라(春川)



양양으로 직통하는 오색령 2등 도로 개통에 대하여 홍천군민도 희망하는 바가 있어, 군의 유지 김성원 외 64인이 연명하여 도에 진정서까지 제출하였는데 진술의 내용은 좌와 같다.

陳述書(진술서)

本地方 發展策으로하여 京城으로 東海岸에 直通하는 道路 開通에 對하여 左의 卑見을 具陳컨대

1. 洪川郡은 東은 襄陽이 二十八里 西는 京城이 二十八里 南은 原州가 十一里 北은 春川이 十里 인바 道路는 春川 原州 兩地에 二等 道路가 通하되 東西에 通하는 道路가 缺함을 因하여 運輸 交通의 便을 不得함으로 豊富한 本郡의 産物이 空에 遺棄케되며 産業도 亦是 遲遲不進하여 오직 環境 各郡의 隆盛를 仰示할뿐이라 今에 此의 頽勢를 挽回치아니하면 本郡의 發展을 期기 難한바이라 故로 此에 郡民은 京城 襄陽線 二等道路의 開通을 請望하여서 本郡뿐아니라 地方의 發展에 資 코자 함.
2. 江原道の 東部 海岸地方은 所謂 嶺東으로 一地域을 劃케됨은 地勢에 因한바이라 此가 嶺西地方에 通하는 道路가 不在함에 因하여 南北 及 北部에는 漸次開通을 見하되 中央部에는 一線도 不存한바 京城으로 最短距離인 直通線으로하여금 最히 必要로 認하는바 其 開通의 際에는 交通運輸의 便이 增進하여 地方의 開發은 勿論 嶺의 東西地區는 益益接近하여 共榮의 實을 舉케됨.
3. 本郡과 襄陽郡과는 古來 密接의 關係가 有한바 山地인 本郡과 沿海인 襄陽과는 物資交換 有無相通은 自然의 勢라 云하겟스나 本地方의 大市場인 原州와의 中繼地가 되야 兩方面의 物資는 當地를 經由케됨으로 俗語에 洪川은 襄陽의 出品場이라 云함에 其關係는 可以 推知할바이라 함. 兩地間에는 道路가 二線이 有한바 一線은 五色嶺을 越하여 麟蹄郡을 通過하는바 何時던지 車輛이 不通하는 故로 一朝車道の 開通이 될 바에는 通商 殷賑을 極할바이라함.
4. 聞하건대 襄陽民은 工費를 負擔하여 本道로 開鑿을 企圖하기로한 한즉 此가 實로 經濟的으로 東西를 連絡하자함이니 此가 現下 急務이며 地方發展策으로도 此가 急先務라할지라 附近 各郡民의 共鳴함에 至함이 豈非當然事之理乎아 殊히 그 沿道는 物産이 夥多함으로 市場이 多有하고 地方에는 景致豊富하며 五色里의 藥水 及 溫



泉 等은 其名이 世에 高하니 실로 本 線路는 經濟的 又是 文化的 急速開通의 必要가 有하다 信함.

右의 次第로 特別히 御銓諾로써 本線開通의 途를 開하기를 望함은 此가다만 一部 地方民의 幸福에 止치안을 줄로 思하노라 右를 陳述함.

洪川郡 金聲遠外 六十四人

■ 五色嶺道路開鑿과 麟蹄郡民의 陳述
(오색령 도로 개착과 인제군민의 진술 1923. 2. 10)



<그림 8> 1923년 2월 10일 매일신보 기사

五色嶺 道路 開鑿에 對하여 麟蹄郡民도 左와 如히 陳述書를 提出하였더라 / 오색령 도로 개착에 대하여 인제군민도 좌와 같이 진술서를 제출하였더라.

陳述書(진술서)

麟蹄郡 發展策을 爲하야 京城으로 東海岸에 達하는 江原道 橫端道路 開鑿에 關하여 左의 事由를 具하야 陳情함.

1. 麟蹄郡은 江原道の 中部山間에 在하야 東은 襄陽郡 西는 春川郡 南은 洪川郡 北은 楊口郡에 境한바 道路는 春川方面을 除外한 西에는 車輛을 通치 못함으로 交通이 不便하야 開發의 程度가 他에 比하여 甚히 劣勢에 處하얏슨 즉 本郡의 發展策으로 는 第1로 道路開通에 在하다 請함.
2. 交通上 密接의 關係가 有한 春川 襄陽으로 本郡 及 兩地 間에 人馬의 往來는 頻繁 하나 道路의 不備로 遠이 元山을 迂廻하여 海路에 依하는 境遇가 多한지라 故로



襄陽方面에 二等 道路가 開通되면 但 兩地뿐만안이라 南北 各地方과의 交通도 增進連絡될지니 地方의 幸慶이 此에 及할지며

3. 物資 移出入 關係로 云하건대 本郡으로 移出物品은 主로 襄陽市場에 搬出되고 海産物雜貨 等の 必需品은 殆히 全部를 襄陽郡으로서 移入되는 現況임으로 商業의 取引은 同地를 第一位로함 他日에 本 道路가 開通되어 車를 通함에 至하면 大貨物은 船便에 依하여 襄陽에 揚陸되고 同地로 搬入되는 物貨는 多量이오 具廉價를 得할지니 然則郡民의 利益이 多大함으로 商工業은 一層盛大에 至할지며
4. 京城으로 東海岸에 達하는 二等 道路는 京城 五里 津線이 有하여 既히 一部를 起工케되얏스나 襄陽郡은 通過치 안음으로 曩에 襄陽郡은 奮起하여 本郡으로 直通하는 二等道路 開鑿을 絶叫하매 春川郡民도 此에 共鳴하여 其速成을 期待河는바인데 其中間地인 本郡으로는 此가 眞實로 本郡의 發展上 緊急 切實의 問題라 思하고 雙手를 舉하여 贊意를 表하며 具實現을 期하는 바이다.
5. 五里 津線은 東北方 巨津港에 出한다하나 其 經過地에 는 市場으로도 可見할 處이 無히고 又 同方面과 交通은 從來密邇치 아니한 바이오 若 襄陽線이 開通되면 商圈은 江陵方面에도 擴大케 될지며 延하여 産業振興 地方開發等과 其他利便이 甚大케 될것은 敢히 贅陳을 不要할줄로 信함. 右에 次第로 陳述한바이온 즉 願컨대 郡民의 願望을 採擇하며 本線이 開通되도록 御銓諾를 仰코자 茲에 陳情함.

麟蹄郡 李明榮外 88인

■ 五色嶺道路 開鑿과 楊口郡民의 希望

(오색령 도로 개착과 양구 군민의 희망 1923. 2. 17)

襄陽 直通인 五色嶺 二等道路 開鑿에 對하여는 楊口郡民도 贊同 希望하는바 亦是 此에 對한 陳述書까지 提出 하얏는데 陳述書는 左와 如하더라(春川) / 양양 직통인 오색령 2등 도로 개착에 대하여는 양구군민도 찬동 희망하는 바로 역시 이에 대한 진술서까지 제출하였는데 진술서는 좌와 같더라.

陳述書(진술서)

楊口郡은 本道 中部山間에 僻在하여 交通 不便의 所致로 郡勢不振하여 交運의 程度 他郡에 比하여 甚히 劣함은 郡民이 深히 遺憾으로 思하는 바이다 所聞에 依한 則 京



城으로 本道 東海岸에 達하는 道路開通에 關하여 襄陽及 春川郡民이 共同하여 極力 盡瘁 한다. 하옵는바 此가 本地方 開發上 平素待望에 迎合한 計劃으로 又 本郡民도 多年 宿望을 特達 할바임으로 此에 對한 左記卑見을 陳述하오니 御監察하여 주시기를 望함.

1. 本郡은 四邊 山岳으로써 圍하야 郡內는 大概 道路 不良함으로 車를 通함은 僅히 春川及 華川郡에 達하는 線路뿐으로 本道로는 此가 卽 他日 東海岸까지 開通되야 京城과 連絡할 道內 主要線路인卽 本郡의 發展도 第一 本線에 懸하얏으니 開通의 速成됨을 切望함.
2. 本郡產物로 利出되느것은 穀物 大麻 蜂蜜 等이오 移入品은 雜貨 海產物 등인데 道路不良의 致로 遠히 他郡을 迂廻 함으로 運賃이 亦 多額이 되야 物價는 出貨는 低廉이고 人貨는 昂騰하야 甚히 不利한 狀態에 在한 故로 海岸線이 開通되면 一轉하여 商圈의 擴大並產業의 興隆에 至하야 其 便益이 至大함에 達할지며
3. 京城東海岸線 二等道路로 曩에 京城 五里津線이 決定되얏으나 同線路는 沿道 落漢하고 產物이 稀少하야 到底히 襄陽線과 比較를 不得함.
4. 襄陽方面과는 從來 交通 運輸上 密接의 關係가 有하야 物資의 交換이 最多하고 特히 海物은 唯一의 供給地가 되는지라 故로 同地는 高城, 江陵과는 海陸 共히 交通의 便이 有하고 從하여 本線路가 開通될 時는 兩地方의 物貨 襄陽을 經由하야 移入할 지니 商業取引은 大히 隆盛을 見함에 至하야 眞實로 經濟的 線路를 體現함에 至할터인즉 工費의 多額을 要한다고 할지라도 福利增進에 比하야 亦可라 信함.

楊口郡 安植 外 二十人

貨物亦 襄陽을 經由하야 移入할 지니 商業取引은 大히 隆盛을 見함에 至하야 眞實로 經濟的 線路를 體現함에 至할터인卽 工費의 多額을 要한다고 할지라도 福利增進에 比하야 亦可라 信함.

楊口郡 安植 外 28



- 五色嶺 開通으로 郡民大會, 襄陽郡民의 熱狂的 渴望으로 繼續 進行 (오색령 개통으로 군민대회, 양양군민의 열광적 갈망으로 계속진행 1923. 4. 7)



<그림 9> 1923년 4월 7일 매일신보 기사

五色嶺 道路 開通에 關한 種種의 事實과 情況은 本紙에 累報한바어니와 關係 各郡의 熱誠希望과 該郡民의 熱狂的인 渴望은 有始有終의 決心으로 積極的 目的達成에 努力하는 中에 甚至於 郡民이 全擔 修繕 하겠다는 決心으로 當局에 對하여 但 實地調査와 線路測量을 要求한 結果 今般 本府로 小林 金兩技手와 紫田道技師가 該 線路 實地踏查次로 襄陽郡에 出張하였는데 此를 承聞한 該郡內 各面 有志 八十餘名은 呼訴次會集하여 郡에 入하였으나 調査員 一行은 既히 出發 後인 故로 禾及之嘆으로 各自 散歸하였섯던바 更히 三月 三十一日에는 大대의 郡民大會를 開催하고 本 目的을 達成하기까지 繼續進行할 今後方針에 到하여 徹底的 協議가 有한後 散會하였다더라(春川)

오색령 도로 개통에 관한 각각의 사실과 정황은 본지에서 여러 번 보도한 바 있거니와 관계 각 군의 열성적 희망과 해당 군민의 열광적 갈망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결심으로 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이다. 심지어 군민이 전담하여 수선하겠다는 결심으로 해당 부서에 대하여 단지 현장 조사와 노선 측량을 요구한 결과 이에 본부에서 고바야시(소림)기원과 김씨 기원 2명과 시비다(자전) 도청 기사가 현지 답사차 양양군에 출장하였다. 이런 좋은 소식을 들은 당해 군내 각면 유지 80여 명은 호소차 집회하여 군청에 들어갔으나 조사원 일행은 이미 출발한 후인 까닭에 고개를 숙이고 탄식하며 각자 해산하여 돌아갔다. 다시 3월 31일에는 대대적으로 군민대회를 개최하고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 진행할 금 후 방침에 대하여 철저한 협의가 있는 다음에 산회하였다더라.



■ 五色嶺路 開鑿의 目的 貫徹로 更히 陳情코져 上京

(오색령로 개착의 목적 관철로 갱히(다시) 진정코져 상경 1923. 5. 1)

江原道 襄陽郡 五色嶺은 二等道路에 除外 되어 嶺東 嶺西에 在한 産業消長에 至大 한 關係가 有함으로 襄陽郡民은 五色嶺 二等道路 開鑿期成會를 組織하고 總督府와 江原道廳에 陳情한바 有할뿐아니라 隣接地되는 麟蹄, 楊口, 春川 等 郡에서도 五色嶺 開鑿을 要望으로 去 三月에는 本府로부터 技手²⁶⁾가 出張하여 實地調査 한 바도 有하야 郡民은 此際目的을 貫徹키爲하야 道 評議員 李鍾漢 氏를 上道케하야 道當局과 數日에 亶하야 意見을 交換한바 有한대 意와 如히 進捗치 아니함으로 同 氏는 本府에 陳情키 爲하야 二十八日 當地를 出發하야 京城으로 向하얏더라(春川)

강원도 양양군 오색령이 2등 도로에서 제외되어 영동 영서에 있는 산업의 성쇠(盛衰)에 지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양양군민은 오색령 2등 도로 개착 기성회를 조직하고 총독부와 강원도에 진정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지인 인제, 양구, 춘천 등의 군에서도 오색령 개착을 강력하게 요망하니 지난 3월에는 본부로부터 기원이 출장하여 현지를 조사한 바도 있다. 군민은 이 기회에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강원도 평의원 이종한씨를 도청에 가도록 하여 도의 해당 부서와 수일 동안 극진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나 뜻대로 진척되지 아니하여 이의원은 본부에 진정키 위하여 28일 양양을 출발하여 경성으로 향하였다.

■ 五色嶺에 二等道路를 만들어 달나라고 陳情委員上京

(오색령에 2등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진정위원 상경 1923. 6. 13)

강원도 양양군에서 요구하는 오색령이 이등도로에서 제외되어 그 고을 인민은 기성회를 조직하고 수차 도청과 총독부에 진정한 바 있었으나 아직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이번에 또 군민을 대표하여 이홍영(李鴻榮)씨 외 수명이 입경하였는데 이씨는 말하되 “양양군은 강원도 동해안 중부에 있어 일반산업이 비교적 진보되고 또 보통학교도 4개소에 달하여 일반문화는 날로 향상될 뿐 아니라 소위 영서 일대는 양양의 어염(魚鹽), 마포(麻布), 생우(生牛) 등을 수용하지 못하면 생활이 불가능한 바, 그 중

26) 기수(技手)는 과거 기술직 8급 공무원의 직급을 칭하던 기원(技員)의 옛 표현이다



에 중요한 곳은 오색령이요 또 오색리 약수는 세상에 유명함으로 칠천 명이 모여들고 경치도 설악산이 금강산에 지지 아니할 절경이거늘 이등도로로 편입되지 못하면 양양인의 생활의 문제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고로 총독부에 다시 진정하여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군민 전부가 상경할 예정이라” 하더라.

■ 五色嶺道路 改修 陳情委員 歸鄉

(오색령 도로 개수 진정위원 귀향 1923. 6. 19)

江原道 襄陽郡民 代表 李鴻榮 氏 外 數名은 既報와 如히 五色嶺을 二等道路 改修 問題에 對하여 齋藤總督을 始하여 各 關係局 部長을 訪問하고 陳情한바 有하였는데 모다 同情하여 郡民의 實情을 聽取하였으므로 更히 道知事에게 陳情하여 所期의 目的을 貫徹할 決心으로 陳情員 一行은 十八日 京城을 出發하여 春川으로 向하였더라.

강원도 양양군민 대표 이학영씨 외 수명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오색령을 2등 도로로 고치는 문제에 대하여 사이트 마코토총독을 비롯하여 각 관계국 부장을 방문하고 진정한 바 있는데 모두가 동정하며 군민의 실정을 청취하였으므로 다시 도지사에게 진정하여 소기의 목적을 관철할 결심으로 진정원 일행은 18일 경성을 출발하여 춘천으로 향하였더라.

⇒ 1923. 6. 15일자 동아일보에는 2등 도로 기성회 대표자 이홍영(李鴻榮)과 이석범(李錫範)은 총독과 만나는 자리에서 20만원의 공사비를 양양군민이 부담할 것을 밝혔다.

■ 明年度 豫算에 編入을 企待 襄陽郡民의 渴望하든 五色嶺道路 踏査 道에서 實地로 踏査키를 通達

(명년도 예산에 편입을 기대 양양군민이 갈망하든 오색령도로 답사 도에서 실시로 답사키로 통달 1931. 11. 21)

[襄陽] 襄陽郡民으로 하야금 十有 餘年으로두고 熱望하던 西路 開鑿 問題는 지금으로부터 襄陽麟蹄 兩郡社會에 好 消息을 傳하게 되었다. 本道 當局으로부터 該 直路 踏査의 下命이 있음으로 襄陽郡守 朴在洙 氏는 지난 十一月 八日 清水道技手와 當地

官民有志 四五名을 帶同하고 西路인 烏砧嶺을 越去하여 麟蹄郡 縣里를 經由하고 그곳서 麟蹄郡 庶務主任을 相逢하여 모든 山水와 道路狀況을 聽取하고 同郡廳 所在地까지 踏査하고 該 郡 郡守 金極一氏와 圓滿한 協定을 마친 후 五色嶺 道路 鬱密한 良材良木을 視察하고 同 十四日 歸廳하였다. 郡民一般은 明年度 道豫算中에 編入해 周기를 渴望하는 중이다.

양양군민이 10여 년을 열망하던 서쪽 도로 개착 문제는 지금 양양과 인제 양군 사회에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 강원도에서 오색령 직로 답사의 하명이 있어 양양군수 박재수씨는 지난 11월 8일 시스미(淸水) 도청 기원과 양양군 관민유지 45명을 대동하고 서쪽 영로인 조침령을 넘어 인제군 현리를 경유하여 그곳에서 인제군 서무 주임을 만나 산수와 도로 상황을 청취하고 인제군청 소재지까지 가서 인제군수 김극일씨와 원만한 협정을 마친 후 오색령 도로의 울창하고 백백한 좋은 목재를 시찰하고 14일에 귀청하였다. 군민 모두는 내년도 강원도 예산에 편입해 주기를 갈망하는 중이다.

- 麟襄線 道路 問題로 洞民 當局에 陳情 五色嶺으로 고쳐달라고 800名 洞民 連署로
(인·양선도로 문제로 동민 당국에 진정 오색령으로 고쳐 달라고 800명 동민 연서로, 동아일보 1932. 3. 15)



<그림 10> 1932.3.15기사



강원도 인제 양양 간 도로는 총경비 20만원의 예산으로 벌써 설계해 놓고 아직까 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던바 금년도 인제지방은 대흥작으로 말미암아 수만 이재 민이 아사선상에서 헤매는 현상이므로 군 당국에서는 각 면에 구제회를 조직하고 각 방면으로 맹렬히 활동함은 물론이거니와 궁민(窮民) 구제책으로 인제 양양 간 도로공 사에 착수하기를 도에 신청하여 불원간(不遠間) 착수하게 되었다는데 현재 설계한 것 은 인제읍에서 기린을 거쳐 양양으로 관통하게 되었다 한다.

8백여 명은 연서 날인하여 전기(전에 설계된 기린 노선)의 예산은 불가하니 인제군 북면 원통리를 중심으로 오색령(五色嶺)을 관통케 해달라고 군 당국과 도 당국에 진 정서를 제기하였다.

■ 四個面 聯合으로 五色嶺 道路 修繕 探勝客에 便宜不少

(4개면 연합으로 오색령도로 수선 탐승객에 편의 불소 1938. 12. 6)

【襄陽】五臺山落脈인襄陽 縣西岳 山一帶에는 無藏의森林藥草와 古蹟이잇고 襄陽邑에서西面을經 由하야約四里를入山하면 五色里 가잇서 西便山壁에五色藥水가잇 서 每年春夏期에는 數千의患者 의探勝客이集散하게되나 道路가 不完全하야 車馬通行이不能함으 로此를遺憾으로 生覺하는地方民 等은 今月上旬부터工事를着手할 豫定이라는데 隣面인巽陽、隆觀 兩面에서도 多小夫役의補助가잇 슌模樣이라고한다

【江原道 統制】 軍審議의를근기 議案第一 啤酒製造業의健全發達을 爲하야朝鮮酒의生産又난 關한統制를行할方針에對하

<그림 11> 1938년 12월 6일 매일신보 기사



[襄陽] 五臺山 落脈인 襄陽郡 西岳山 一帶에는 無盡藏의 森林 藥草와 古蹟이 있고 襄陽邑에서 西面을 經由하여 約 四里를 入山하면 五色里가 있어 西便山壁에 五色藥水가 있어서 每年 春夏期에는 數千의 患者와 探勝客이 集散하게되나 道路가 不完全하여 車馬通行이 不能함으로 此를 遺憾으로 生覺하는 地方民 等은 今月 上旬부터 工事を 着手할 豫定이라는데 隣面인 巽陽, 降峴 兩面에서도 多小夫役의 補助가 있을 模樣이라고 한다.

오대산 낙맥인 양양군 서쪽의 설악산 일대는 무진장의 산림과 약초, 고적이 있다. 양양읍에서 서면을 경유하여 약 4리를 입산하면 오색리가 있고 서쪽 편 산 벽에 오색약수가 있어 매년 봄과 여름에 수천의 환자와 탐승객이 방문하게 되나 도로가 불완전하여 차마의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유감으로 생각하던 지방민 등은 금월 상순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라는데 인근 인 손양면, 강현면에서도 다소의 부역 보조가 있을 모양이라고 한다.

2. 해방 이후 오색령(한계령)의 변화

조선시대에는 인마(人馬)만 다니던 오색령이 일제말기에야 우마차가 겨우 갈 수 있는 도로였다. 반면에 백두대간 중 최고 낮은 529m의 진부령(陳富嶺)²⁷⁾이 1938년 『조선도로령』에 의거하여 65호선 국도가 되면서 영북지역의 영동과 영서를 잇는 단선 국도로써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²⁸⁾

가. 국군에 의한 오색령(한계령) 전술도로 공사

6. 25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다가 인제군 북면 한계 삼거리에서 양양군 서면 오색리를 잇는 전술도로(戰術道路)²⁹⁾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육군 제3군단 1102야전 공병단(제7971부대) 제125 공병대대가 1966년 4월 1일에 착공하여 1971년 11월

27) 진부령(陳富嶺)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과 고성군 간성읍의 경계에 있는 고개로, 높이는 해발 529m이다. 국도 제46호선(고성-인천)이 통과한다.

28) 1938. 12. 1일 조선총독부관보 제 3561호 중 총독부고시 956호로 92개 노선을 국도로 지정하였는데 춘천~간성 노선이 65호선 국도가 되었다.

29) 전술도로 : 지상군과 장비 물자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도로. (어휘 군사용어)



30일 2차선 비포장도로를 완공하고 같은 해 12월 27일 개통식을 거행하였다. 당시 “국방뉴스 제311호의 내레이션”을 소개한다.



<그림 12> 오색령 개통식 현장에서 테이프를 커팅하는 모습

■ 설악산 횡단도로 개통

01:57 강원도 인제군과 양양 사이를 잇는 설악산 횡단도로 개통식이 지난 12월 27일 한신 1군 사령관을 비롯해서 육군 제5289부대(3군단)장 그리고 지방기관장 다수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원통 현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한계령을 뚫는 이 설악산 횡단도로는 육군 제7971부대가 지난 66년 4월에 착공해서 연인원 30여만 명과 불도저 등 연 30,000여 대의 중장비를 도입해서 5년 6개월 만인 이날 마침내 완공을 보게 된 것으로 20여만 입방미터의 바윗들을 깨는 난공사였습니다. 노폭 10미터로 영동과 영서를 잇는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원통에서 양양까지 종전보다 두 시간이 단축됐을 뿐만 아니라 내설악의 장수대와 옥녀탕, 대승폭포, 형제봉, 만물상, 오색약수터 등 명승지를 지나게 되므로 관광개발은 물론 지역사회 개발에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날 개통식과 함께 한계령에 세워진 정자에는 박 대통령의 친필로



쓰여진 설악루(雪嶽樓) 현판이 붙여졌는데, 설악루는 이 지방을 지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돼 줄 것입니다.³⁰⁾

공사 완공을 앞두고 1971년 8월 31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해 국도 제44호선 양평 ~ 양양선으로 137.2km가 지정되었다.

영의 정상에서 오색리 방향으로 400m를 내려오면 동해안 쪽으로 갖길에 “공병 125 대대”라고 쓴 비석이 있는데 당시 수고한 공병대의 기념비이다.

공사 당시 외설악 방향에서는 1중대장 ‘정하기’ 대위가, 내설악 방향에서는 2중대장 ‘반웅식’ 대위가 지휘하여 정상을 향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기념비 위치인 이곳에서 만났다고 한다.

그 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開拓(개척)의 完結點(완결점)

개척정신은/ 깊고 험한 설악에 도전하여/ 동서를 잇는데/ 승리하였노라/ 육개 정상
의 대역사는/ 오늘 여기서 완결되나니/ 자연의 신비를 여기에/ 우리의 개척정신을/
영원히 기념하노라/ 최후의 연결점에서/

1971. 11. 30. 제125 야전공병대대 개척자들



<그림 13> 제125 야전공병대대 개척자 기념비와 오색령 전술도로공사 희생자 위령비

30) 설악산 횡단도로 개통 : 한국 근현대 영상아카이브, 국군영화제작소



영을 지나는 탐방객의 휴식공간인 설악루(雪嶽樓)는 한계령 휴게소 위쪽 대청봉을 향하는 길옆에 1971년 개통식에 맞추어 준공하였으며 현판은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휘호라 한다. 그 후 1972년 2월에는 도로를 개설하다 숨진 장병 7위에 대한 위령비(慰靈碑)를 정자 뒤편에 세우고 정자로 오르는 길을 108계단으로 고쳐서 추모의 정을 더 하였다. 위령비(慰靈碑)에 있는 고인의 명단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 본다.

■ 위령비 고인 명단

소위 김춘부, 소위 백상호, 중사 이병훈, 병장 장완익, 병장 최영해, 일병 이윤희,
일병 조경철,

<그림 14> 오색령 정상 전경

오색령(한계령) 정상 920m³¹)에는 검은색 외관으로 크게 눈에 띄지 않는 “한계령휴게소”가 세워져 있는데 통행인 대부분은 차를 멈추고 동해쪽을 바라보며 오색의 장관

31) 원래 오색령 정상의 높이는 1,004m이나 44번국도 공사로 인하여 920m로 낮아졌다.



에 빠지게 된다. 당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인 김수근씨가 설계하였는데 1979년에 시작하여 1982년에 준공하였다. 이 건물은 한국건축가협회에 의해 ‘거대한 자연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 속에 부드럽게 안겨 있는 실용적 건물’로 평가되어 올해의 건축 대상을 수상하였다 한다.

나. 오색령(한계령) 확·포장공사

1979년 9월에는 총 경비 1백65억원의 금액으로 오색령 확·포장공사를 민간 기업이 착공하여 도로 폭을 기존의 6m에서 9m로 넓히고 73.5km를 포장함으로써 서울에서 양양 간 운행 시간을 종전 5시간 30분에서 4시간 30분으로 단축하여 오색은 물론 설악권의 관광 수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3년여의 공사 끝에 1981년 8월 19일 준공식에는 남덕우(南惠祐, 1924년 4월 22일~2013년 5월 18일) 국무총리와 강릉 출신 김주남(金周南, 1931년 4월 8일~2009년 5월 21일) 건설부장관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다. 오색령(한계령) 집중호우 복구공사

2006년 7월 15일과 16일에는 태풍 에위니아(EWINIAR)가 몰고 온 막대한 수증기가 태백산맥에 가로막혀 거대한 호우 구름을 형성했으며 2시간 동안 시간당 최대 50~100mm에 달하는 게릴라성 폭우가 되어 강원권과 중부권을 강타했다. 호우 피해가 집중된 설악산 남부 일대인 원통~한계령~양양으로 이어지는 44번 국도의 한계리와 오색리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

특히 한계령을 관통하는 44번 국도는 곳곳에 도로와 다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엇가락처럼 휘어진 가드레일이 수백 미터로 이어졌으며 100톤이 넘는 바위들이 망가진 도로 위에 내려앉았다. 동서에 걸친 한계령길 25km 중 100여 곳 이상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도로가 유실되는 큰 피해를 남겼다.

그 후 총 1,287억원을 투입한 결과 유실 도로 76곳을 복원했으며 산사태와 집중호우로 붕괴된 비탈면 3,145개소와 교량 35개소, 배수관 130개, 암거 56개 등을 설치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2008년 1월 8일 오전 11시 한계령 휴게소에서 ‘수해복구 준공기념식’을 가졌다.



IV. 양양 오색령 지명복원

조선 중기를 전후하여 소동라령(所冬羅嶺)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자, 오색령은 새로 개척한 영로로 분명히 소동라령과는 별개의 지명이다. 여지도(輿地圖, 1736~1767) 등에는 오색령과 소동라령은 전혀 다른 위치에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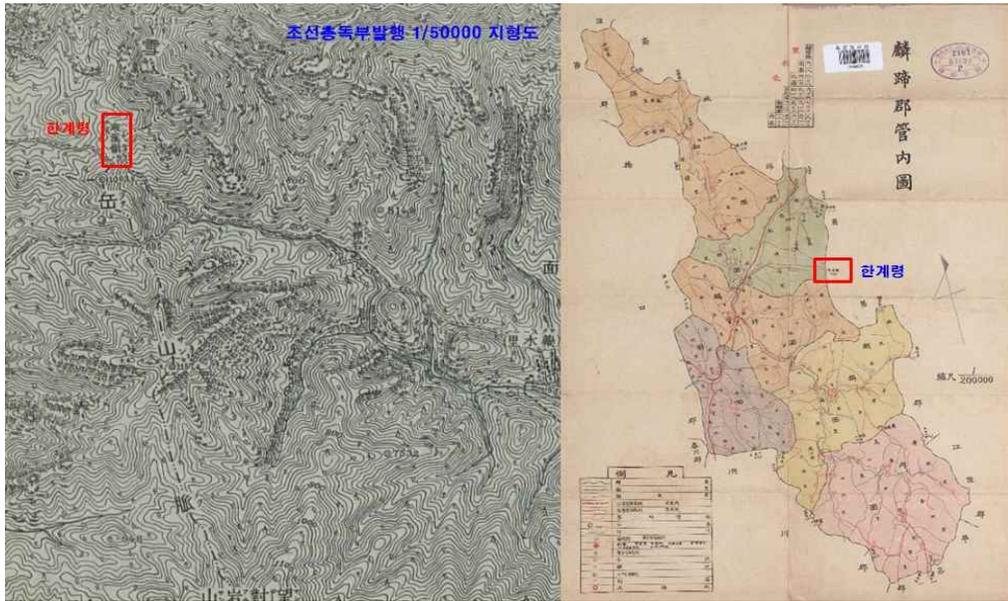


<그림 15> 고대로(古大路)가 표기된 오색령과 한계령이 표기되어있는 「동여도」

북쪽의 오색령은 설악산의 주봉에 가장 가까이 있으며 소동라령은 오히려 구룡령에 인접하고 있어 두 영(嶺)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설악산의 주봉에 근접한 오색령의 위치로 볼 때 지도상의 오색령은 현재의 한계령임이 분명하다.

반면 한계령이란 명칭이 동여도에 표기되었다가 대동여지도에서는 삭제되었는데 동여도(東輿圖) 상에 표기된 한계령로는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양양군 소천면(所川面, 지금은 속초시) 지역이다.

오색령에 대해 조선 시대에는 확고한 문헌상 출처가 확보되어 재론의 여지가 없었으나, 1915년경 일제가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만든 1/50,000의 지도에 오색령 대신 한계령을 오기(誤記)한 것을 광복 이후에도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림 16>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와 인제군세일반 관내도

일제강점기 동안 발행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에는 양양군 주관으로 오색령 도로를 2등 도로로 만들기 위해 영서 4개 군(춘천, 홍천, 양구, 인제)의 협조에 강원도청에 군(郡)별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영동의 강릉, 삼척, 울진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강원도로부터 도로 개착 승낙을 받기 위하여 무진 애를 썼지만 결국 2등 도로로의 승격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내의 7개 군이 양양을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시 오색령이 2등 도로가 되어 영이 열리면 인접한 군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을 얻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당시 홍천군의 진정서에는 “본 지방은 대 시장인 원주의 중계지가 되어 양쪽의 물자는 홍천을 경유케 되는데 속된 말로 홍천은 양양 물화의 전시장이라 한다. (중략) 일선(一線)은 오색령을 넘어야 인제군을 통과하는 바, 지금은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는 까닭이지만 만일 차량이 통과된다면 통상(通商)이 활기차게 번창할 것이 극명하다.”³²⁾고 오색령 개통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이 당시 모든 도민은 “오색령”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인제군민 800명도 진정서에 오

32) 五色嶺道路 開鑿과 洪川郡民의 希望(1923. 2. 8.) 陳述書 3. 本郡과 襄陽郡과는 古來 密接의 關係가 有한바 山地인 本郡과 沿海인 襄陽과는 物資交換 有無相通은 自然의 勢라 云하겟스나 本地方의 大市場인 原州와의 中繼地가 되야 兩方面의 物資는 當地를 經由케됨으로 俗語에 洪川은 襄陽의 出品場이라 云함에 其關係는 可以 推知할바이라 함. 兩地間에는 道路가 二線이 有한바 一線은 五色嶺을 越하야 麟蹄郡을 通過하는바 何時든지 車輛이 不通하는 故로 一朝車道의 開通이 될 바에는 通商 殷賑을 極할바이라함.



색령을 2등 도로로 개착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 한계령을 개착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 줄도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59년에 국무원에서 전국의 지명을 조사하였다. 당시 인제군 북면에서 보고된 조사 서식을 보면 지도상에 기재된 지명, 경·위도, 좌표, 지명 유래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제군에서는 지도상에 한계령이 표기되어 있었기에 보고 할 수 있었으나 양양군 오색령은 지도상에 누락이 되어 있어 보고할 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군 북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씨가 보고한 한계령의 지명유래를 보면 “영동과 통하는 오색이영의 낮은 영으로써 한계 지역에 있다 하여 한계령이라고 하나 오색이영 이라고도 함.”라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오색령은 높은 영이고 한계령은 인제군의 한계리 지역에 있는 낮은 영이라고 인제군 스스로가 자인(自認)한 것으로 이것이 팩트(Fact)다.



<그림 17> 오색령 삭도 조감도

이상을 종합할 때 소동라령과 오색령은 별개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과 일제강점기에 오색령 명칭이 한계령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지명 옛 문화를 간직한 인문학적 유산임을 감안하여 역사적으로 고증된 자료를 토대로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아서 후손들에 물려주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



44호선 국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국도 노선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오색령은 한계령이 공식 명칭이 되면서 모든 교통 표지판이 한계령으로 표기되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남설악을 중심으로 양양군민의 41년 숙원인 “오색케이블카”가 2026년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가면 “오색”이란 지명과 함께 “오색령”도 세상에 널리 알려져 옛 영광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V. 맺는말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한계령은 양양의 오색령이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색령(五色嶺)이 우리 지역의 고유한 지명이라는 당위성을 내 새워 복원해야 한다고 강력한 주장을 피력(披瀝)해왔다.

지난 2010년에 양양군지(襄陽郡誌)를 발간하기 위해 군지발간위원회에서 각종 영로(嶺路)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제가 조선 침탈의 목적으로 작전지도를 제작할 때 오색령을 한계령으로 뒤바꿔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영(嶺)의 기능은 귀향보다는 상경(上京)하는 데에 더욱 큰 의미를 두었다. 따라서 당시의 인제현과 양양부의 관점에서 볼 때, 인제현에 속한 한계리는 귀향의 의미이고, 양양부에 속한 오색리는 상경의 의미로 영의 기능과 관련된 상경의 출발지는 오색리라고 할 수 있다고 오색령 관련 심포지엄 때 강릉원주대 김무림 교수가 밝혔다.

오색령이 한계령으로 뒤바뀐 것은 일제의 잘못으로 인제군의 의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알지만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이미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한계령이다’ ‘오색령이다’ 티격태격 자치단체 간에 갈등으로 남아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조속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오색령 도로가 3등 도로로 발표가 되자 2등 도로로 승급하여 개착하기 위한 양양군의 노력을 보았다.

당시 영서의 4개 군(춘천, 홍천, 양구, 인제)에서도 오색령 도로의 개착이 자기 군의 물산(物産) 이동에 크게 도움이 되며 특히 동해안의 싱싱한 해산물 유입을 위하여 강원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끝내 2등 도로로의 승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32년 3월 15일 동아일보 기사로 인제군 북면의 800여 주민이 연명으로 오색령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인제군과 강원도에 진정서를 냈다는 사실도 이미 밝혔다.

오색령이 제자리를 찾기를 위해 지난 2010년에 양양군 주관으로 오색령 관련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는 양양문화원 관계자와 국토정보지리원을 방문하여 자료수집과 한계령 지명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한 바 있으며 지난 2012년에는 사무국장과 향토사연구원들이 옛 소동라령 도로를 현지 답사하여, 조선 성종 때 역로(驛路)가 폐쇄되어 미시령으로 옮겨 간 후 600여 년이 되어 감에도, 영로에는 당시에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로의 형체와 영(嶺) 정상에는 인위적으로 쌓은 이정표인 돌무지가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소동라령의 확실한 위치가 지금의 북암령과 일치함을 발표하였다. 이때 오색역은 원암역으로 이전하였음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국무원에서 전국의 지명조사를 할 때 인제군 북면에서 보고된 한계령은 “영동과 통하는 오색이영의 낮은 영으로써 한계 지역에 있다 하여 한계령이라고 하였다”는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영인 오색령으로는 복원되지 않았다.

그 후부터는 인제군은 한계령 유래를 “한계산에서 연유되었다고도 하고, 소동라령 [바드랏재]이 자연스럽게 한계령으로 되었다”는 근거도 없는 이론들을 사실인 양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런 출처도 밝히지 못하는 역사적 태도에 의해 인터넷에 한계령이 소동라령처럼 비춰지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소동라령은 지금의 북암령(北庵嶺)으로 한계령에서 남쪽 방향으로 1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소동라령은 인제현(인제읍)으로 향하는 영이 아니고 춘천부 기린현(기린면 진동리)으로 향하는 영이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리고 한국고전번역원법(2007년 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고전번역원』이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편에서 ‘소동라령(所等羅嶺)’을 ‘바드라재’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소동라령(현 북암령)이 바드라재라는 것이지 한계령이 바드라재로 번역된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제2장 필여령(弼如嶺)



필여령 입구





I. 머리말

필여령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를 잇는 영로(嶺路)이다. 양양군 서면 오색리 44번 국도 오색령 정상 근처인 필레령 입구에서 접속하는 왕복 2차로이다.

필여령(彌如嶺) 북쪽에는 소솔령(所率嶺)이 있었는데 소솔령은 오색령(五色嶺)의 옛 이름으로 지금은 한계령(寒溪嶺)이라 한다.

오색령과 필여령 정상은 불과 1km 거리로 44번 국도를 이용한 상경(上京) 시에는 반드시 필여령 입구를 지나야 하는 단일로(單一路)로 고 문집이나 지도에서 오색령을 중심으로 필여령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어 오색령이 분명한 위치를 접해야 필여령의 위치도 분명히 밝힐 수 있었기 때문에 인용하는 문헌의 중첩을 피할 수 없었다.

다만, 고지도에서 오색령 남쪽으로 거의 같은 위선(緯線)에 서쪽으로는 한계산(寒溪山)이 표기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필여령 대신 연수파(連水坡)가 표기된 지도가 있어 확인한 결과 연수파(連水波)는 박달령(朴達嶺) 즉 단목령(檀木嶺)과 같은 위치임을 밝혀 둔다.

옛날에 지도를 만들 때는 방격법(方格法)을 활용했는데 이는 모눈종이와 같은 격자망에 사물은 채워 넣는 것으로 17~19세기에 청구도, 동여도, 대동여지도 등 많은 지도에 활용되었다. 방격법의 모순을 보완하고자 평환법(平圓法)도 사용하였는데 먼저 12방위를 표기한 후 10리 간격으로 동심원을 그린 후 중앙부터 지형지물을 배치하고 중심으로부터 모두가 반지름 거리로 정확성을 기하였다. 특히 조선 영조 때 학자 정상기(鄭尙驥)의 백리척(百里尺) 도입은 정밀도를 높였는데 100리를 1척(尺)으로 축척하여 표기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고지도는 오차가 커서 거리 개념은 현재의 축척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다만, 영(嶺)의 순서라든지 당시 주변의 다른 지명과 환경을 비교하고, 다른 지도와 고문서의 기록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면서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양양부(襄陽府)에서 오색령의 거리에 대해 50리~70리까지 다양한 기록이 전하는데 지금의 도로를 실측하니 약 27km이다. 필여령까지는 26km이니 정확히 65리이다. 오색령을 차로(車路)로 만드느라 늘어난 거리를 감안(勘案)한다면 당시 거리는 약 50리



(20km)에서 55리(22km) 거리가 적당할 것이다.

당시 오색령은 소동라영(所冬羅嶺)이 폐쇄되어 미시파령(彌時坡嶺)으로 옮겨간 이후 한양(漢陽) 500리로 향하는 비공식 영로(嶺路)로 사무로 가는 관원이나 양반들이 행차하는 길로 사용되었고 필여령은 보부상(裸負商)들이 소금과 어물을 지고 넘던 길로 그 성격이 사뭇 달랐다.

오색령로 양양 방향의 마지막 마을인 오색2리는 지금의 한계령 휴게소에서 9km나 떨어져 있다. 그러나 필여령의 인제 방면은 영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필레약수 주변에 음식점과 온천, 민가가 있다. 또한 영을 내려가는 내내 마을과 민가를 만날 수 있으며 마의태자 전설부터 피난지 이야기 등 사람 사는 이야기가 전한다.

필여령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관련 고문서가 대부분 관내의 모든 영을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어 영(嶺)별로 글을 쓰다 보니 중복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으며 지형상 인제군의 자료도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II. 필여령(彌如嶺)에 관한 고찰(考察)

1. 고문헌 속 필여령

고문헌 중에 필여령(彌如嶺)에 대하여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서인 『여지도서(輿地圖書)』와 양양부읍지(襄陽府邑誌)는 거의 동시대인 18세기 중반의 기록으로 내용도 비슷하다.

이중 여지도서가 좀 더 세밀하여 “형제현(兄弟峴)” 고개를 거쳐야 필여령과 오색령에 이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문서에 대부분은 필여령(彌如嶺)으로 나오지만 『관동지(關東誌 1829~1831)』, 「청구도(靑邱圖 1834)」, 『대동지지(大東地志 1866)』, 「동여도 [東輿圖 19세기 철종(哲宗) 연간] 」, 「청구요람(靑邱要覽1895)」 등에는 필노령(彌奴嶺)으로 되어있다.

또한 1834년도 김정호가 제작한 청구도를 보면 귀둔까지는 인제현 관할이었으나, 기린면 진동리는 당시 춘천부 관할 기린현(狔麟縣)에 속해 있었고, 구룡령 너머 홍천(洪川)과 평창(平昌)의 일부 지역은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에 속해 있었기 때문



에 필여령은 인제계(獐蹄界)로 나타난다. 문헌을 종합해보면 필여령은 인제와의 경계로 오색령에서 뻗어 나와 남쪽으로 이어졌으며 오색령 바로 다음으로 위치한 영로(嶺路)이다.



<그림 1> 「조선팔도지도」의 필여령(弼如嶺)

가. 여지도서(輿地圖書)

1757년~1765년에 발간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양양 관애(關陔) 편에는 오색령·필여령·소동라령·조침령·구룡령·형제현·양한치 등 일곱 개의 영이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 책에는 ‘오색령은 양양부 서쪽 50리에 있으며 설악 남쪽 가지에 접하고 인제와 경계를 이룬다. 필여령은 부 서쪽 40리 정도에 있으며 오색령 남쪽 가지와 접하고 춘천부 기린과 경계이다. 소동라령은 부서쪽 60리 정도에 있으며 필여령 남쪽 가지에 접해 있고 기린계로 서울로 통하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조침령은 부 서쪽 45리 정도에 있으며 소동라령 남쪽 가지에 접하고 기린계이다. 구룡령은 부 서쪽 70리 정도에 있고 조침령 남쪽 가지에 접하고 있으며 강릉부 금천면



제1편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서쪽 영로(嶺路)

과 경계를 이룬다. 형제 고개는 부 서쪽 40리 정도에서 오색령 길로 향할 때 있으며 두 고개가 마주하는 언덕으로 서로 닮았다 하여 이름하였다. 양한치 고개는 부 서쪽 20리에 있으며 구룡령을 향하는 길이다³³⁾ 라고 기록되어 있다.

▶ “필여령을 춘천부 기린과 경계”라고 한 것은 단목령과의 혼돈(混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제와 경계라야 맞는 것이다.



<그림 2> 형제현 전경

■ 형제현(兄弟峴)

44번 국도의 온정2교 뒤편에 휴식공간에서 남쪽으로 보이는 두 봉우리로 첫 번째 봉우리는 만경대가 있는 봉우리고 또 하나는 용소폭포 탐방지원센터 동남쪽 봉우리로 서로 마주하고있다. 과거에도 두 봉우리를 넘어 다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위의 기록과 같이 오색령으로 향할 때 있는 봉(峰)으로 두 봉의 사이에 길이 있어서 이 길로 다녔을 것으로 사료된다.

33) 『여지도서』 江原道 襄陽 / 關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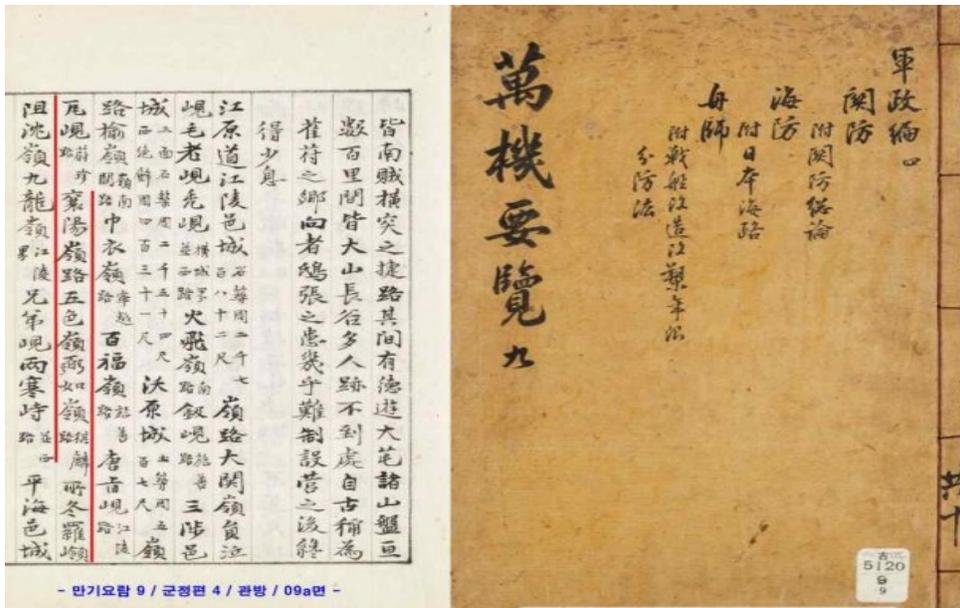
五色嶺 在府西五十里卽是雪嶽南枝接麟蹄界, 弼如嶺 在府西四十里卽五色嶺南枝接春川 猓麟界 所冬羅嶺 在府西六十里卽弼如嶺南枝接猓麟界舊有路通京中今廢 阻沈嶺 在府西四十五里卽所冬羅南枝接猓麟界 九龍嶺 在府西七十里卽阻沈南枝接江陵 金川面界 兄弟峴 在府西四十里向五色嶺路兩峴對峙相似故名 兩寒峙 在府西二十里向九龍嶺路



나. 양양부읍지(襄陽府邑誌)

1759년 『양양부읍지』 관애조(關陔條)에는 오색령, 필여령, 조침령, 구룡령 등 4개의 영이 차례로 나온다.

‘오색령은 양양부 서쪽 50리에 있으며 설악의 남쪽 가지에 접하고 인제와 경계를 이룬다. 필여령은 부 서쪽 45리로 오색령 남쪽 가지에 접하고 춘천부 인제현 경계이다. 조침령은 부 서쪽 45리이며 필여령 남쪽 가지에 접하며 인제 경계이다. 구룡령은 부 서쪽 70리로 조침령 남쪽 가지로 강릉부 금천면과 경계이다.’³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림 3> 『만기요람』 9 양양영로 (자료:규장각한국학연구원)

다. 만기요람(萬機要覽)

1808년 『만기요람』 군정편 4(軍政編 四) 관방(關防) 강원도에는 ‘양양부 영로는 오색령·필여령, 기린(猓麟)로는 소동라령·조침령, 구룡령은 강릉과의 경계이다. 형제현(兄弟峴)·양한치(兩寒峙)는 모두 서쪽 통로다.’³⁵⁾라 기록되어 있다.

34) 양양부읍지(襄陽府邑誌) 關陔 五色嶺 在府西五十里卽是雪嶽南枝接麟蹄界 弼如嶺 在府西四十五里卽五色嶺南枝接春川麟蹄界 阻沈嶺 在府西四十五里卽弼如嶺南枝接麟蹄界 九龍嶺 在府西七十里卽阻沈嶺南枝接江陵金川界面



라. 관동지(關東誌) 제13권

1829~1831년 사이에 편찬된 『관동지』에는 ‘영로 연수파령은 양양부 서북쪽 75 리에 있으며 오색령·필노령(弼奴嶺)·박달령은 모두 서쪽 50리에 있는 인제계(麟蹄界)이다.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서쪽 60리에 있는 몹시 험한 영로로 옛날에 경성으로 통하던 대로로 인제계(麟蹄界)이다. 구룡령(九龍嶺)은 서남쪽 65리에 있으며 강릉계(江陵界)이다.’³⁶⁾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부터 필여령(弼如嶺)을 필노령(弼奴嶺)으로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요람(靑邱要覽)

1834년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청구도」를 1895년에 모사(模寫)한 이본(異本)으로 오색령, 한계산과 고성(古城:한계산성), 필노령(弼奴嶺), 형제현, 정족산(鼎足山)과 이어진 연수령(連水嶺), 박달산(朴達山)의 기록이 지도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4> 「청구요람」의 필노령(弼奴嶺)

35) 만기요람(萬機要覽)襄陽嶺路 五色嶺 弼如嶺 猓麟路 所冬羅嶺 阻沈嶺 九龍嶺 江陵界 兄弟峴 兩寒峙 并西路.
36) 관동지『關東誌』제13권 嶺路連水坡嶺西北七十五里五色嶺弼奴嶺朴達嶺俱西五十里麟蹄界所冬羅嶺西六十里絶險舊有通京大路麟蹄界九龍嶺西南六十五里江陵界.



바.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861년 고산자 김정호(金正浩)가 제작한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의 대 축적 지도로 자신이 제작한 「청구도」를 증보 수정한 지도첩이다. 양양의 영(嶺)으로는 오색령·필여령(彌如嶺)·구룡령 세 개의 영(嶺)이 북에서 남으로 차례로 열거되어 있다.

특히, 미시령(彌矢嶺)을 연수과령(連水坡峯)으로 표기하였는데 연수과령(連水坡峯)을 동방문화대학원 권상호 교수는 “물길이 이어지는 고개”로 풀이하였다.

사. 양양읍지도(襄陽邑地圖)

「양양읍지도」에는 북쪽에서부터 오색령·필여령·조침령·구룡령 등의 순으로 네 개의 영(嶺)이 기록되어 있다.

아. 증보문헌비고 권28(增補文獻備考 卷二十八)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 양양 산천편(襄陽山川編)에는 ‘오색령은 양양부 서쪽 50리에 있는데 높아서 모든 산을 볼 수 있어 기록한다. 영로인 오색령은 현재 양양영로(襄陽嶺路)임을 알 수 있다. 필여령과 함께 서쪽 도로는 소동라령과 조침령이다. 구룡령은 강릉으로 가는 도로이다. 형제현과 양한치도 함께 서쪽 도로이다. 인제 영로(麟蹄嶺路)는 미시령과 흘이령, 탄둔령, 두모치, 건리치이고 오색령은 지금의 양양 영로로 서과령(지금의 미시령)과 함께 동로이다. 가노치는 남로, 진보령은 북로이다.’³⁷⁾로 기록되어 있다.

37) 증보문헌비고 권28 襄陽 五色嶺在西五十里右諸山見總說

嶺路五色嶺見襄陽嶺路 彌如嶺並西路 所冬羅嶺 阻沈嶺 九龍嶺江陵路 兄弟峴 兩寒峙並西路 麟蹄嶺路 味施嶺 屹伊嶺 炭屯嶺 頭毛峙 建里峙 五色嶺見襄陽嶺路 西坡嶺並東路 加奴峙南路 眞寶嶺北路



2. 고문서에 나타나는 양양 지역 영(嶺)의 순서(順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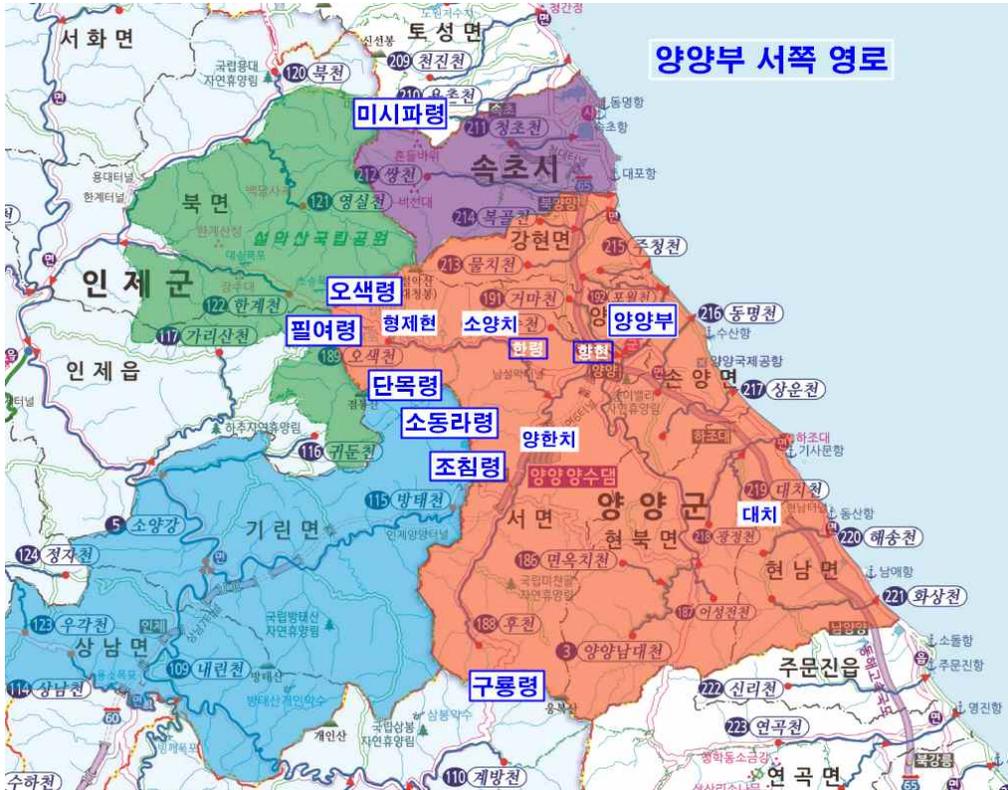
〈표 1〉 고지도와 문서에 표기된 지도 명칭과 순서

제작 연도	지도명	한계령 (寒溪嶺)	오색령 (五色嶺)	필여령 (弼如嶺)	연수파, 단목령 (連水波, 檀木嶺)	소동라령 (所冬羅嶺)	조침령 (阻沈嶺)	구룡령 (九龍嶺)
1724-1776	동국지도	한계산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산
1724-1800	팔도지도	한계산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750 년초	해동지도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757-1765	여지도서		오색령	필여령		소동라령	조침령	구룡령
1759	양양부읍지		오색령	필여령			조침령	구룡령
1767-1795	여지도		오색령		연수령	소동라령		구룡령
1776 이후	동국팔역도	한계산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776-1800	좌해지도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778-1838	조선팔역도	한계산	오색령		연수파의 위치가 가장 잘 표현 됨	소동라령		
1737-1776	광여도		오색령		박달령		조침령	구룡령
1808	만기요람		오색령	필여령		소동라령	조침령	구룡령
1829-1831	관동지		오색령	필노령	연수파령을 부 북 서쪽 75리 표기	소동라령		구룡령
19세기초	아동여지도	한계산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1834	청구도		오색령	필노령	연수령	소동라령		
1856-1861	동여도	한계령	오색령	필노령				구룡령
1861	대동여지도	한계산	오색령	필노령	미시령 위치에 연수파령을 표기			구룡령
1861-1866	대동지지		오색령	필노령	박달령, 연수파령 동시 표기 오류	소동라령		구룡령
1871	관동읍지		오색령	필여령		소동라령	조침령	
1872	양양읍지도		오색령	필여령			조침령	구룡령
1903-1908	증보문헌비고		오색령	필여령		소동라령	조침령	구룡령
조선후기	지승		오색령		박달령		조침령	구룡령

※ “영로(嶺路) 연수파는 지도 표기의 순서로 박달령(朴達嶺)으로 박달은 단목(檀木)이므로 단목령(檀木嶺)이 된다. 『관동지』, 『대동여지도』, 『대동지지』의 연수파령은 미시령임을 밝힌다.



3. 현대지도에 표기한 영(嶺)의 순서



4. 필여령 접근로의 변화(상행선 기준)

1917년(대정6)에 총독부에서 발행한 지도를 보면 양양군청에서 필례(必禮)령과 오색령까지 접근하는 길이 현재와는 사뭇 다르다. 특히 1915년(대정4)에 측도(測圖)하고 1917년에 제작을 완료하였으니 1915년 현재를 표기한 지도를 보면 아래와 같다.

- 대정4년측도 동6년제판(大正四年測圖同六年製版) 조선총독부 지도로 오색령을 오르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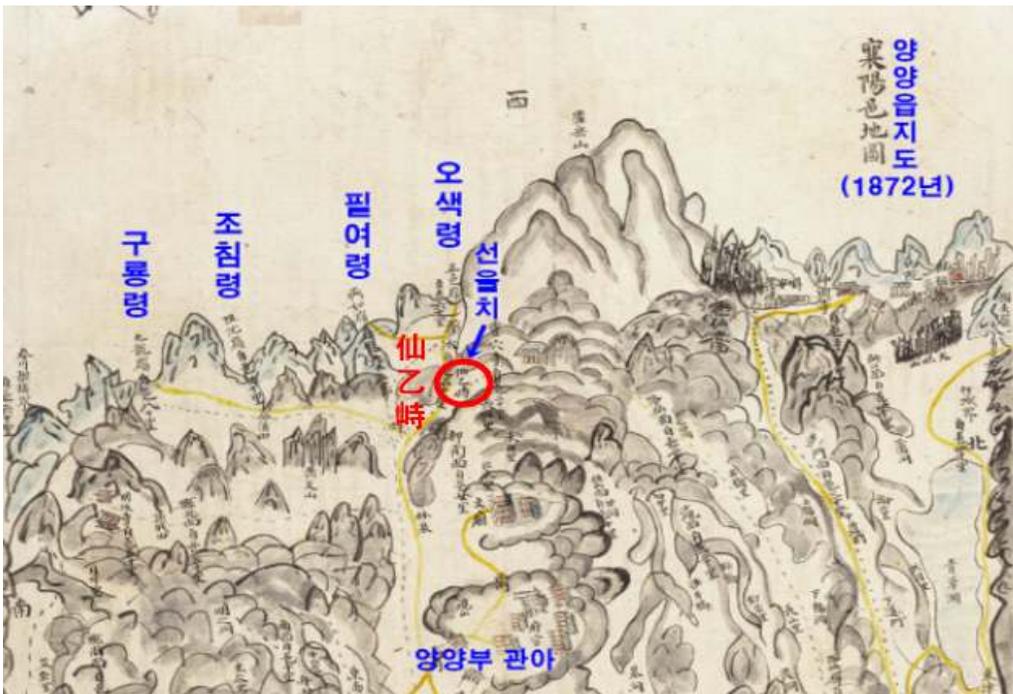
양양군청(郡廳) ⇒ 서문리(西門里) ⇒ 임천리(林泉里) ⇒ 향현(香峴 : 상평고개) ⇒ 상촌리(上村里 : 상평리) ⇒ 장승리(長承里) ⇒ 흑간리(黑澗里 : 양양철광) ⇒ 소량치



제1편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서쪽 영로(嶺路)

(所良峙 : 서늘재) ⇒ 가라피리(加羅皮里) ⇒ 한령(寒嶺 : 빨딱고개) ⇒ 백암리(白岩里 : 현 오색1리) ⇒ 마산리(馬山里 : 현 오색1리) ⇒ 오색리(오색1리 관터) ⇒ 약수리(藥水里 : 현 오색2리) ⇒ 형제현(兄弟峴 : 만경대와 용소폭포 탐방지원센터 사이에 위치) ⇒ 금표암(禁標岩) ⇒ 44번 국도 흘림골 입구 ⇒ 필례(必禮) ⇒ 오색령(五色嶺 : 현 한계령)

- ▶ 『옥동집(玉洞集)』에 향현(香峴), 한령(寒嶺), 형제령(兄弟嶺)이 기록.³⁸⁾
 - 향현(香峴)은 상평고개(上平峴)를 말함. 향재라고도 부름, 한령(寒嶺)은 빨딱 고개, 형제현(兄弟峴 : 상기 참조).
 - 『옥동집(玉洞集)』 : 문익성 [文益成, 1526(중종 21) ~ 1584(선조 17)] 지음, 1873년 간행



<그림 6> 「양양읍지도」에는 소량치(所良峙)를 선을치(仙乙峙)로 표현

38) 玉洞先生文集卷之一 / 詩○雜著 : 乙亥. 余守襄陽. 與崔蹈景裴景孚及二子勵, 劼將遊寒溪. 自峴山城踰香峴. 歇馬于寒嶺. 東臨滄海. 雲濤茫茫. 西瞻雪岳 (중략). 翌日. 還出石門. 轉而北行七八里許. 踰兄弟嶺.



- ▶ 『관동읍지(關東邑誌)』 양양부(襄陽府) 도로(道路)편에 서늘재 기록
 - 관문에서 서쪽으로 량치(涼峙 : 서늘재)³⁹⁾까지 20리, 양치에서 인제 방향 오색령까지 20리이다. 관문에서 서남쪽으로 서림리까지 30리, 서림에서 구룡령까지 40리, 구룡령에서 강릉 인암계까지 30리이다.⁴⁰⁾

- ▶ 『여도비지(輿圖備志)』 권15, 양양도호부 영로(嶺路)조에 관아에서 서쪽으로 30리에 소량치(所良峙)가 있으며 오색령으로 통하는 도로이다.⁴¹⁾
 - ⇒ 량치(涼峙)는 한자 그대로 “서늘재”이나 소량치(所良峙)는 존재를 나타내는 허사(虛辭) 소(所)를 빼면, 량치(良峙)로 발음이 같고 방향도 같지만 거리에서 10리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당시의 거리 개념에 비추면 둘다 “서늘재”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림 7> 양양 서면 가라피 소량치[所良峙:서늘재] 입구

39) 1872년 「양양읍지도」에서는 소량치(所良峙 : 서늘재)를 선을치(仙乙峙)로 표현하였다.

40) 官門西至涼峙二十里 自涼峙至麟蹄五色嶺二十里 自官門西南至西林三十里 自西林至九龍嶺四十里 自九龍嶺至江陵印巖界三十里

41) 所良峙。治西三十里。通五色嶺。



- 오색령(한계령)에서 인제 방면의 옥녀탕 위쪽에는 신라말 축성한 '한계고성(寒溪古城)터'가 있는데 몽골 침입 때 원나라에 빼앗겼다가 다시 탈환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호환(虎患 : 호랑이에게 당하는 피해)이 두렵고 산적이 들끓어 해가지면 이 영을 넘지 말라고 금표를 새겨 두었는데 이를 새긴 바위를 금표암(禁標岩)이라 한다. 지금은 금표암을 찾을 수 없으나 44번 국도 용소폭포탐방지원센터와 흘림골탐방지원센터 사이에 금표교(禁標橋)가 있어 위치를 짐작할 뿐이다.



<그림 8> 한계산성 위치 그림



Ⅲ. 필여령(彌如嶺)의 유래와 변화

1. 필여령의 유래와 지명의 변화

필여령(彌如嶺)은 본래 필례령이었으나 '례'를 이두(吏讀)로 문자화(文字化)하는 과정에서 '여(如)' 또는 '노(奴)'로 표기한 것이라고 한다.

필노령(彌奴嶺)은 노력을 아끼는 고갯길로 “지름길”이란 뜻이 있는데 오색령에 비하면 필여령이 지름길이었던 셈이다. (옛날에는 奴를 努의 의미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다른 설(說)로는 옛날부터 필례약수 위쪽의 넓은 터에 큰 마을이 있었는데 모두 난리(亂離)를 피해 모여든 사람이라는 뜻으로 피래(避來 : 난을 피해서 오다)라 부른 것이 필예(必曳 : 모두에 이끌리다)로 변화하였으며 결국 은둔(隱遁)의 계곡(溪谷)이 되었다 한다.

1916년 행정구역 통합으로 귀둔리(貴屯里)로 바뀌기 전까지도 마을 이름은 피래(避來)였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필례로 변화했는데 1917년에 제작된 지도에도 필례(必禮)로 등재되었고 지금은 “필례령(必曳嶺)”이 공식 지명이 되어 약수도 “필례약수(必曳藥水)”로 표기한다. 그러나 지방민들은 여전히 “피례” 또는 “피래 고개”라고 부른다.

양양군 서면 오색리 필례령 입구 삼거리에서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까지 10.7km의 2차선 도로가 필례로(必曳路)로이다. 필례로는 44번 국도가 막힐 때 우회도로로 이용되기도 한다.

2. 마의태자(麻衣太子)와 피래(避來)

필례 계곡을 중심으로 내린천로 방향을 따라가면 대부분 지명이 군사용어 같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난리(亂離)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피래(避來)” “필예(必曳)”는 은둔(隱遁)의 계곡(溪谷)에서 재기를 꿈꾸는 범상치 않은 곳임을 의미한다. 한계산성(寒溪山城), 군대의 진을 뜻하는 원진개(遠鎭介), 갑둔리(甲屯里), 귀둔리(貴屯



里), 식량과 관련이 있는 군량밭(軍糧田), 소와 말을 기르던 쇠물안골(牛馬洞), 망을 보는 곳인 망대암(望臺岩)이 그것이다. 이런 이름들은 항몽투쟁(抗蒙鬪爭),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의병들과 관계있다는 기록도 간혹 있지만, 구전되고 있는 마의태자의 전설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 신라의 멸망 후 마의태자가 된 사연과 이주(移住)

『삼국사기』 권 제12 신라본기 제12를 보면 경순왕 9년(935년 10월)에 “경순왕이 사방토지가 모두 다른 나라의 것이 되고 국력은 약세로 고립되니 스스로 안정시키기 불가능하여 아랫사람들과 더불어 토지를 들고 고려 태조에게 항복할까 하는데 신하들의 의견은 가한지? 불가한지? 를 논의하라 하니” “나라의 존망은 반드시 천명(天命)에 달린 것이오니. 오직 충성스러운 신하, 의로운 선비와 합심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스스로 지키다가 힘이 다한 후에 그만두어야지, 어찌 천년 사직(社稷)을 하루아침에 가며이 남에게 주겠느냐고 태자가 왕에게 울며 하직하고 바로 개골산(皆骨山)에 들어가 바위를 집으로 삼고, 삼베옷을 입고 풀을 먹으며 일생을 마치니” 마의태자(麻衣太子)라 부르게 되었다⁴²⁾ 한다.

그러나 일설은 경순 대왕께 태자가 크게 반발하자 신하들도 삼국사기 원문에서처럼 전쟁도 없이 나라를 바치는 것에 대하여 “혹은 반대하고 혹은 찬성(或以爲可, 或以爲不可)”하였으니 반대파는 태자가 움직일 때 한 무리에 소속되어 함께 하였다고 한다.

마의태자는 신라를 출발하여 충주와 원주를 거쳐 양평에서 홍천을 지나 인제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사찰과 인연이 확인된다. 가까운 곳 위주로 살펴본다면 홍천군 동면에는 왕이 지나갔다 하여 지왕동(至王洞)과 왕터인 왕지(王址)가 있으며 인근에는 사찰이 있었다 한다.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金富里)에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마의태자 김일(金鎰)의 위패를 모신 대왕각(大王閣)이 있는데 마을에서 일 년에 두 번 재(齋)를 모신다고 한다.

42) 『三國史記』卷第十二 新羅本紀 第十二

九年, 冬十月, 王以四方土地盡爲他有, 國弱勢孤, 不能自安, 乃與羣下謀, 舉土降太祖. 羣臣之議, 或以爲可, 或以爲不可. 王子曰, “國之存亡, 必有天命. 只合與忠臣·義士, 收合民心自固, 力盡而後已, 豈宜以一千社稷, 一旦輕以與人.” 王曰, “孤危若此, 勢不能全. 既不能強, 又不能弱, 至使無辜之民, 肝腦塗地, 吾所不能忍也.” 乃使侍郎金封休, 賣書請降於太祖. 王子哭泣辭王, 徑歸皆骨山, 倚巖爲屋, 麻衣草食, 以終其身.



- 위패는 신라경순대왕태자김공일지신위(新羅敬順大王太子金鑑之神位)이다. 신라 경순 대왕의 태자 김일(金鑑)의 신위를 지금까지 모시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태자공 후손들의 집성촌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 마의태자가 세상을 등지고 이동해 오는 곳마다 사찰과의 전설이 전하는 것은 당시에 충신들이 신라의 복원을 꿈꾸며 승려로 신분을 숨기고 의탁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사찰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마의태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합법적으로 대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사찰이었을 것이다.

나. 마의태자의 유적과 진위 논란

이 지역에는 마의태자에 대한 지명과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신라의 옥새(玉璽)를 숨겼다는 옥새바위, 마의태자의 수레(手車)가 넘어 다녔다는 수구네미, 맹장군이 마의태자를 수행하며 의병을 모으고 군사적인 준비를 하던 맹개골, 군량미를 경작하던 군량전(軍糧田), 고토를 회복하고 항거운동을 하기 위한 다물리(多勿里), 이 밖에도 옥터골〔獄垆谷〕과 갑둔리(甲屯里), 을둔리(乙屯里) 등으로 대부분이 군사적인 용어이다.

부령 김씨 세보(世譜)에는 경주김씨 29세인 경순왕의 아들 태자 일(鑑)을 시조로 모시는데 자(字)는 겸용(謙用) 시호는 태자공(太子公)이라 기록되어 있다.

‘김부리의 김부(金富)가 마의태자 김일(金鑑)이 아니다’라는 논란도 있지만 향찰 표기의 전문가인 청주대 양원철 교수는 일(鑑)자와 부(富)자는 같은 뜻으로 일(鑑)자는 무게 단위인 ‘스물넉 냥을 나타내지만, 그 뜻으로는 잘 쓰이지 않고 아래와 같이 해석되어 두 글자는 “넉넉하다”와 “많다”는 뜻으로 쓰여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이런 표기는 당시에 신분과 이름을 숨길때 사용되었으며 옛 문헌에도 가끔 볼 수 있어 사례로 소개된 것을 인용한다.

- 당시는 일(鑑) = 일(溢) 같이 쓰였으며 가차별작(假借別作)⁴³⁾으로 하면 익(益)으로 부(富)와 같은 뜻(많다, 넉넉하다)으로 쓰였다.
- 牛首州(우수주) = 牛頭州(우두주) ⇒ 수(首)와 두(頭)는 ‘머리’를 뜻하므로 같은 지명

43) 음을 빌려 소리는 같지만 다른 글자로 쓰는 것을 말한다.



- 月明里(월명리) = 月明巷(월명항) ⇒ 리(里)와 항(巷)은 ‘마을’을 뜻하므로 같음.
- 居柒夫(거칠부) = 荒宗(황종) ⇒ ‘居柒’은 ‘거칠’로 읽히며, 부(夫)는 ‘마루’이다. ‘荒’은 거칠황이니 ‘거칠’이고, ‘宗’은 마루 종으로 ‘마루’이니 같은 사람이다.

논란은 있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김부(金富)가 마의태자(麻衣太子) 김일(金鎰)이라는 것이다.

다. 삼국사기에 대한 의구심(疑懼心)

『삼국사기』에서는 “왕자가 울며 왕에게 하직하고, 바로 개골산(皆骨山)에 들어가 바위를 집으로 삼고, 삼베옷을 입고 풀을 먹으며 일생을 마쳤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의태자에 대한 입산(入山) 이후의 행적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마의태자가 머물던 개골산(皆骨山)이 설악산이라면, 혹은 인제에서 신라 부흥을 꿈꾸다가 만년에 금강산으로 향했다면 전설은 사실로 바뀌지 않을까 한다.

개골산이 금강산으로 확정적으로 되어있기는 해도 혹자는 개골산은 낙엽이 진 앙상한 겨울산으로 눈 덮인 설악산(雪岳山)과 그 의미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금강산과 설악산의 물리적 거리는 생각보다 매우 짧은데 1911년 일제가 사찰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행한 본·말사법(本末寺法)에 의해 우리 지역의 모든 사찰은 금강산 건봉사의 말사로 관리되어 『건봉사금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事蹟)』에 올라 있었다.

1987년 갑둔초등학교 이태무교사에 의하여 발견된 인제 갑둔리 5층 석탑은 신라가 멸망한 뒤에도 유민(遺民)들이 오랫동안 고토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김부와 그 가계(家繼)의 역할을 놓아줄 수 없어 간절한 발원으로 붙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문에 의하면 요나라 연호 태평 16년이면 1036년으로 신라가 망하고 이미 100년이 흘러 고려 정종 2년이다. 그때까지도 김부를 기렸다면 신라의 부흥 운동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9> 갑둔리 5층 석탑

■ 인제 갑둔리 5층 석탑 명문의 해석문

“널리 보살계를 지키는 부처님의 제자 구는 상주(돌아가신 왕)인 김부와 가문의 수명이 오랫동안 보존되도록 5층 석탑을 만들어 영원토록 공양합니다. 1036년 8월”⁴⁴⁾

『고려사(高麗史)』 권21, 세가(世家), 신종(神宗) 5년(1202년) 음력 10월에 “최충헌(崔忠獻)이 이 소식을 듣고 재상(宰相)과 여러 장군을 대관전(大觀殿)에 모아놓고 의논하기를, 경주 사람들이 함부로 옳지 않은 일을 하더니 지금 다시 패거리를 모아서 인근 고을을 공격하고 있으니, 마땅히 군사를 동원하여 토벌해야 합니다.”⁴⁵⁾라는 것으로 보아 신라가 망한 지 20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신라 유민의 반발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마의태자의 금강산행은 좌절한 왕자가 도망치듯 속세를 등진 것이 아니라

44) 인제 갑둔리 5층 석탑 普薩戒弟子仇上主 金富壽命長存家 五層石塔成永充供養 太平十六年丙子八月日

45) 『고려사(高麗史)』 권21, ■ 忠獻聞之 會宰相諸將於大觀殿 議曰 慶州人 恣行不義 今又聚黨 攻伐隣邑 宜發兵討之



재기를 위해 기회를 찾아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한다.

양양군 서면의 구룡령 아래인 갈천리 소재 “왕승골 [王承洞]”에도 절골 [寺谷 : 옛 절터] 이 있는데 곳곳에 커다란 돌무더기가 남아 있다. 그래서 이곳이 마의태자의 “왕궁터”였다는 전설이 전한다. 이곳에서 북쪽 고개를 넘으면 진동계곡을 거쳐 귀둔리로 이어진다.

필레령을 넘으면 이어지는 필레 계곡은 1003.8m봉-망대암산-점봉산-작은 점봉산-곰배령 [丁嶺] -가칠봉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1003.8m봉-가리봉-주걱봉-삼형제봉으로 이어지는 가리 능선 사이의 깊은 골짜기다. 이 정도 계곡과 산성(山城)이면 마의태자가 머물며 요새(要塞)로 삼아 신라의 부흥을 꿈꾸었을 개연성(蓋然性)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3. 필레약수(必曳藥水)와 온천(溫泉)

필레약수도 역시 “필예” 또는 “피래” 약수로 불리는데 점봉산 서쪽인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1053-1번지로 44번 국도 필레령 입구에서 6km 지점에 있다.

『인제군지』는 1930년경 김씨 성을 가진 이가 발견한 약수라고 하지만 약수의 역사는 그보다 더 오래됐을 것으로 추측한다. 약수 주변의 축대를 조성한 방식이나, 약수가 계곡으로 직접 흘러들지 않고 땅속으로 스미도록 만든 배수구 설치 기술 등으로 보아 약수가 개발된 것은 수백 년 전이었을 것이다. 필레약수의 명칭은 약수터 주변의 지형이 마치 “베를 짜는 여자의 형국”이라 필녀(匹女)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필레약수 주변에는 인가가 없었는데 1994년 필레로(必曳路)가 포장되면서 방문객이 늘었다고 한다. 이 도로는 1972년 비운(悲運)의 김재규(金在奎)가 3군단장으로 재임할 때 뚫어놓은 도로라고 한다.

필레약수는 탄산이 포함되어 위장병은 물론 피부병에도 좋다는 소문에 찾는 이가 많다. 약간의 탄산 성분과 철분이 있어 조금은 비릿한 맛이 난다. 숙취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수로 밥을 지으면 노란빛의 윤기가 흐르며 특이한 맛이 나서 식당에서 약수(藥水)를 이용하여 밥을 지어 판매하는 곳도 있다.



<그림 10> 필레 약수터 전경

필레약수에서 500m 정도 북쪽으로 오르면 게르마늄 성분의 온천이 있는데 노천탕도 운영한다. 약수 성분과 거의 흡사하여 탄산 성분 때문에 처음 입욕(入浴)하면 피부가 따갑다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만 견디면 피곤이 확 풀린다고 한다.

4. 태백산맥과 은비령의 무대

필레로가 포장될 즈음에 임권택 감독이 영화화한 조정래 원작 『태백산맥』이 1994년 9월 17일 개봉되었다. 필레 계곡이 영화 태백산맥의 전투 장면을 촬영했던 장소로 알려지면서 명소가 되었다.

또한 이순원⁴⁶⁾이 1996년 발표한 소설로 ‘우주의 시간과 별의 시간을 견디는 사랑 이야기’가 “은비령(銀飛嶺)”의 배경이 되었다. 이순원이 필레령을 가상(假像)의 지명인

46) 1957년생, 강릉 출신 작가, 강원대 경영학과 졸업, 88년 단편 「낮달」(문학사상 신인상)로 등단, 저서로는 소설 「그 여름의 꽃게」, 「얼굴」, 「말을 찾아서」, 「그가 걸음을 멈추었을 때」, 「첫눈」 장편소설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수색 그 물빛무늬」, 「아들과 함께 걷는 길」, 「첫사랑」, 「그대 정동진에 가면」, 「19세」, 「나무」, 「워낭」, 「삿포로의 여인」 등



은비령이라 부르면서 소설이 인기를 얻고, 드라마로 제작되자 이 고개를 은비령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현재는 필레약수터 앞에 은비령이란 이름의 펜션이나 가게가 생겨났고, 다음 지도에도 실제 고갯길에 은비령 이름이 붙여지는 등 실제 지명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이곳을 작가는 여인을 향한 은밀한 비밀인 은비(隱秘)를 도덕적 치외법권이 있는 은비령(銀飛嶺)에서 흰 눈과 함께 날려 버림으로써 가슴을 짓누르던 소금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도 우리 마음 안에 그의 영혼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소금 짐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곳.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의 그런 곳을 찾아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죽은 친구의 아내인 그녀(선혜)와 죽은 남편의 친구인 내가...”

작가는 은비팔경(銀飛八景)을 통해서 이곳 풍경과 운치를 한껏 드러냈는데 조금만 눈을 감아도 필레 계곡의 풍경이 그려진다.

- 제1경은 화전민(火田民) 마을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삼주가 병풍”으로 원통에서 한계령으로 오를 때 오른쪽으로 보이는 옥녀탕과 하늘벽, 병풍처럼 펼쳐진 장수대의 뒤편의 삼형제봉과 주걱봉, 가리산이다. 모두 해발 1,200m에서 1,500m의 태백산맥의 준령들이다.
- 제2경은 겨울 은비령의 눈 내리는 풍경으로 은비은비(隱秘銀飛 : 비밀스럽게 감춰진 고개위로 날리는 하얀 눈)
- 제3경은 마을 서쪽 한석산에 지는 저녁노을로 한석자운(寒石紫雲 : 한석산 노을 빛 구름)
- 제4경은 맑은 날 아침에도 구름처럼 걸쳐져 있는 우풍재의 안개〔風嶺霧陣〕
- 제5경은 가리산의 가을 단풍〔佳里秋丹〕
- 제6경은 필레 계곡의 흰 돌 틈 사이로 작은 폭포처럼 가파르게 흐르는 여울〔必洞玉川〕
- 제7경은 장작으로 밥을 지을 때 안개처럼 낮게 피어올라 바깥마당을 매콤하게 감싸는 연기로 작가가 은둔하던 집의 저녁 풍경인 은자당취연(隱者堂翠煙 : 은둔자의 집에서 피어오르는 푸른 연기)
- 제8경은 맨눈으로도 밤하늘의 은하수를 볼 수 있는 은궁성라(銀宮星羅 : 은빛 궁궐에 뿌려놓은 밤하늘 별).



5. 보부상(裸負商)의 바꾸미[物物交換] 길

오색령은 소동라령의 기능이 미시과령(미시령)으로 옮겨간 후에도 과객(科客)이나 양반, 관료들이 다니는 공로(公路)의 기능을 일부 하였다면 필레령은 보부상이나 “바꾸미(物物交換)”하던 일반인이 넘어 다니는 지름길(捷徑)이었다.

부보상(負裸商)은 보상(裸商)과 부상(負商)을 총칭하는 말인데 보상은 주로 기술적으로 정밀한 세공품이나 값이 비싼 사치품 등의 잡화를 취급한 데 반하여, 부상은 조잡하고 유치한 일용품 등 가내 수공업품 위주로 판매를 하였다. 또한 보상은 보자기에 싸서 들거나 질빵에 걸머지고 다니며 판매하였고, 부상은 상품을 지게에 얹어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판매도 하고 바꾸미(物物交換)도 하였다. 이에 따라 보상을 “벗짐장수”, 부상을 “등짐장수”라고 하였다.

영동과 영서를 오가는 장사는 주로 특산물을 옮기는 부상으로 나귀나 소의 등에 짐을 싣는 질매⁴⁷⁾를 이용하였다.

걸어서 영(嶺)을 넘어 인제에 도착하려면 100리길(40km) 이라 나귀에 짐을 싣고 가면 사나흘에서 열흘 이상씩 이장 저장을 돌며 장사를 하고 돌아와야 수지가 맞았다.

영서 사람들도 주먹밥을 싸서 필레령을 넘어 옥수수과 감자, 콩, 나물 등을 생선과 바꾸기 위해 왕래했지만 설 전에는 제사에 사용할 어물을 구하기 위하여 더욱 빈번히 오갔다.

■ 인제군 5일장 : 서화장(瑞和場 1,6일), 원통장(元通場 2.7일), 기린장(麒麟場 3.8일), 신남장(新南場 3.8일), 인제장(麟蹄場 4,9일)

가. 양양의 토산물

『신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부 토산(土産)조⁴⁸⁾에 보면 철(鐵)이 나오는데 지금의

47) 질매는 길마의 방언으로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 소나 말 따위의 등에 얹는 기구이다.

48) 신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부 토산조(1530년)

췌(모시), 鐵(철) : 出西禪寺東峯下(서선사 동쪽 봉우리 아래서 나온다). 竹箭 : 出竹島(화살대는 죽도에서 나온다). 海松子(잣), 五味子(오미자), 紫草(지치), 人參(인삼), 地黃(지황), 茯苓(복령), 蜂蜜(꿀), 白花蛇(산무애 뱀, 독사의 일종), 海衣(김), 藿(미역), 鱈(전복), 紅蛤(홍합), 文魚(문어), 大口魚(대구), 松魚(송어), 鱈魚(연어), 銀口魚(은어), 黃魚(황어), 魴魚(방어), 古刀魚(고등어), 廣魚(광어), 鱸魚(농어), 秀魚(송어), 雙足魚(쌍족어), 海參(해삼), 松蕈(송



양양 철광의 위치인 ‘서선사(西禪寺) 동쪽 봉우리 아래서 나온다.’는 기록을 보아 오래 전부터 철은 양양의 특산물로 진상도 했지만, 각종 농기구나 무기 등을 만들어 민간에 유통하고 영서지방으로도 많이 팔렸을 것으로 보인다.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50번지 구룡령 기슭에서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야철지(冶鐵地)가 발견돼 학계에서 확인한 결과 광석(鑛石)에서 철을 골라내고 정제해 각종 철제 연모를 만들던 터로 확인되었다.

또한 강현면 금풍리(金風里)의 옛 이름은 용철야(熔鐵冶 : 쇠 녹이는 물무골)로 300년 전에 금풍리가 되었지만, 아직도 주변에서는 “쇠풍골”이라 부른다.

토산품 중에는 미역이나, 김 등과 각종 어류(魚類)가 많이 있다. 영서(嶺西) 지방에는 생산이 되지 않아 주로 영동(嶺東)의 장사 물목(物目)에 필수로 포함되어 있는데 영서로 가서 짭짤한 이득을 보았다.

지금은 소금이라면 서해안의 염전에서 나오는 천일염만 알고 있으나 조선 시대에는 서해안뿐만 아니라 동해안 바닷가에서도 소금이 생산되었다. 조선 시대 동해안 일대에서는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염분(鹽盆, 소금가마)이 있어 소금 생산이 주력산업이었다. 가마로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방식은 우리나라 전통의 소금 제조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을 “자염(煮鹽)”이라 하였다.

갯벌을 이용한 염전은 1907년 인천의 주안(朱安)에 처음 들어섰으며, 가열방식이 아닌 천일염(天日鹽)은 생산단가가 저렴하여 가마(鹽盆)에서 굽는 방식의 전통 자염은 경쟁력을 잃고 1960년대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전국의 소금가마 개수가 『세종실록지리지』에 전해오는데 양양도호부는 동산현을 포함하여 40개⁴⁹⁾가 있었으며 강원도 내에서는 꽤 많은 숫자로 영서와 장사하는 물목(物目)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⁵⁰⁾

『대동지지(1861~1866)』 양양의 토산조에 소금(鹽)이 등장하는데, 우리군에서도 소금과 관련 있는 마을이 4개소⁵¹⁾나 있어 소금을 활발하게 생산했음을 알 수 있다.

이).

49) 『세종실록 지리지』 襄陽都護府鹽盆二十二。 洞山縣鹽盆十八

50) 『세종실록 지리지』를 통한 강원도 동해안 고을의 염분(鹽盆, 소금가마) 개수
강릉도호부 23, 연곡 5, 우계 20, 양양도호부 22, 동산현 18, 삼척도호부 40, 평해군 46, 울진현 61, 간성군 17, 열산(烈山) 6, 고성군 12, 안창 11, 통천군 36, 흠곡현 3, 간성군은 속현인 열산현을 포함해 23개.

51) 염전 : 조산리 : 염전거리, 여운포리 : 염전터, 중광정리 : 염밭, 정암1리 : 염전거리,



IV. 필여령(彌如嶺)을 마치며

필레령은 한양 500리의 오색령과는 달리 동해안에서 만들어진 소금이 내륙인 영서로 전해지던 대표적인 “소금길”이자 지름길이었다. 양양에서 구운 소금, 말린 생선 등이 붓짐으로, 혹은 나귀와 소의 등에 실려 필레령을 넘어가 인제에서 곡식, 나물, 버섯 등으로 교환되면서 영서로 전해졌던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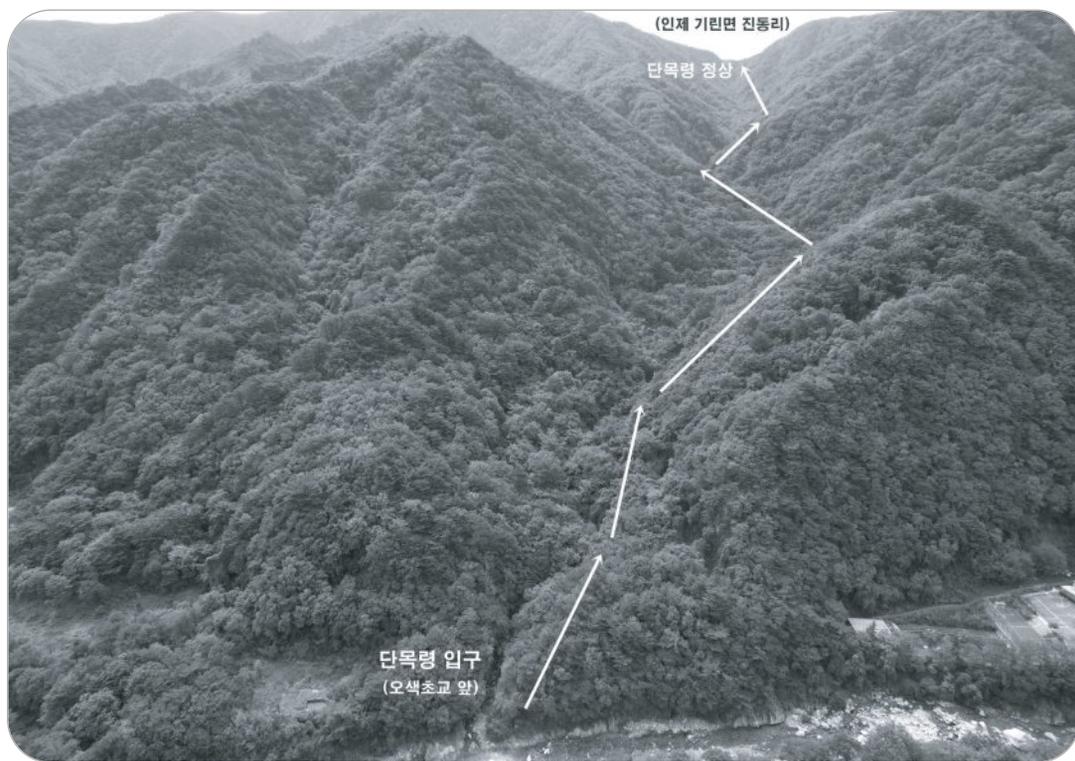
조선 시대에 작성된 수많은 지도에 어떻게 표기가 되어있더라도 필러령은 오색령(현 한계령) 남쪽 1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필러령의 이름도 의미도 여러 번 변경이 되었으나 산과 영은 늘 말없이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들의 크고 작은 사건마다 눈물과 땀을 받아 주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피난처로, 전쟁터로, 관광지로 많은 사람이 찾을 것이고 추억할 것이다. 때로는 어느 예술인의 혼 속에 녹아서 사랑의 장소가 되기도 할 것이다. 과거라고 장뜰뱅이와 주막집 아낙의 애뜻한 사랑 이야기가 없었겠는가?, 역사는 흘러, 흘러서 인간의 자취가 남을 뿐이다.

필여령을 정리하면서 영을 매개로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 모쪼록 필레령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제3장

단목령(檀木嶺)



단목(박달)령 입구





I. 위치 및 식생

단목령은 서면 오색 1리 오색분교 앞에서 인제군 기린면(麒麟面) 진동리 설피밭까지 연결하는 북암령과 점봉산 사이의 안부(鞍部)⁵²⁾를 지나는 고개(嶺路)이다. 예전에는 연수파(連水波), 박달령(朴達嶺)이라 불리었는데 현대 지도에는 단목령(檀木嶺)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영의 정상인 진동리 산 71번지에서 설피밭⁵³⁾으로 불리는 인제군 기린면 진동2리 점봉산 산림관리센터(진동리 218번지)까지는 1.4km로 경사가 완만하고, 양양군 서면 오색 1리 상평초등학교 오색분교(오색리 307-1번지) 앞 박달 편의점까지는 2.9km로 가파른 급경사로 소나 말도 쉽게 다닐 수 없는 비탈길이다.

양양에서 인제로 가는 영로(嶺路) 중에서 높이(해발 855m)가 비교적 낮고, 길이도 4.3km로 짧아서 최근까지 이용되었던 영로이다.

단목령은 점봉산(點鳳山, 1,424m), 곰배령(丁嶺)으로도 이어지는 능선으로 예부터 산나물과 목재(木材)를 이용한 목기(木器) 등 생활용품 생산의 보고(寶庫)로 이 길을 주로 이용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보호구역의 남쪽은 단목령, 북암령, 조침령으로 이어지며, 서쪽으로는 작은 점봉산, 곰배령, 가칠봉까지이다.

이곳은 남방계와 북방계 식물이 모두 다 생육하는 지리적 특성의 산림지역으로 한 반도에 자생하는 식물의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이 교차하는 “남·북방 한계선”이기도 하다.

「산림유전 자원 보호구역」에는 물이 풍부하여 교목층(喬木層)의 박달나무를 비롯하여 신갈나무, 자작나무, 사시나무, 피나무, 들메나무 등과 아교목층(亞喬木層)의 당단풍나무, 물푸레나무, 윗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또 관목층(灌木層)의 조릿대, 철쭉, 꽃개회나무(회귀식물) 등의 식물이 자생한다.

지표의 초본층(草本層)에는 모데미풀(특산·회귀식물), 구실바위취(특산·회귀), 한

52) 산행할때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 낮은 부분을 안부(鞍部)라고 하는데 고개라고 부른다.

53) 설피란 눈 쌓인 한겨울에 발이 눈에 빠지지 않도록 신 위에 덧신는 신발을 말한다. 설피밭(마을)이라는 이름은 설피를 만드는 나무를 경작하는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계령풀(희귀), 금강초롱꽃(특산·희귀)과 곰취, 누리대, 단풍취 등 각종 산나물과 작약, 참당귀, 산삼 등의 약초 등이 자라고 있고, 오뉴월이면 야생화가 만발한 천상의 화원이 전개되는 우리나라 대표 원시림이다. 인류의 자연유산을 품고 있는 세계의 유산지다.

이렇듯 단목령은 입산자원이 풍부하여 식물자원의 보고로서 생태적가치가 높아 「천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1987년부터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한반도 자생식물의 20%에 해당하는 854종이 자라고 있고, 그중 보호대상 희귀식물도 50여 종이나 되어 유네스코는 1982년에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단목령의 마루금⁵⁴⁾에 오르면 보전지역의 모든 곳과 연결된다.

II. 영 이름의 변화와 고문헌 속 단목령

1. 영 이름의 변화

단목령(檀木嶺)은 동국지도(1724~1776) 강원도 편에서 연수파(連水坡)로 기록된 후 대부분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다만, 팔도지도(1778~1838)에서는 고개 파(坡)가 물결 파(波)로 변하여 연수파(連水波)로 표기하였다.

광여도(1737~1776)와 『대동지지(1861~1866)』에서는 박달령(朴達嶺)으로 기록하고 있다. 연수령(連水嶺)으로 표기한 지도로는 여지도(1777~1778), 좌해지도(1776~1800), 좌해여도(1838), 청구도(1834)이다. 청구요람(1863~1907년)에는 원수령(遠水嶺)으로 표기되어 연(連)자를 옮기는 가운데 실수로 원(遠)이 되지 않았나 짐작한다.

그런데 고성군 토성면과 인제군 북면을 잇는 해발 826m의 고개인 미시파령(彌時坡嶺) 즉 미시령(彌矢嶺)이 연수파(連水坡)와 비슷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주의를 요한다.

54) 마루금 : 산마루와 산마루를 잇는 선



『검재집』 권20 유풍악기

境而蒙惡號。類君子抱道而見諷於俗人。故遂改之。曰雪洞。言其容。又取昭雪之義也。名其峯曰層玉。像形也。名其洞曰遜世。語德也。
 雪洞在彌時嶺之西。自嶺而下。僅五六里。源出嶺上。合諸谷之水。有巨巖截其口。川流遇石而大喧。喧飛注。勢甚壯。高可十丈。受水處為深淵。淙碧膏滑。采若白虹。去若鳴珮。左右石峯峭拔。洞多奇巖。嶺東西多瀑。此可居二三云。
 少坐觀。翫日昏。難久留。遂踰嶺。嶺即名彌時。而或稱彌日。俗號烟樹坡。阻峻。稱於世。送人未巖寺。呼火。至。是寺僧來迎。冒夜踰石人嶺。嶺甚懸急。新經雨。道多剥落。令人凜凜心悸。殆二更至寺。杆城地也。自葛驛至此。凡五十里。寺東南有巖如積禾狀。寺名以此。其西有水石不甚佳。有僧汝信能談諸處山水。僧日淡。富厚。積穀千鍾。聞襄陽人來。候元巖驛。驛去寺二十里。送人招之。
 二十九日庚午晴。送書於子東。已促食。復以蓋輿行。歷入繼祖窟。襄陽地也。有巖覆如屋宇。舊有菴其中。為火所焚。方新建而未完。東有石臺。上可坐百人。址偏有巨圓石。僧言是動石。數人推之。輒搖。而雖用千

儉齋集 卷二十

<그림 1> 『검재집』 권20 「유풍악기」의 연수파

■ 미시파령(彌時坡嶺)의 이칭(異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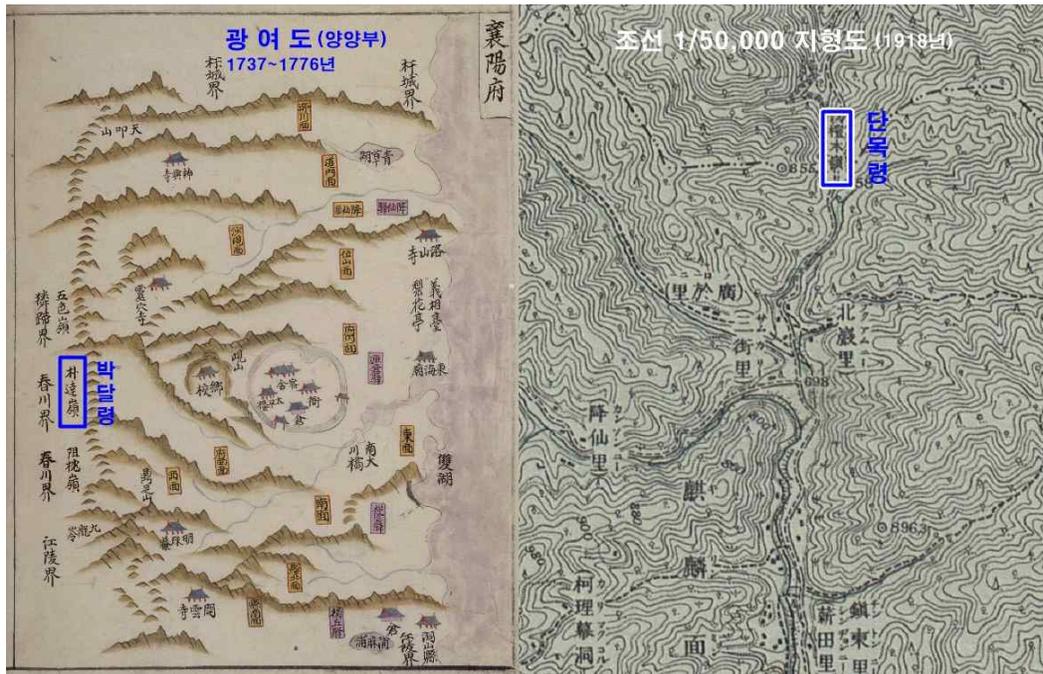
- 김유(金樛, 1653~1719)는 『검재집(儉齋集)』 권20 「유풍악기(游楓嶽記)」에서 “고개를 미시(彌時) 혹은 미일(彌日)이라고 칭하고 속세에서는 연수파(烟樹坡 : 연기가 많고 나무가 많은 고개)라 부른다.”(嶺即名彌時而或稱彌日俗號烟樹坡)고 했다.
- 이중환(1690~1756)은 『택리지(擇里志)』 산수(山水) 편에서 연수령(延壽嶺)이란 표현을 썼다.
- 김정호(1804~1866)는 「대동여지도」와 『여도비지(輿圖備志, 1851~1856)』, 『대동지지(大東地志, 1866)』에서 연수파령(連水坡峯)으로 표기하였는데 연수파령(連水坡峯)을 동방문화대학원 권상호교수는 “물길이 이어지는 고개”로 풀이 하였다.

미시령의 이칭 중에서 연수파와 한자로 가장 가까운 것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인데 단목령은 세 글자인 연수파(連水坡)로 표기한 반면, 대동여지도에서는 네 글자인 연수



과령(連水坡嶺)으로 썼다. 고개를 뜻하는 글자인 과(坡)와 영(嶺)을 한꺼번에 쓴 것은 특이하다.

영(嶺)의 이름 중 박달령이라는 이름은 전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으로 연수과(連水坡) 인근에는 박달나무 군락이 많은데다가 영 정상에서 인제 방향의 사면에 박달산(朴達山)이 있어 박달령으로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2> 광여도와 조선오만분일지형도

또한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조선총독부가 측도(測圖)하고 1918년에 발행한 지도에는 박달령(朴達嶺)을 단목령(檀木嶺)으로 바꾸어 기록하였는데 그 후부터 현재까지 단목령이 공식적인 표기가 되었다.

박달령(朴達嶺)이 박달나무⁵⁵⁾에서 유래하였으므로 박달나무를 뜻하는 단목(檀木)을 써서 단목령(檀木嶺)이라 바뀐 것은 일제(日帝)에 의하여 창지(創地) 개명(改名)을 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인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금도 박달령이라고 계속하여 부르고 있다.

55) 박달나무는 참나무목 자작나무과의 교목(喬木)으로 20~30미터쯤 자라며 온대 북부 지방의 깊은 산에서 자란다. 거울에 잎이 지는 넓은 잎 큰키나무이다. 박달나무는 매우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여 다듬이방망이, 흥두깨, 방아와 절구공이, 떡살과 다식판, 머릿빗 등 일상 용품을 만드는 유용한 나무이다.



2. 고문헌 속 단목령

단목령은 오늘날까지 이용되는 영로(嶺路)이기는 하지만 생계 수단의 대표적 영로였기 때문에 공로(公路) 개념과는 거리가 있어 양반이나 문장가가 다니지 않아서 시문(詩文)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양양부에서의 거리와 방향만 표기한 글이 보이며 기린과의 경계였음을 표기한 것이 전부이다.

가. 관동지(關東誌) 제13권

1829~1831년 사이에 편찬된 『관동지』에는 ‘영로 연수과령(連水坡嶺)은 양양부 서북쪽 75리에 있으며 오색령·필노령(弼奴嶺)·박달령은 모두 서쪽 50리에 있는 인제계(麟蹄界)이다.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서쪽 60리에 있는 몹시 험한 영로로 옛날에 경성으로 통하던 대로로 인제계(麟蹄界)이다. 구룡령(九龍嶺)은 서남쪽 65리에 있으며 강릉계(江陵界)이다.’⁵⁶⁾라고 기록하고 있다.

나. 청구도(靑邱圖)

1834년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청구도」에는 오색령(五色嶺)·한계산(寒溪山)과 고성(古城:한계산성)·필노령(弼奴嶺)·형제현(兄第峴)·소양치(所良峙)·양한치(兩寒峙)·연수령(連水嶺)·박달산(朴達山)·소동라령(所冬羅嶺)·구룡령(九龍嶺)의 기록이 지도에 잘 나타나 있다.

56) 嶺路連水坡嶺西北七十五里五色嶺弼奴嶺朴達嶺俱西五十里麟蹄界所冬羅嶺西六十里絕險舊有 通京大路麟蹄界九龍嶺西南六十五里江陵界.



제1편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서쪽 영로(嶺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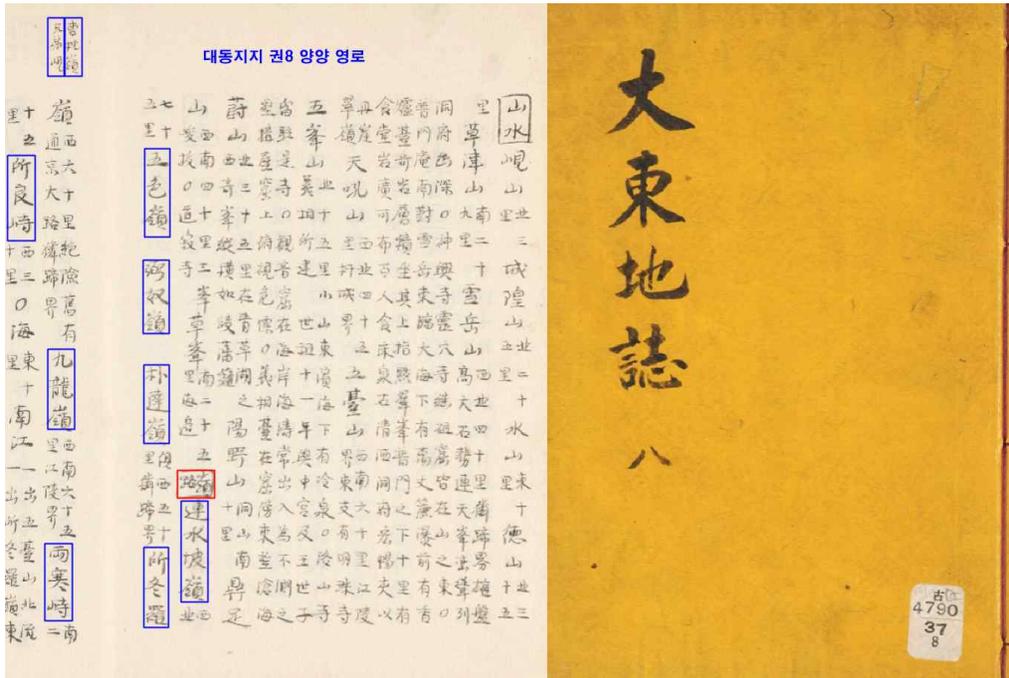


<그림 3> 「청구도」의 연수령

다. 대동지지(大東地志)

1866년 『대동지지』 영로조(嶺路條)에는 연수과령(連水坡嶺:미시령)·오색령(五色嶺)·필노령·(弼奴嶺)·박달령(朴達嶺)·소동라령(所冬羅嶺)·조침령(曹枕嶺)·구룡령(九龍嶺)·양한치(兩寒峙)·소량치(所良峙)·형제현(兄弟峴) 등 모두 열개의 고개가 열거되어 있다. ‘오색령·필노령·박달령은 부 서쪽 50리로 인제와 경계이다. 소동라령은 부에서 서쪽 60리로 옛날에 서울로 통하는 아주 험한 큰길이 있었는데 인제와 경계이다.’⁵⁷⁾라는 기록이 있다.

57) 대동지지 五色嶺 弼奴嶺 朴達嶺 俱西五十里獐蹄界 所冬羅嶺 西六十里絕險舊有通京大路獐蹄界.



〈그림 4〉 『대동지지』 권8 양양 영로에 표기한 영(嶺)·치(峙)·현(峴) (자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Ⅲ. 단목령의 이용실태

1. 조선시대 이전

인접한 양양군과 인제군의 군민이 자급자족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양양의 소금·해산물 그리고 춘천계 기린현·인제현의 곡물을 『바꾸미(物物交換)』로 교환하기 위하여 연수파(박달령)의 길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추측한다.

단목령은 길이와 높이에서 비교적 짧고 낮으며 영(嶺)의 마루 근처는 방태천(芳台川)의 발원지라 물이 많아 연수파(連水波)로 불렸으며, 식생(植生)이 좋아서 나물과 생활형 목기(木器)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도 활용이 되었다.

이 시절에는 행상인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하여 물건을 교



환하였다. 이렇게 바꾼 물건을 자가 소비하거나 되팔기도 하였지만 전문적인 장사꾼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2. 조선시대

조선 정조(正祖)대에 육의전(六矣廛)을 제외한 금난전권(禁亂廛權)⁵⁸⁾이 폐지되면서 장시(場市)가 개설되어 보부상(褓負商)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장사에서 지역 특산품을 매입하여 생산되지 않은 지역으로 옮겨주고 품값을 받거나 판매하기도 하면서 온 나라의 경제를 돌아가게 하였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사이에 왕명 등 행정 명령을 전달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로가 필요하였고, 통행과 공물·진상 등의 관물(官物)운송, 군사 명령의 전달, 통신 및 교통시설로 역도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조선 세조 8년(1462)에 개설한 상운도(祥雲道)에는 찰방(察訪)이 관할(管轄)하는 역이 16개 역으로 양양도호부에는 상운역 그리고 오색역, 연창역, 인구역, 강선역이 있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공로인 역도를 이용할 수 없는 까닭에 바꾸미[物物交換]하던 일반인들과 보부상은 짧은 거리인 박달령을 주로 이용하였다.

■ 단목령 바꾸미 길

양양에서 출발하여 ⇒ 서문리 ⇒ 임천리 ⇒ 향재 ⇒ 상평리 ⇒ 장승리의 들들거리 주막, 복상나무정주막 ⇒ 흑간리(黑澗里) ⇒ 서늘재(소양치) ⇒ 가라피리 ⇒ 마산리(馬山里 : 현 오색1리 오색분교)의 솔정지주막 ⇒ 단목령 ⇒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218번지(점봉산 산림생태 관리센터)의 설피밭⁵⁹⁾에 도착하여 인제지방의 읍내 장(3,8)으로 갔다.

58) 금난전권은 17세기 후반 시전 상인들에게 배타적인 상업 활동을 허가해 주던 권리이다.

59) 설피는 눈 위를 걸을 때 빠지지 않도록 넓적하게 만든 겹신으로 설피 마을이라는 이름은 설피를 만드는 덩굴(나무)을 경작하는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며 진동리는 이런 유래로 이름이 아예 "설피밭"으로 굳어졌다.



<그림 5> 인제 기린면 진동리의 단목령

가. 보부상(裸負商)의 역할과 거래 물목(物目)

조선의 보부상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허가된 상인으로 대개는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를 범위로 형성되어 있는 상인 조직이다. 공식적으로 국가에 이력을 등록하고 신분증을 받아서 활동하였는데 시장을 돌면서 각 지방의 물품 교환을 촉진하였다,

목화솜을 좌우에 단 패랭이 모자가 보부상의 상징으로 국가에 세금은 물론 노역도 담당하였다. 특히, 임진왜란(1592~1597)과 정유재란(1597~1598), 동학농민운동 당시 선조(宣祖)는 보급을 위해 보부상을 동원했고, 이들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다.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1770년대)』에 의하면, 18세기 양양부에는 읍내 장(3, 8일), 동산장(洞山場 4, 9일), 물치장(4, 9일), 부동장(府東場 3, 8일), 상운장(祥雲場, 5, 10일)이 있었다.

18세기 당시 양양 도호부는 행정의 중심지역으로써 영서 지역과 교류의 중심지였으며, 상운장과 동산장은 강릉 가는 길목으로 강릉지역을 포함한 남쪽 지역과도 활발히 교류하였다. 그러나 당시 인제는 소규모 현으로 읍내(邑內)에 시장(市場)이 하나만 개설되어서 3일과 8일에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임원경제지』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후기에 장시(場市)에서 거래된 물품으로는 쌀·콩·보리·조·기장·메밀 등의 곡물류와 면포·면화·삼베·모시·비단 등의 직물류가 있다.

수공업 제품으로는 농기구·왕골자리·삿자리·초립(草笠)·유기(鋤器)·가족신·의복·신발·갓끈·빗·바늘·분(粉) 등과 수산물로는 조기·청어·준치·민어·굴 등이 있었다. 소·말·돼지·닭 등의 축산물과 감·밤·대추·배·사과 등의 과일류, 배추·파·마늘·무우·오이·참외 등의 채소류도 있었다. 이 외에도 호랑이·사슴·노루 가죽 등의 피물(皮物)이 유통되었는데 명주와 종이는 강릉과 양양에서만 거래되었다.

3. 근대(近代)의 피난(避難) 길 단목령

가. 동학농민운동

1860년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의 장남 세정(世貞)은 영월, 양양, 인제 등지로 피신하여 생활하면서 그 지역의 교인들을 지도하였다. 동학에 대한 관가(官家)의 탄압이 심해지자 양양 김덕중(金德中)의 집에 피신해 있던 세정은 1870년 10월에 좀 더 안전한 곳인 첩첩산중의 인제 귀둔리로 단목령을 이용하여 거처를 옮겼다. 세정은 처와 둘째 여동생과 함께 귀둔리에 있는 장춘보(張春甫)의 집에서 지냈다. 당시의 귀둔리(貴屯里)는 오색령과 점봉산을 사이에 두고 양양과 인접해 있어 단목령을 이용하면 인제보다 양양이 더 가까운 생활권이었다. 양양의 동학교인(東學敎人)들은 단목령을 넘어 다니며 귀둔리 교인들과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갔다.

양양 관아에 체포된 김덕중이 고문에 못 이겨 세정의 거처를 말하자 관군을 귀둔리로 보내어 최세정을 체포하여 양양 감옥에 수감하고 세정의 처와 여동생은 인제 감옥에 가두었다. 세정은 양양 감옥에서 고문 끝에 1872년 5월 12일 장사(杖死)⁶⁰되었다.

60) 장사(杖死) : 장형(杖刑)을 당하여 죽은자



나. 을미(乙未)년과 정미(丁未)년의 의병활동

동학농민혁명(1894년~1895년)에 참여했던 동학농민군은 산간오지(山間奧地)에 은거하여 있다가 1895년 을미(乙未)에 의병⁶¹⁾에 가담하였다.

1896년 민용호(閔龍戶)가 이끄는 의병과 관군이 충돌하여 양양면 소재지에서 임천리까지 싸움터가 되어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관군의 증원으로 의병들이 불리해지자 단목령을 넘어 진동리로 퇴각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전투에서 민가 30여 호가 소실되었다.

정미의병⁶²⁾ 당시 1908년 5월 9일 이강년이 부하 300여 명을 거느리고 양양 우편취급소를 습격하여 양양분견대 및 주재 순사와의 5시간 동안 전투 끝에 10여 명이 부상당 하였다는 기록이 『폭도사편찬자료(暴徒史編纂資料)』에 기록되어 있다.

산악이 많은 양양과 인제는 의병들의 유격전 활동에 지리적으로 유리하였고, 나아가 이곳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의병들의 활동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 당시 의병들은 박달령을 넘나들며 양양과 인제에서 활동하였다.

다. 일제강점기 바지계꾼의 등장

일제강점기에도 보부상(裸負商)들은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일제가 수탈을 목적으로 신작로(新作路)와 철도를 개설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물류가 이동하였다. 그러나 지방은 여전히 5일 장에 의존하였는데 일제는 일본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조선의 보부상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물자와 화폐를 전국 방방곡곡에 공급하는 역할은 반드시 있어야 하였기에 민간에서 자발적인 등짐장수가 등장하였고, 이들은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하여 활동했다.

이때에 등장한 등짐장수를 “바지계꾼”이라 불렀으며 이들이 서서 쉰다고 하여 “선질꾼”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61) 1895년 을미의병(乙未義兵) : 을미년 의병은 조선 말기 최초의 항일 의병으로 1895년 명성황후 시해(弑害) 사건후 유생(儒生)들이 국모의 원수를 갚을 것을 주장했다. 여기에 단발령의 시행이 더해지자 일반백성들까지 반알·반정 부 항쟁에 나서서 친일파를 처단하고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62) 1907년 정미의병(丁未義兵) : 1907년~1910년 사이에 일어난 고종의 강제 퇴위와 정미칠조약 체결, 군대해산 등을 계기로 전개된 일련의 구국 항일무력전의 총칭이다.



또한 이때부터는 대량의 물류가 이동하는 신작로와 항구를 중심으로 장이 발달하였다, 이처럼 장이 증가하게 된 것은 일제가 정기 시장을 통해 자원을 수탈(收奪)하려는 정책에서 나온 결과라 볼 수 있다.

■ 선질꾼이 사용한 운반 도구 바지계

등짐장수의 운반 도구는 주로 붓짐과 바지계였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게는 지게 몸체와 가지가 한 몸으로 되어있지만, 등짐장수는 지게 몸체만 있고 가지가 없는 “바지계”나 지게 몸체에 가지를 끼워서 만든 “쪽지게” 등을 사용하였다. 바지계는 해안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을 내륙으로 팔러 다니던 등짐장수가 쓰던 지게이다. 이 지역의 등짐장수들은 산을 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파른 산길을 다니기에 유리한 바지계를 사용하였다. 쪽지게는 주로 서해 도서의 평야 지역에서 등짐장수들이 쓰던 지게이다,

선질꾼의 복장은 흰 광목 바지, 저고리에 흰 광목으로 허리에 띠를 매었으며, 머리에는 패랭이 대신 흰 광목천으로 넓게 수건을 만들어 메고 다녔다. 양말 대신 흰 광목으로 누런 물을 들여 감발(발 싸개)을 하고 다녔다.

■ 선질꾼 생활을 하였던 윤희병(1919생) 물치리 대한노인회 회장의 진술

1995년 국립민속박물관이 발간한 『강원도 시장 민속』의 양양군 편에 있어서 소개되었다.

‘해방 전후로 물치장은 잘되는 장이었다.(중략) 한편 서면 서림리 장은 해방 무렵에 없어졌다. 현북면 기사문리의 시장은 해방 이후에 북한 통치 시절에 조금 서다가 없어졌다.(중략)’

옛날에는 인제장(또는 원통장)→양양장→물치장→다리바우장(고성군 교암리)→간성장의 순으로 다녔다. 그때 보따리 장사꾼이 있었는데 이를 “바지계꾼” 또는 “선질꾼”이라고 불렀다.

선질꾼은 생선 파는 장사꾼인데 품목은 생선과 소금이었다. 바지계꾼은 인제 쪽에서 곡식을 가져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

선질꾼은 전문적인 장사꾼이 아니라 생계의 유지를 위한 '물물교환'의 역할을 해준



다. 즉 봄철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선질꾼이 주로 활동하여 바꿈이를 하는 것이다.

나(제보자)는 이와 같은 선질꾼을 16세인 1935년에 시작하였으며 10년 정도 하였다. 당시에 생계는 매우 어려웠으며 결혼은 20세에 하였다.

(중략)보통 하루에 짐을 지고 120리 정도는 걸었다. 당시에 출발할 때는 1~2명 정도였지만, 큰길로 가면 여러 명이 되었다. 40세까지도 선질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중략)

선질꾼이 양양에서 인제로 갈 때는 어물 종류인 고등어·소금·미역 등, 특히 소금에 절인 고등어를 많이 갖고 가고, 인제에서 올 때는 주로 콩·팥 등 밭곡식을 가지고 왔다. 가고 오는 중간에서 숙식은 주막에서 해결하였다.

콩의 경우에는 주로 메주를 만드는 용으로 사용되었다. 힘이 좋은 선질꾼의 경우 한 번에 고등어 50손(100마리)과 소금 한 가마니를 지고 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선질꾼은 자체적으로 물건을 사고 옮기며 장사를 하기도 했지만, 대개 물산(物産) 객주(客主)에 고용되어 물건을 옮겨주고 얼마씩 품값을 받았다. 객주는 사람을 두고, 그 지역의 집마다 방문해서 팔든가,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

4. 광복 이후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선질꾼은 존재했다. 6. 25 이후에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 단목령을 넘었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김충현(여 1929년생)

한국전쟁으로 남편은 인민군에 끌려가 생사를 모른 채 돌아오지 않았고 전쟁 중에 집은 불타버려 매우 어렵게 살았다.

양양이 수복(收復)되자 장(醬)이라도 담아 가족들의 호구(糊口)를 연명하려고 못집을 만들어 단목령을 넘어 인제읍 진동리 설피밭에 사는 언니네 집으로 갔다.

태어난 지 두 돌도 안 된 아이를 업고 시어머니와 함께 소금 열 뒷박, 아지(전갱이) 지반 한 두름, 북어 한 쾌를 머리에 이고, 등에 지기도 하면서 단목령을 넘어가서 언니가 소개해준 집과 메주 세 덩이, 메주콩 두 말, 고춧가루, 건 나물, 건 버섯



등과 맞바꾸었다.

당시 길이 험했는데도 짐을 지고 단목령을 넘어 오색까지 내려다주고 돌아가시던 형부(兄夫)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고 있다.

1971년 인제에서 오색령을 넘는 44번 국도가 개통되자 단목령을 넘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영로의 기능은 쇠퇴하였다.

그러나 봄철이면 단목령 마루 일대에서 산나물을 대량으로 채취하여 그곳에서 데치고 말려서 건나물로 만들어 등에 지고 운반해 오는 도로로 변하였다.

또한 정부가 씨감자를 보급하기 전에는 양양지역은 영서지방의 고랭지(高冷地) 감자를 구하여 종자로 썼다.

김원달(남 1944년생)·추종삼(남 1942년생)님의 증언에 의하면 소금, 명태, 고등어 자반, 마른미역을 한 짐 지고 단목령을 넘어 진동리 설피밭으로 가면 그곳에서 5포대의 씨감자와 교환할 수 있었다 한다. 씨감자의 양이 많고 무거운데다 급경사에 매우 험한 길이라서 한 번에 나를 수는 없었다.

이럴 때는 씨감자를 지고 가기 알맞게 여러 개로 나눈 후 몇 번씩 일정한 장소까지 나르고 다시 그 다음 장소로 운반하기를 반복하여 오색분교 근처까지 힘겹게 옮기는데 이를 전철택⁶³⁾이라 한다. 전철택으로 영을 내려오면 질메⁶⁴⁾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IV. 단목령을 마치며

단목령에서 바구미들의 왕래(往來)는 1970년대 초반까지 행하여졌으며 그 이후에는 나물을 채취하고 말려서 내려오는 길로 이용되다가 1982년에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987년부터 입산이 통제되어 단목령은 백두대간(白頭大幹)을 종주하는 사람만이 다니는 길이 되었다.

도로가 발달한 요즘엔 양양에서 인제읍 진동리로 가려면 서면 서림리에서 조침령 터널 하나만 지나면 된다. 이로써 단목령을 넘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63) 전철택 : 큰 짐을 소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일정한 장소까지 나르고 그 다음 장소로 운반하기를 반복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옮기는 방식을 일컫는 말

64) 질메 : 길마(소나 말의 등에 얹어 놓아 짐을 운반할 때 쓰는 기구. 지르마라고도 하며, 주로 소나무로 만든다.)



그러나 단목령은 여전히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야생화의 천국이자 옛사람들이 등짐을 지고 험한 고개를 넘어 삶을 이어갔던 애환이 남아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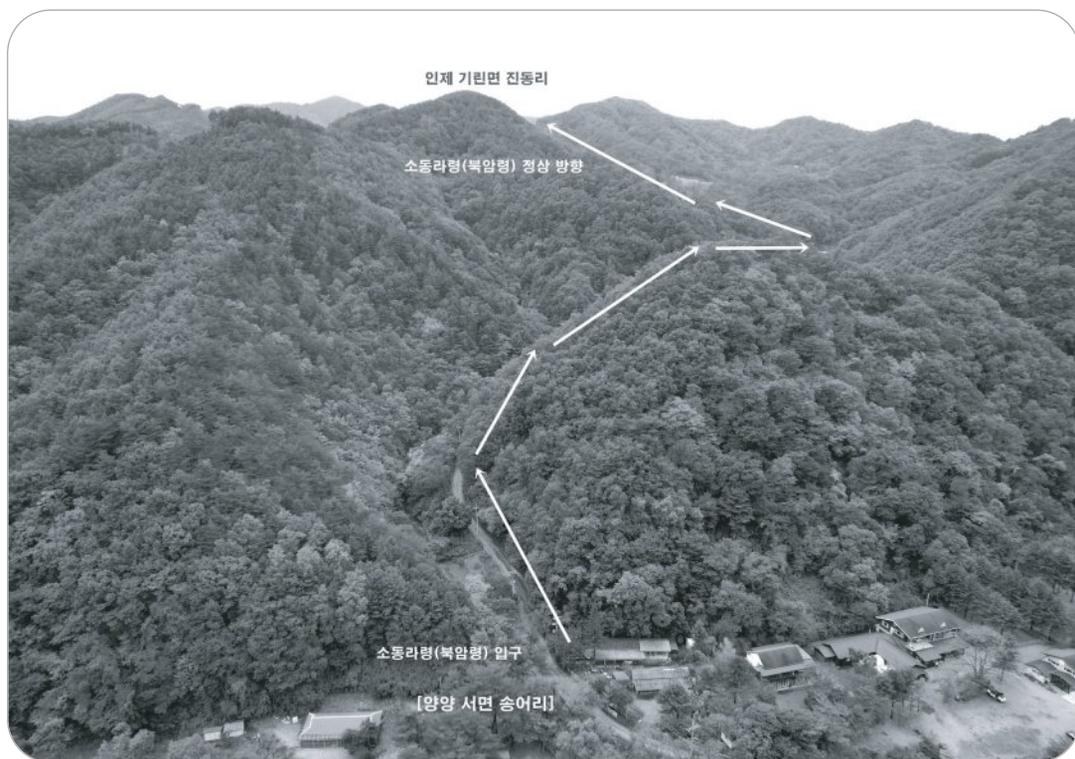
설악산 국립공원은 한반도 자생식물의 20%에 해당하는 854종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식물이 자라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단목령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단목령은 유네스코 등재 지역으로 세계에서 주목하는 곳이었다.



<그림 6> 백두대간 단목령 표지석

제4장

소동라령(所冬羅嶺)



소동라령(북암령) 입구





I. 머리말

소동라령(현 북암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편에서 “요해(要害)는 본부(府) 서쪽으로부터 인제 경계 바드라재(所等羅嶺)로 가는데 36리이다.”⁶⁵⁾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편에는 “소동라령은 부 서쪽 60리에 있으며 겹치고 포개진 산맥에 지세가 험하고 외따로 떨어져 구석지고 몹시 으스스하다. 예전에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⁶⁶⁾ 라는 기록이 있는 등 소동라령에 대한 역사기록들은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현재의 한계령이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역사기록에 보면 분명히 오색령, 소동라령, 옛 한계령은 모두 다른 영이었다.



<그림 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44 산천조에 표기된 소동라령 (자료:규장각한국학연구원)

65) 要害, 自本府西去麟蹄境界所等羅嶺三十六里。* 要害 : 적을 막기에는 편리하고 적이 쳐들어 오기에는 불리하게 지세가 험한 곳, 바드라재는 한국고전번역원법(2007년 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고전번역원』의 공식 해석이다.

66) 所冬羅嶺. 在府西六十里. 重巒疊嶂. 地勢險阻. 舊有路通京師. 今廢.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는 마치 오색령(한계령)과 소동라령이 같은 영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의 바드라재[所等羅嶺]가 근거인 양 포장까지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국가기관인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이 2008년도에 발간한 『한국 지명 유래집』에도 한계령이 “옛날에는 소동라령이라고 불리었다”⁶⁷⁾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설악산은 중추가 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여름에 이르러 녹으므로 설악, 설산, 설화산으로 불리었고 소동라령도 같은 뜻으로 지어진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한계령으로 바뀌었다”⁶⁸⁾는 막연하고도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에서 ‘소동라령’을 검색하면 현재의 한계령이 옛 소동라령인 양, 왜곡되어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소동라령의 주변 환경을 살펴서 한계령과 그 의미를 비교하고, 고지도와 문헌을 통해 경계, 하천, 거리 등을 고증하고자 한다. 또한 소동라령을 실사한 기록을 토대로 잘못 알려진 사실과 위치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소동라령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보고자 한다.

II. 소동라령(所冬羅嶺)의 위치와 의미

1. 고지도(古地圖)를 통해서 본 소동라령

소동라령과 오색령, 옛 한계령(동여도 참조)은 명백하게 다른 영(嶺)이었다. 이는 먼저 〈표 1〉과 해동지도(海東地圖)에 표기된 고개 명칭을 보면 오색령, 소동라령은 다른 위치의 영으로 함께 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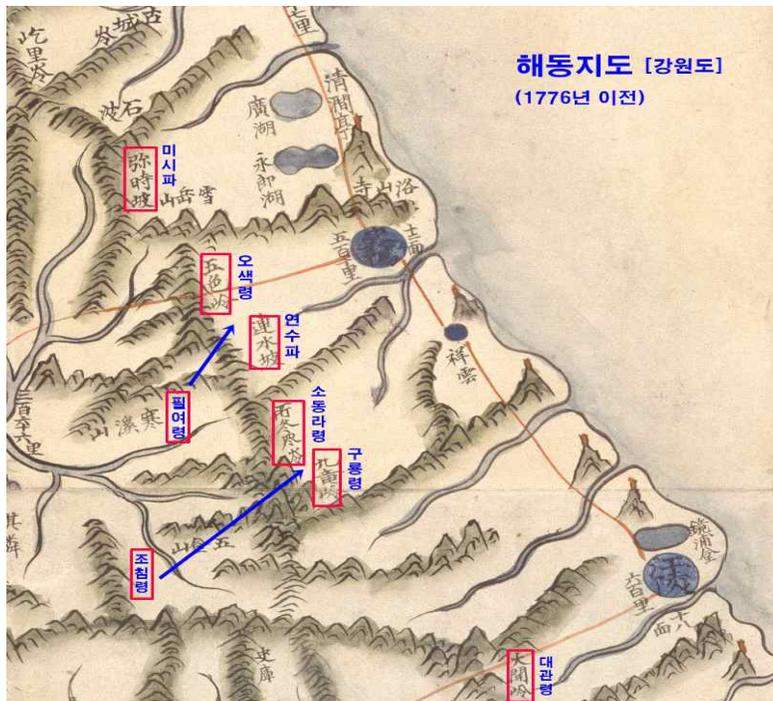
67) 『한국지명유래집』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연구소, 2008. 제5부 강원도 인제군 689p

68) 『지금의 한계령과 오색령에 대한 연구』 최병헌, 2012, <http://blog.daum.net/bhunc1/8224402>



〈표 1〉 소동라령이 표기된 옛 지도들

제 작 년 도	지 도 명	고지도에 표기된 고개 명칭					
		한계령	오색령	필노령	박달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758	팔도지도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776	해동지도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789	여 지 도		오색령		연수령	소동라령	구룡령
1830	좌해지도		오색령		연수파	소동라령	구룡령
1834	청 구 도		오색령	필여령	연수령	소동라령	
1857	동 여 도	한계령	오색령	필노령			구룡령
1776	좌해분도		오색령			소동라령	
1750	해동지도 (인제현)		오색령			소동라령	
1776	지 승 (인제현)		오색령			소동라령	
1800	광 여 도 (인제현)		오색령			소동라령	



〈그림 2〉 「해동지도」에 표기되어있는 양양지방의 백두대간 영 순서



이 영들은 영동에서 영서로 통하는 백두대간을 넘는 영들이기 때문에 지도상에도 북에서부터 남으로 순차적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도는 한눈에 볼 수 있어 글로 기록된 문헌에 비해 영의 좌우 관계를 그르칠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모든 고지도에서 소동라령은 오색령 남쪽, 연수과(박달령)와 구룡령 사이에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동라령은 오색령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지금의 한계령(오색령)이 아니고 현재의 북암령(北巖嶺)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2. 요해처(要害處)인 소동라령(所冬羅嶺)

인제군에서는 지금의 한계령은 소동라령(所冬羅嶺)과 오색령으로 불렀던 것이며, 해동지도에 소동라령을 오색령으로 표기했다고 하는데 <표 1> 을 보면 오색령, 연수과, 소동라령, 구룡령이 순서대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인제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일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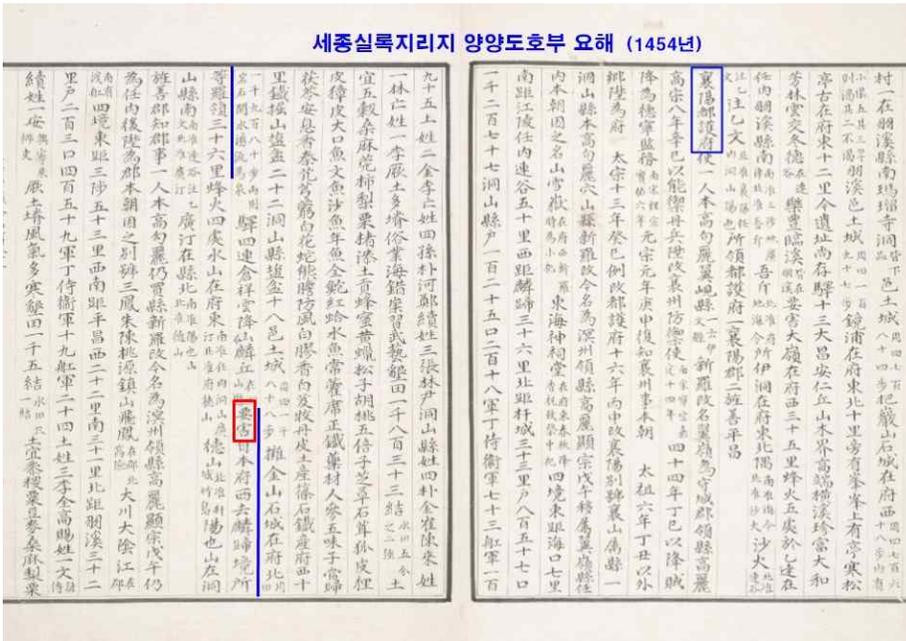
또한 최병헌 전 인제문화원부원장은 “한계령의 옛 이름은 순수한 우리말로는 ‘바드랏재’이고 한문으로 표기할 때는 소동라령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의미를 되새겨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

한국고전번역원법(2007년 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고전번역원』⁶⁹⁾이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편에서 ‘소동라령(所等羅嶺)’을 ‘바드라재’로 번역하였기⁷⁰⁾ 공식적 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번역임을 전제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요해는 본부(府) 서쪽으로부터 인제 경계 바드라재[所等羅嶺]로 가는데 36리이다.” 요해(要害)란 적(敵)을 막기에는 편리하고 적이 쳐들어오기는 불리하여 지세가 험한 곳을 말한다. 부에서 36리 떨어져 있으면 지금의 거리로 약 14km로 매우 가까운 곳 이라야 한다.

69) 2007. 11. 23일 설립, 교육부 소속으로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 업무는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70) 세종실록 지리지 [태백산사고본] 57책 153권 3장 B면 [국편영인본] 5책 676면



<그림 3>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 요해의 소동라령(바드라재)

먼저 요해처(要害處)는 아군에게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적이 대규모로 쳐들어오려면 병력과 장비, 식량, 마초(馬草)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오솔길보다는 대로인 역로(驛路)로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조금만 지식이 있는 장수라면 도로 폭이 2m가 넘는 역로(驛路)를 두고 우마가 다닐 수 없는 오솔길 수준의 영로(嶺路)를 택할 지휘관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소동라령은 성종 24년 이전까지는 역로(驛路)였으니 세종 때는 우마의 통행에 지장이 없었다. 거기에서 소동라령이 폐쇄된 이유가 절험지(絶險地)이고 궁벽지(窮僻地)이기 때문이다. 즉 절벽이 험하고, 외따로 떨어져 있어 몹시 으스스한 곳이기 때문에 적을 막기에는 통행로 몇 곳만 훼손하고 길목을 지키면 되는 곳이다.

그러나 오색령에 우마차(牛馬車)가 겨우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말인 1939년 이후부터다.

거리에 대하여 알아보면 36리는 양양군의 모든 영(嶺) 중에서는 부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소동라령(북암령) 밖에는 없다.

대정 4년(1915)에 측도하여 1918년에 발행한 1/50000 조선총독부 지도를 보면 당시 도로를 짐작할 수 있어 아래 코스인 소동라령 입구까지의 거리를 실측하면 12.8km로



30리가 조금 넘으니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여도비지(輿圖備志)』 권15, 양양도호부의 영로(嶺路)조에 관아에서 서쪽으로 30리에 소량치(所良峙)가 있으며 오색령으로 통하는 도로이다.⁷¹⁾ 라는 기록이 있는데 소량치 즉 서늘재를 넘어서 내려간후 소동라령 입구가 나오니 36리는 타당해 보인다.

▶ 양양부에서 소동라령 입구까지 코스

양양군청(郡廳) ⇒ 서문리(西門里) ⇒ 임천리(林泉里) ⇒ 향현(香峴 : 상평고개) ⇒ 상촌리(上村里 : 상평리) ⇒ 장승리(長承里) ⇒ 흑간리(黑澗里 : 양양철광) ⇒ 소량치(所良峙 : 서늘재) ⇒ 가라피리(加羅皮里) ⇒ 한령(寒嶺 : 빨딱고개) ⇒ 소동라령 입구 ⇒ 소동라령

이것을 종합하면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편의 “요해(要害)는 바로 소동라령으로 우리말로는 바드라재이다. 다만, 인제현 경계가 아니고 기린현 경계임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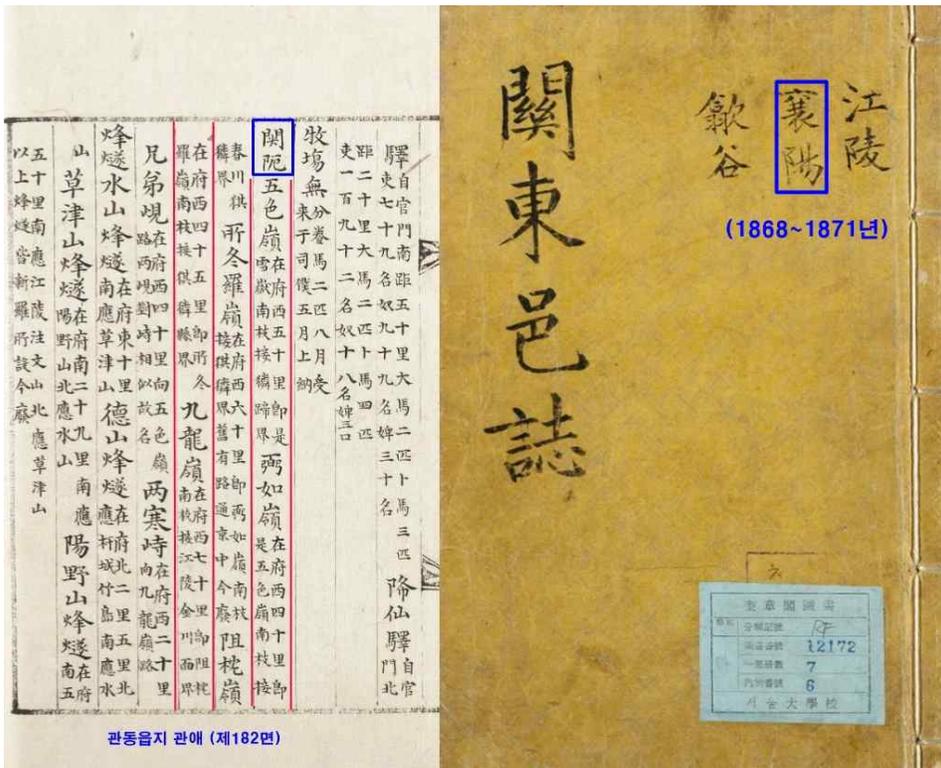
3. 문헌 기록을 통해서 본 소동라령

『여지도서(輿地圖書, 1765년)』의 양양 관애(關陔)편에는 오색령·필여령·소동라령·조침령·구룡령·형제현·양한치 등의 일곱 항목이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 “오색령은 설악 남쪽 가지에 접하고 인제와 경계를 이룬다. 필여령은 오색령 남쪽 가지에 접하고 있으며 춘천 기린계이다. 소동라령은 필여령 남쪽가지에 접해 있고 기린계로 서울로 통하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조침령은 소동라령 남쪽 가지에 접하고 기린계이다. 구룡령은 조침령 남쪽 가지에 접하고 있으며 강릉 금천면과 경계를 이룬다”⁷²⁾라고 기록되어 있다.

71) 所良峙。治西三十里。通五色嶺。

72) 『여지도서』江原道 襄陽 / 關陔편

五色嶺 在府西五十里卽是雪嶽南枝接麟蹄界, 弼如嶺 在府西四十里卽五色嶺南枝接春川 猓界 所冬羅嶺 在府西六十里卽弼如嶺南枝接猓界舊有路通京中今廢 阻沈嶺 在府西四十五里卽所冬羅南枝接猓界 九龍嶺 在府西七十里卽阻沈南枝接江陵 金川面界 兄弟峴 在府西四十里向五色嶺路兩峴對峙相似故名 兩寒峙 在府西二十里向九龍嶺路



<그림 4> 『관동읍지』의 오색령·필여령·소동라령·조침령·구룡령 (자료:규장각한국학연구원)

또한 『관동읍지(1871)』 양양 관애(關陜)편에도 “오색령은 설악산 남쪽 가지에 접해 있고 인제와 경계이고, 필여령은 오색령 남쪽 가지에 접해있고 춘천 기린과 경계하며, 소동라령은 필여령 남쪽 가지에 접해있고 기린과 경계하며 과거 서울로 가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조침령은 소동라령 남쪽 가지에 접해있고 기린과 경계한다. 구룡령은 조침령 남쪽 가지에 접해있으며 강릉 금천면과 경계한다.”⁷³⁾고 적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江原道 襄陽郡邑誌 二)』에도 “소동라령은 부 서쪽 60리에 있다. 즉 필여령 남쪽 가지로 기린과 경계를 이루며, 옛날 서울로 통하던 길이었으나 지금은 폐쇄되었다”⁷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소동라령은 필여령과 조침령 사이에 있었던 영임을 확인할 수 있다.

73) 『관동읍지』관애편

五色嶺在府西五十里卽是雪嶽南枝接麟蹄界 弼如嶺在府西四十里卽是五色嶺南枝接春川棋獐界 所冬羅嶺在府西六十里卽弼如嶺南枝接棋獐界舊有路通京中今廢 阻枕嶺在府四十五里卽所冬羅嶺南枝接棋獐縣界 九龍嶺在府西七十里卽阻枕南枝接江陵金川界面

74) 『江原道 襄陽郡邑誌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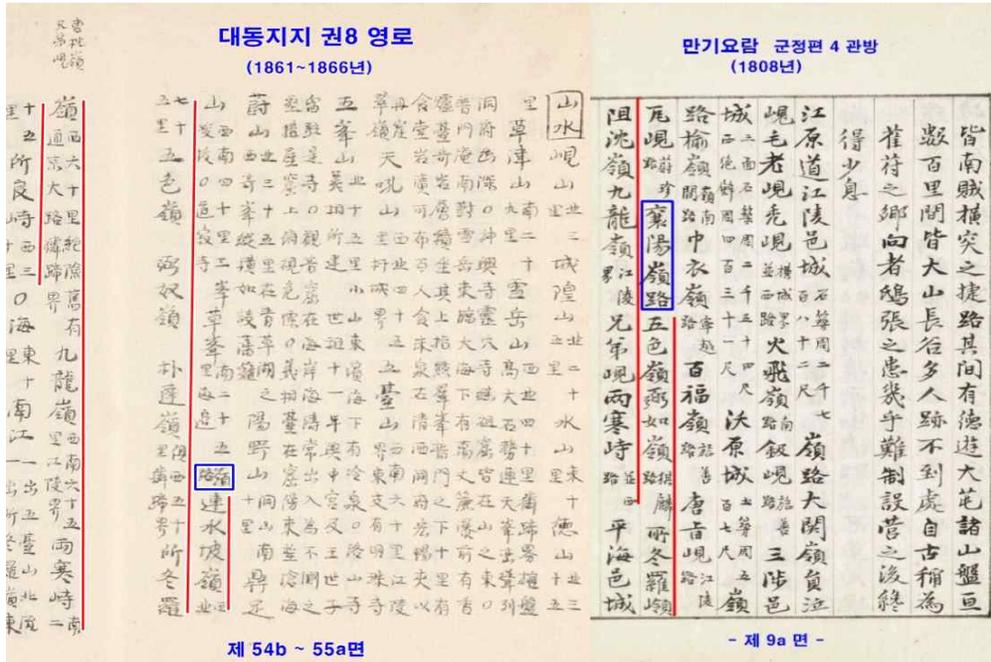
所冬羅嶺 在府西六十里 卽弼如嶺南枝接棋獐界舊有路通京今廢



그러므로 필여령 북쪽에 위치한 현재의 한계령(오색령)은 소동라령이 아님을 여기서도 증명하고 있다.

4. 경계기록을 통해서 본 소동라령

위 문헌뿐만 아니라 『대동지지(大東地志, 1866년)』 양양 영로조(嶺路條)에도 연수과령·오색령·필여령·박달령·소동라령·구룡령·양한치·소량치 등 모두 여덟 개의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그림 5> 『대동지지』 영로조와, 『만기요람』의 양양영로 (자료: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여기에서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오색령, 필노령, 박달령 모두 서쪽 50리 인제계이고, 소동라령은 부 서쪽 60리로 아주 험하며 서울로 통하는 대로였다. 기린계이다”⁷⁵⁾라고 적고 있다. 또한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4(軍政編四) 관방(關防) 강원도편

75) 『대동지지(大東地志)』 양양 영로조

五色嶺 弼奴嶺 朴達嶺 俱西五十里獐蹄界. 所冬羅嶺 西六十里絕險舊有通京大路獐蹄界.



에는 “양양영로(襄陽嶺路)는 오색령·필여령이고, 기린(狷麟)통로는 소동라령·조침령이다. 구룡령은 강릉과의 경계, 형제현(兄弟峴)·양한치(兩寒峙)는 모두 서쪽 통로다.”⁷⁶⁾라고 기록되어 있다. 1829년에서 1831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관동지』 13권에는 “영로(嶺路) 연수과령(현 미시령)은 서북쪽 75리에 있으며 오색령·필노령·박달령은 모두 서쪽 50리에 있는 인제계(麟蹄界)이다.



<그림 6> 「청구요람」의 경계표시 지도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서쪽 60리에 있는 험한 절벽지로 경성으로 통하던 대로로 기린계(麟蹄界)이다. 구룡령(九龍嶺)은 서남쪽 60리에 있으며 강릉계(江陵界)이다.”⁷⁷⁾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역사기록에서 소동라령은 춘천 기린계라고 하고 있어 현재의 인제

76)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4(軍政編四) 관방(關防) 강원도(江原道)

襄陽嶺路 五色嶺 弼如嶺 狷麟路 所冬羅嶺 阻沈嶺 九龍嶺 江陵界 兄弟峴 兩寒峙 并西路.

77) 『關東誌』 제13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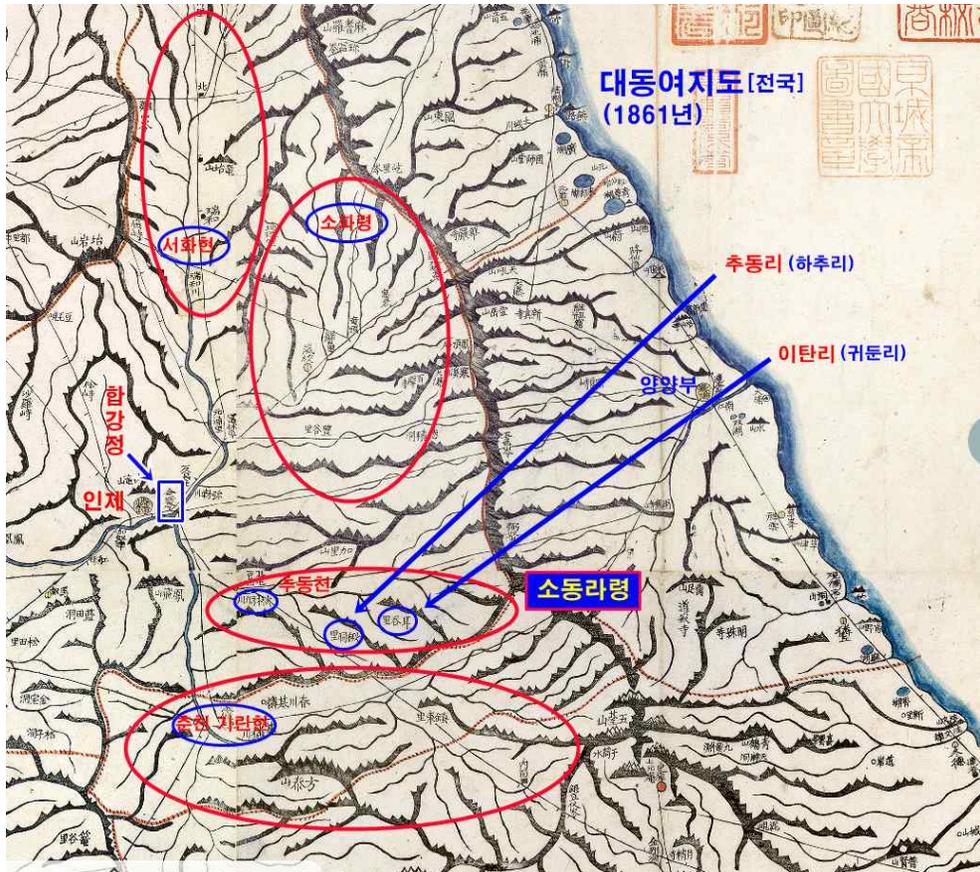
嶺路連水坡嶺西北七十五里五色嶺弼奴嶺朴達嶺俱西五十里麟蹄界所冬羅嶺西六十里絕險舊有通京大路麟蹄界九龍嶺西南六十五里江陵界.



군 기린면 진동리를 경계로 하는 영(嶺)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1863~1907년 발간한 「청구요람」에서 보듯이 귀둔까지는 인제현 관할이었으나, 기린면 진동리는 당시 춘천부 관할의 기린현에 속해 있었고, 구룡령 너머 홍천과 평창의 일부 지역은 강릉대도호부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5. 하천기록을 통해서 본 소동라령



<그림 7> 소동라령의 수계도 (I) / 「대동여지도」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제현편 산천조⁷⁸⁾와 『연려실기술』 별집 16권 총지리, 다산

78)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제현 산천조 彌勒川。在縣東五里。其源有四：一出所冬羅嶺，一出所波嶺，一出瑞和縣，一出春



정약용의 『산수심원기』⁷⁹⁾ 등에 보면 “미륵천은 인제현 동쪽 5리에 있다. 미륵수(彌勒之水)의 원류가 넷인데 하나는 소동라령(所冬羅嶺)에서 나오고, 하나는 소파령(所波嶺)에서 나오고, 하나는 서화현(瑞和縣)에서 나오고, 하나는 기린현(基麟縣)에서 나온다.”⁸⁰⁾라고 기록하고 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보면, 인제로 흘러드는 수계는 금강산 일대에서 발원하여 ‘서화현’으로 나오는 수계, ‘소파령(현 진부령)’ 일대에서 발원하여 원통으로 흐르는 설악산 수계, 오대산 일대에서 발원하여 ‘기린현’을 거쳐 나오는 수계, 나머지 한 수계는 점봉산 일대에서 발원하여 귀둔 지역을 경유하여 나오는 수계로 이 수계가 소동라령 수계이다. 소동라령은 〈그림 7〉과 같이 기린현 진동리를 거쳐 곰배령과 귀둔, 하추리, 고사리(촌), 합강정을 거치는 경로였음을 알 수 있다.

1767년의 「인제현 여지도」, 1776년의 「인제현 지승」, 〈그림 8〉의 1800년의 「인제현 광여도」 등에서도 소동라령은 현재의 한계령이 아닌, 귀둔고관묘, 추동, 고사촌, 임선대, 합강정, 인제현으로 이어지는 영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양지역의 하천 기록을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 44권 양양도호부편에 “남대천(南大川)은 부 남쪽 2리에 있는데 강릉부 오대산(五臺山)에서 나오며 소동라령(所冬羅嶺) 물과 합치고 부 남쪽을 지나 바다로 들어간다.”⁸¹⁾고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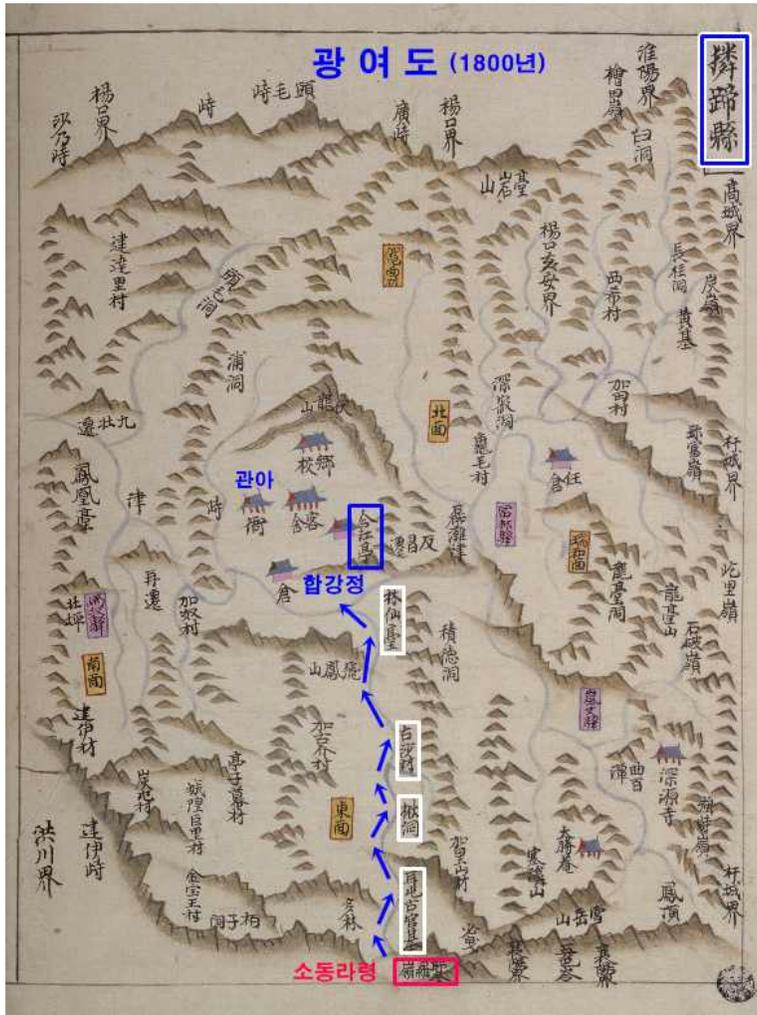
현재 양양 남대천의 본류는 오대산이며 구룡령과 오색령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에 북암령(소동라령)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합류하여 내려오다 양양읍 내에서 오대산 본류와 합류하여 바다로 들어가므로 소동라령은 현재의 북암령으로 불리며 정상을 넘으면 서쪽은 기린현 진동리를 거쳐 귀둔으로 이어지는 영로였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川府基麟縣。

79) 다산문집 제22권 잡평 산수심원기(山水尋源記)

80) 輿覽云彌勒之水。一出所冬羅嶺。一出所波嶺。一出瑞和縣。一出基麟縣。

81)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4권 / 강원도(江原道)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남대川 在府南二里出江陵府五臺山 與所冬羅水合流經府南入海



<그림 8> 소동라령 수계도 (II) / 「광여도」 인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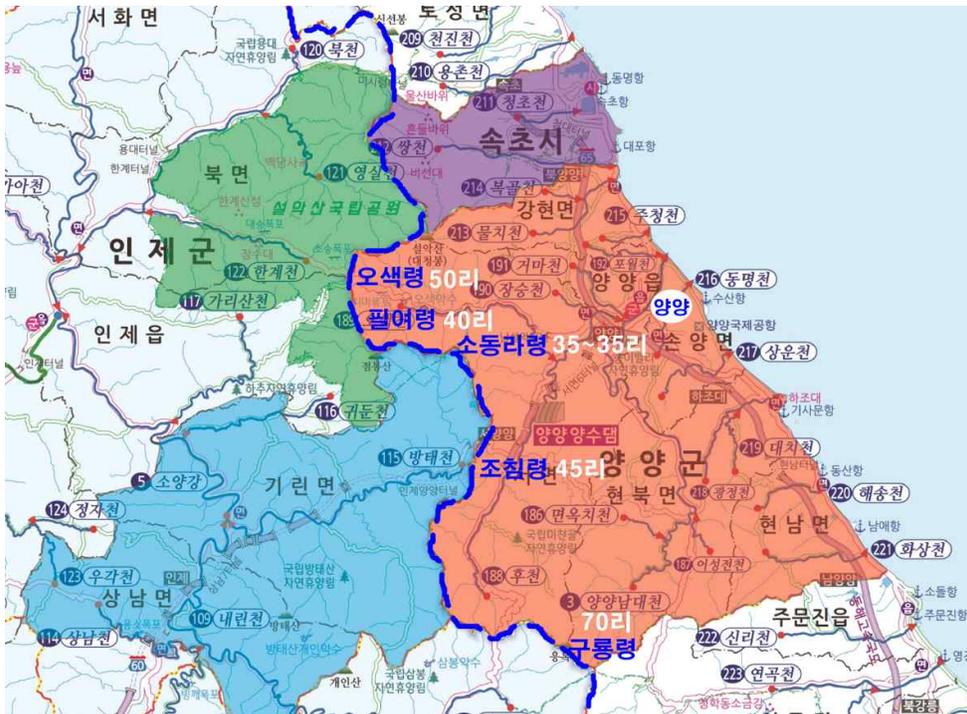
6. 거리기록을 통해서 본 소동라령

지금까지 고지도와 각종 문헌을 확인한 결과 소동라령은 박달령(연수과)과 조침령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부 고지도의 기록을 보면 양양 부에서 소동라령까지의 거리를 60리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에는 거리를 측량하는 기술의 한계도 있지만 영의 입구까지냐, 정상까지냐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양양도호부편에는 “소동라령”을 “소등라령(所等羅嶺)”이라 표기하고 양양부(府) 서쪽 인제 경계로 36리라고 기록하고 있으며,⁸²⁾ 1923년 『양주읍지(현산지)』에는 “소동라령은 부에서 서쪽으로 30리”⁸³⁾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소동라령의 입구까지의 거리임을 앞에서 입증하였다.

이는 『여지도서』와 『관동읍지』 관애편에 오색령은 50리, 필여령은 40리, 조침령은 45리라고 한 점에 비추어 백두대간 능선의 지형으로 볼 때, 필여령과 조침령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소동라령의 진입로는 당연히 양양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의 기록처럼 양양부에서 30리에서 36리가 맞는 기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상까지의 거리를 말한다면 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림 9> 양양에서 백두대간 영까지의 거리

82) 要害自本府西去麟蹄境所等羅嶺三十六里

83) 所冬羅嶺在府西三十里



Ⅲ. 현재 지명과 비교 및 실사

1. 소동라령과 소어령, 북암령

그렇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기록들을 바탕으로 소동라령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 보고자 한다.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유 금강산기』를 보면 “(낙산사에서) 20리쯤 가서 양양부(襄陽府) 앞의 냇가에 이르러 말을 쉬게 하였다. 또 10리를 가서 설악에 들어가 소어령(所於嶺 : 소동라령의 옛 이름) 아래 고개에 오르니, 냇물은 왼쪽에 있고 산봉우리는 오른쪽에 있다. 산기슭을 다 지나 냇물을 건너 왼쪽으로 가니, 산은 맑고 물은 빼어나며 흰 바위가 서로 포개진 것이 대략 금강산 대장동(大藏洞)과 같다.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서 오색역(五色驛)에 이르니 산 위의 달이 이미 흰빛이었다.”⁸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림 10> 오늘날의 지도에 고지도를 연계시켜본 소동라령

84) 至襄陽府前川上歇馬。又行十里入雪岳。陟所於嶺下峴。則川水在左。峯巒在右。過盡山麓。涉川流而左。山明水秀。白石交加。略如金剛山大藏洞。沿流而上。至五色驛。山月已白矣。是日。陸行三十里。山行四十里。



소어령(所於嶺)은 일본인들이 만든 지명으로 지금도 옛 지명인 소어(所於), 소래(所川) 라고 부르며 소동라령의 준말을 소어령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양양에서 오색으로 향하노라면 중간쯤 지점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개가 있다. 일명 발딱고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한령(寒嶺)이라 하였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보이는 마을이 송어리와 송천리인데 두 마을 사이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 북암리(北庵, 北庵里)로 기린면 진동리로 연결되는 대로(大路)에 옛 고갯길이 있다. 지금은 북암령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이 고개의 옛 지명이 소어령 즉 소동라령이다. 이는 박달령이 일본식 한자인 단목령(檀木嶺)으로 바뀌었듯이 북암령이라는 지명도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북애미⁸⁵⁾를 일본식 한자인 북암리로 고친 후, 영의 이름도 일본식 지명인 북암령으로 고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로인 옛길은 있는데 고지도에는 소동라령만 있을 뿐 소어령이나 북암령의 표기는 없다. 그러나 위치가 일치하기에 소동라령의 다른 이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유 금강산기』의 남효온선생도 소어령 아래 고개를 지나 오색으로 갔다고 하고 있어 소동라령 아래 한(寒)고개나 망령(望靈 : 송어리에서 송천을 넘는 재) 고개를 지나 오색으로 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그림 10>에서 보듯이 소동라령은 양양부관아에서 흑간리(양양 광업소 사항골)를 거쳐 소량치와 가라피리를 내려와 망령고개(望靈峙)나 한령을 넘고 송천이나 송어리를 거쳐 지금의 북암령(소동라령)을 넘어 기린현 내 진동리 현 점봉산산림생태관리센터⁸⁶⁾로 산을 내려간 후 곰배령을 거쳐 귀둔, 추동, 고사촌, 합강정을 경유해 인제로 연결되는 영로였다.

2. 현지 실사를 통해서 본 소동라령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5권 강원도(江原道) 간성군편에 보면 “미시파령(彌時坡嶺)은 고을 서남쪽 80리쯤에 있다. 길이 있으나 예전에는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성종(成宗) 24년에, 양양부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다 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⁸⁷⁾고

85) 『한국지명총람』 한글학회, 1967, p217

86) 점봉산산림생태관리센터 : 기린면 진동리 218번지

87)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5권 강원도(江原道) 인제현

彌時坡嶺在郡西南八十里許有舊廢不行 成宗二十四年以襄陽府所冬羅嶺險危復開興路



적고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부 산천조에 “소동라령(所冬羅嶺)은 부 서쪽 60리에 있으며 겹쳐지고 포개진 산맥에 지세가 험하고 외따로 떨어져 구석지고 몹시 으스스하다. 예전에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⁸⁸⁾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과거 소동라령으로 부르던 북암령을 실사한 결과 귀둔〔耳屯, 耳呑〕에서 진동리로 연결되는 곰배령 옛길은 이미 탐방코스가 되어있었다.

기린면 진동리 230번지 일원에서 북암령 정상까지는 완만한 고개이며 일부 도로가 유실되긴 하였으나 옛길의 도로 폭이 2m 정도로 우마차가 다닐만한 대로(大路)였다. 정상에는 이정표를 세웠던 돌무지가 있었다.

“조선시대는 6척(尺)을 1보(步), 360보를 1리(里), 30리를 1식(息)이라고 하고 10리마다 작은 표식을, 30리마다 큰 표식을 세웠다. 30리마다 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일정한 거리마다 돌무지를 쌓고, 장승을 세워 거리와 지명을 기록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였다.”⁸⁹⁾ 영 정상의 돌무지 주변에는 돌이 없는데도 규격이 고른 돌을 쌓은 것으로 보아서 국가에서 관리하던 역로를 표시하려고 일부러 옮겨다 쌓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 현 북암령 정상 표지판과 이정표로 상징되는 옛 돌무지 모습

정상에서 북암리로 향하는 동쪽은 급경사로 계곡을 따라 길이 형성되어 폭우로 많은 구간이 유실되어 있었으나 영로가 폐지된 지 5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일부 구간에

88)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부 산천조
在府西六十里重巒疊嶂地勢險阻舊有路通京師今廢

89) 『양양군지』 양양군, 발행일 2010, 11, 30, 163페이지 교통과 통신



는 도로의 형태가 남아있었다. 노퍽은 진동리 방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2미터 이상은 되어 보였다. 그러나 양양에서 한(寒 : 발딱) 고개나 망령(송천리로 향하는 언덕) 고개를 먼저 넘은 후에 지세가 험하고 궁벽지(窮僻地)라는 소동라령을 다시 올라야 하는 것은 고된 길로 보였다. 특히, 국가가 관리하는 역로(驛路)⁹⁰⁾ 인데도 비만 오면 유실되는 급경사인 소동라령은 관리하기 매우 어려워 결국은 폐지하게 되었다.

지역주민에 의하면 조선말까지도 일반인들은 이 영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며 이를 입증 하듯이 1911년 조선 지지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인제편 영치현명(嶺峙峴名)에 보면 곰배령(丁嶺, 곰배령)을 양양으로 통하는 영로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행자들이 민가에서 숙박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던 원(院)⁹¹⁾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그 기능이 쇠퇴하자 개인이 운영하는 주막(店舍)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진동리에서 길손들이 먹고 자던 주막으로는 갈터 주막, 삼거리주막이 있었으며, 귀둔리에는 버덩말주막, 곰배골주막, 하추리에는 가래울 어주막, 당수터주막, 원대리에 안삽재주막 등이 있었다. 이 구간에 특별히 많은 주막이 남아 있었던 것은 영로를 넘는 길손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IV. 오색역과 소동라령의 관계

1. 오색역의 역할

역(驛)은 역관(驛館)·역참(驛站)·우역(郵驛)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찰방(察訪)의 역무(驛務)는 주로 중앙과 지방관아 사이의 공문서를 전달하고 관수물자를 운송하며 사신 왕래에 따른 숙박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교통로 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였다. 이중 역로(驛路)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수물자의 운송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동라령을 실사한바, 500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 도로 폭이 2m 넘는 곳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다.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경사

90) 국가관리의 역로(驛路)는 오늘날의 국도와 동일한 개념이다.

91) 원(院)은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길목에 설치한 편의 시설이다. 때때로 일반인도 숙식하였다. 원은 대체로 역과 같은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역과 원을 합쳐 역원제라고 한다.



도(傾斜度)와 노폭(路幅), 노면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소동라령 입구에서 정상을 넘어 기린현 진동리 현 점봉산산림생태관리센터까지는 약 12km의 거리로 영의 길이만 30리다. 이 긴 거리를 왜 역로(驛路)로 지정했을까?

태백산맥의 오색 준령 일대는 고도가 1,000m 내외로 짧은 거리를 택하여 영을 넘으면 급경사로 우마차를 운영할 수가 없기에 긴 거리의 산길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으며 긴 거리의 산길인 까닭에 도로의 유지 보수가 어려워 역로(驛路) 운영을 포기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나마 공문서 전달이나 관원의 이동은 말을 타고 오색령이나 다른 영을 넘을 수도 있지만 많은 양의 관수물자 이동에는 우마차가 통행해야 하기에 역로인 소동라령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림 12> 옛 오색역(五色驛) 위치의 현 관터마을

2. 소동라령과 오색역의 변화

오색역(五色驛)의 설치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리 오래도록 유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462년(세조 8) 역제(驛制)를 41역도(驛道) 543속역(屬驛) 체제로



정비⁹²⁾하는 과정에서 오색역(五色驛)은 상운도(祥雲道)를 구성하는 하나의 속역이 되었다.

1477년(성종 8)에는 강릉의 진부역(珍富驛)·횡계역(橫溪驛)·대화역(大和驛)·임계역(臨溪驛)과 양양의 오색역, 인제의 부림역(富林驛) 등이 피폐해져서 역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대로(大路)⁹³⁾의 예에 따라 공수위전(公須位田) 20결을 지급해 회복하게 하였다⁹⁴⁾는 기록이 전한다.

오색역은 1493년(성종 24)에 원암역으로 이설되었기 때문에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 1757년~1765년』 강원도 양양부 편에는 오색역에 관한 기록이 없고 관애(關陔)조에 ‘오색령은 부 서쪽 50리에 있고 설악의 남쪽 지맥으로 인제 경계에 접해있다. 소동라령은 부 서쪽 60리에 있으며 필여령의 남쪽 지맥으로 인제(기린) 경계에 접해있다. 과거에 서울로 가는 도로가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하였다.’⁹⁵⁾라는 기록이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 강원도 간성군 편 역원(驛院)조에는 ‘원암역은 군 남쪽 60리에 있으며 대마 2필, 복마 5필, 역리 11명, 노비 48명, 여종은 없다.’⁹⁶⁾라는 기록으로 보아 성종 연간에 이전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오색역이 원암역으로 옮겨 갔어도 오색령은 본래의 기능을 다하며 남아있었으나 소동라령은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즉 오색역과 소동라령은 같은 기능을 수행한 운명 공동체로 동시에 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제44 양양도호부 산천(山川)조에 소동라령(所冬羅嶺)은 부 서쪽 60리에 있으며 겹쳐지고 포개진 산맥에 지세가 험하고 궁벽지(窮僻地)다. 예전에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고적(古跡)조에는 오색역(五色驛)은 부 서쪽 45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⁹⁷⁾는 기록이 있다.

92) 『조선왕조실록』 세조 8년 임오(1462) 8월 5일(정묘) 병조의 건의로 각도의 역·참을 파하고 역로를 정비하여 찰방과 역승을 두다. 상운역(祥雲驛)·연창역(連蒼驛)·오색역(五色驛)·강선역(降仙驛)·인구역(麟丘驛)·청간역(淸澗驛)·죽포역(竹泡驛)·운근역(雲根驛)·명파역(明波驛)·대강역(大江驛)·고잠역(高岑驛)·양진역(養珍驛)·조진역(朝珍驛)·등로역(登路驛)·거풍역(巨豐驛)·정덕역(貞德驛) 이상 16역은 상운도 역승(祥雲道驛丞)으로 일컬을 것. 찰방은 예전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93) 조선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을 연결할 수 있는 큰 도로망을 개설하였다. 『증보문헌비고』에는 이 도로가 전국에 9개 노선으로 기록되어 있고,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10개 노선으로 기록되어 있다.

94) 戶曹據量田巡察使李克增啓本啓: “江陵 珍富驛·橫溪驛·大和驛·臨溪驛·襄陽 五色驛·麟蹄 富林驛殘敝莫甚, 凡供給必不能支, 請公須位田, 依大路例給二十結, 使之蘇復。” 從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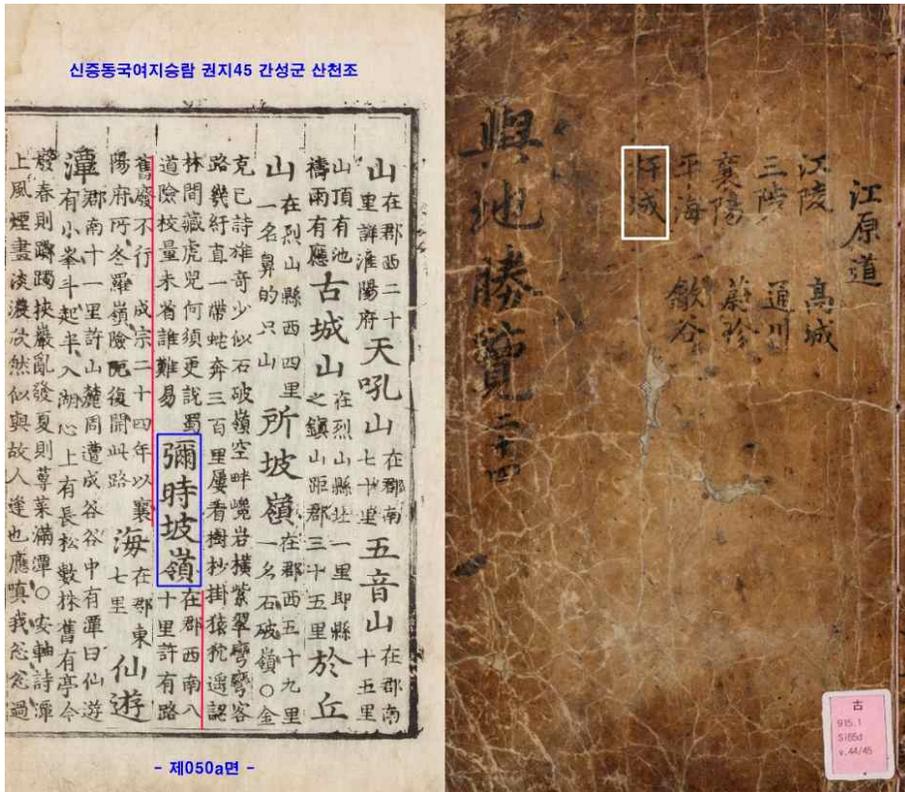
95) 『여지도서(輿地圖書)』 강원도 양양부 關陔: 五色嶺. 在府西五十里. 卽是雪嶽南枝, 接麟蹄界...생략, 所冬羅嶺. 在府西六十里. 卽弼如嶺南枝, 接麟蹄界. 舊有路通京中, 今廢.

96) 『여지도서(輿地圖書)』 강원도 간성군 驛院: 元巖驛. 在郡南六十里. 大馬二匹, 卜馬五匹, 吏十一名, 奴四十八名, 婢無.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제45 간성군 산천(山川)조에 ‘미시파령(彌時坡嶺)은 고을 서남쪽 80리 쯤에 있다. 길이 있으나 예전에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성종(成宗) 24년에, 양양부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다 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 역원(驛院)조에는 ‘원암역(元岩驛) 옛터는 고을 서남쪽 63리에 있었다. 미시파령(彌時坡嶺)의 길이 열리면서 오색역(五色驛)을 철폐하여 여기로 옮겼다.’⁹⁸⁾는 기록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제45 간성군 편 산천조에 미시파령이 왜 소동라령을 대신하고 있는지와 원암역이 왜 오색역을 대신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준다.



<그림 13> 『신증동국여지승람』 간성군 산천조의 미시파령

97)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제44 양양도호부 山川 : 所冬羅嶺。在府西六十里。重巒疊嶂。地勢險阻。舊有路通京師。今廢。古跡：五色驛。在府西四十五里。今廢。
98)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제45 간성군 山川：彌時坡嶺。在郡西南八十里許。有路舊廢不行。成宗二十四年。以襄陽府所冬羅嶺險阨。復開此路。驛院：元巖驛。有舊基。在郡西南六十三里。彌時坡嶺路開。撤五色驛。移于此。



결국 성종 24년에 소동라령(所冬羅嶺)이 역로(驛路)로서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미시과령(彌時坡嶺) 길이 열렸고 이 길을 유지 보수하던 오색역(五色驛)도 간성 원암역(元岩驛)으로 이설되면서 이름도 바뀌었다.

이처럼 오색역은 이설된 뒤 원암역으로 불렸으며, 조선 후기까지 상운도에 속한 역으로 존속하였다. 1896년(건양 1) 1월에 대한제국 칙령 제9호 ‘각 역 찰방 및 역속 폐지에 관한 건’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런데도 1823년에 발간된 『양주읍지(襄州邑誌)』에는 “오색령(五色嶺)은 부(府) 서쪽 70리에 있으며 이를 경유하여 서울로 들어간다. 이는 미시령 길에 비해 50 리나 단축되는데 영(嶺) 아래에 예전에 역(驛)이 있었으나 관터는 비어있다. 골짜기와 냇물이 험하여 간성의 미시과령 입구인 원암(元巖)으로 역을 옮겼다. 영의 북쪽에 온천이 있는데 우윤 박필정(조선 영조 때의 인물로 양양부사와 한성부 우윤을 역임)이 이르기를 고성 금강산의 온정 온천수에 못지않다고 하였다.”⁹⁹⁾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후대 사람들에게 오색령이 오색역과 연관한 역로로서 인식되는 빌미를 제공하여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한다.



<그림 14> 미시령 전경

99) 五色嶺在府西七十里由此入京則比彌坡路短五十里嶺下舊有驛基館墟移峽川之險移驛於杆城之元巖嶺之稍北有溫泉朴右尹弼正以爲湯水之效無減於高城井云.



성종 24년이면 1493년으로 양주읍지 발간 연대하고는 벌써 330년이나 차이가 나
다보니 소동라령(所冬羅嶺)과 오색령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류를 남김으로써 인제(麟
蹄)가 오색령을 소동라령이라고 주장하는 발미를 준 것이다.

오색령은 단 한 번도 역로(驛路)의 역할을 한 적이 없었다.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서 차후에는 실수가 빚어지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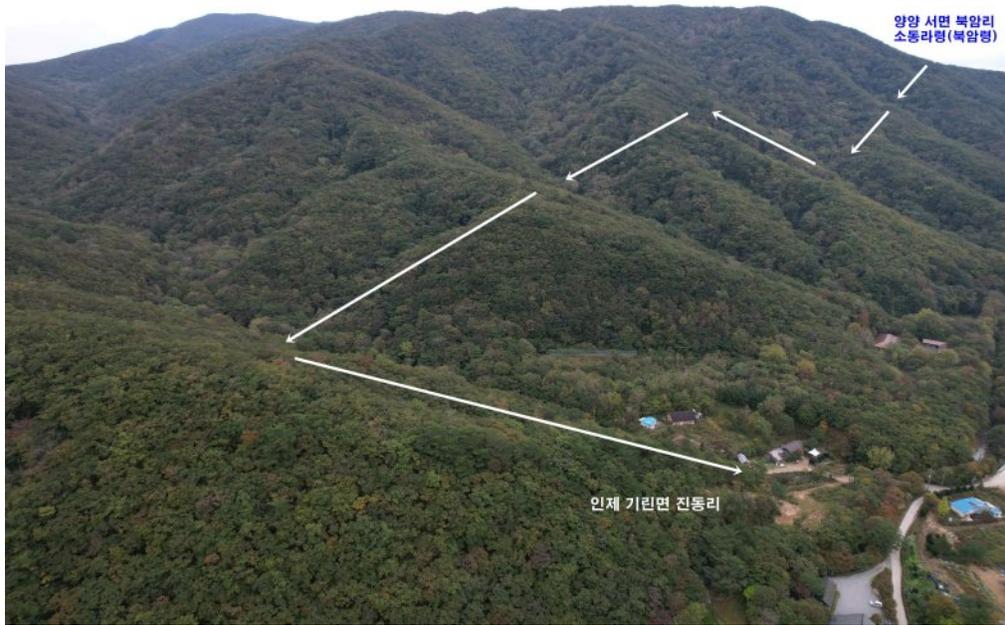
V. 맺음말

고지도, 각종 문헌 등을 확인한 결과 과거의 소동라령, 오색령(한계령)은 일부의 주
장과 달리 모두 서로 다른 영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동라령은 고지도, 고문헌, 경계의 기록, 하천의 수계, 양양부에서의 거리,
현지답사 등을 종합한 결과 현재의 오색령이 아니라, 필여령 남쪽 지맥에 위치한 춘
천부 기린계로 연결되는 영으로, 양양에서 한령이나 망령고개를 넘은 후 송어리나 송
천리를 거쳐 지금의 북암령(北庵嶺, 옛 소어령, 소동라령)과 기린계 진동리, 곰배령(곰
배고개)에서 합강정, 인제로 이어지는 영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색역은 오색령으로 넘는 관원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편의는 제공하였만 보다 근
본적인 업무는 소동라령으로 진상품과 관수물자 운반이 주요한 업무였다. 따라서 소
동라령을 통하여 서울로 운반하는 기능이 폐지되고 그 기능을 미시파령이 대신하게
되자 오색역도 원암역으로 옮겨 가서 새로운 역로의 지원을 계속하였음을 확인하였
다. 오색역이 옮겨진 후에도 오색령은 영로로서 여전히 남아있었다.

오색령은 역로(驛路)가 아닌 영로(嶺路)일 뿐이었고 미시파령(彌時坡嶺)으로 옮겨가
기 이전까지 양양부의 유일한 역로(驛路)는 소동라령(所冬羅嶺)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
조한다.



<그림 15> 인제 기린면 진동리에서 본 소동라령

제5장

조침령(鳥寢嶺)



조침령로 전경





I. 머리말

과거에 양양군 서면 서림리에서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로 가는 조침령(鳥寢嶺)은 선 짚꾼이나 마꾼의 바꾸미 길이었다. 그런데 418번 지방도가 개통되면서 옛 조침령은 주로 구룡령에서 출발하여 갈전곡봉(1,204m) ⇒ 조침령 ⇒ 북암령 ⇒ 단목령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의 종주(縱走) 길로 이용 된다. 지방도가 개통된 후 옛 조침령은 도로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영(嶺)의 높이는 770m이나 조침령로가 2차선으로 개통되면서 영마루까지 다 오르지 않고 8부 능선에 조침령 터널을 개통함으로써 높이가 600m로 대폭 낮아졌다. 터널 개통으로 쓸모없어진 터널 위쪽의 조침령 옛길은 백두대간 숲길로 복원되어가고 있다.

과거 조침령로는 인마(人馬)만 다니던 셋길이 따로 있었는데 1984년 11월 22일 군 인들에 의해 지금의 노선과 비슷하게 비포장의 험한 고갯길로 만들어졌다.

그 이후 1990년대 들어 양양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이 추진되면서 상부댐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도로 개설이 추진되었는데 IMF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다가 사업비 중 일부를 한전(현재 한국중부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2001년 공사를 시작하였다. 양수발전소의 하부댐(양양군 서면 영덕리)에서 상부댐(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으로 바로 가려면 조침령을 거쳐야 한다. 2006년에 조침령 터널을 포함한 조침령로 전 구간이 개통되어 양양에서 인제군 기린면으로 가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현 조침령로는 56번 국도인 구룡령로를 가다가 서림삼거리에서 북쪽으로 오르면 된다. 이 길로 390m 정도 오르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서림 2교를 만나는데 서림 2교 서쪽 서울 방향에 국내에서 가장 긴 것으로 알려진 “인제양양터널”이 있는데 무려 약 11km이다.

기린면 진동리는 행정구역상 인제군에 속하지만 예전부터 이곳 사람들은 양양과 왕래가 잦았다. 지금도 양양 5일장을 보러 다니는 것은 물론 교통이 편리해지자 양양군의 교육도서관, 문화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등을 적잖이 이용한다. 양양 서림리 조침령 입구에는 진동리로 배달되는 택배보관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진동리 일대 처녀들은 길이 험한 조침령 옛길로 가마를 타고 양양 서면 지역으로 시집을 왔다. 진동리는 고랭지여서 감나무가 자라지 못하는데 그



지역 처녀들이 감이 먹고 싶어 영 너머로 시집을 온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이렇듯 양양과 인제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조침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침령의 고찰

1. 고문헌 속의 조침령

숙종대에 홍주목사(洪州牧使)를 역임한 양와(養窩) 이세구(李世龜, 1646~1700년)가 1691년 10월 3일 관동지방의 4개 군을 여행하면서 지은 기행문 「동유록(東遊錄)」이 『양와집(養窩集)』에 실려 전하는데 “조침령의 북쪽은 오색령이다. 그 동쪽은 양양(襄陽)이고 서쪽은 인제(麟蹄)이며 오색령 북쪽은 미시파령(미시령)을 이룬다.”¹⁰⁰⁾라고 적었다. ‘조침(曹砧)’령이라는 명칭으로는 이 기록이 처음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1> 『양와집』 12/13책 「동유록」의 조침령 (자료:규장각한국학연구원)

100) 『양와집(養窩集)』 十三冊 東遊錄 / 曹砧之北爲五色嶺。其東則襄陽。西則麟蹄。五色之北爲彌時坡嶺。



<그림 2> 『여지도서』 관아조의 조침령

1757년(영조 33)에서 1765년(영조 41) 사이에 전국 각읍(各邑)에서 작성한 읍지를 모아 관찬(官撰)한 『여지도서』 관아조(關陔條)에도 조침령(阻沉嶺)이라는 명칭 나오는데, 조침령은 “관아 서쪽 45리에 있으며 소동라령(북암령) 남쪽 줄기로서 기린현 경계에 접하고 있다”¹⁰¹⁾라고 기록하고 있다.

1808년(순조 8)에 호조판서(戶曹判書) 서영보(徐榮輔)와 부제학(副提學) 심상규(沈象奎)가 비국유사당상(備局有司堂上)¹⁰²⁾으로 있으면서 왕명을 받들어 찬진(撰進)한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양양영로(襄陽嶺路)는 오색령·필여령. 기린(猗麟)통로는 소동라령·조침령. 구룡령은 강릉과의 경계. 형제현(兄弟峴)·양한치(兩寒峙)¹⁰³⁾ 모두 서쪽 통로다.”¹⁰⁴⁾라 기록되어 있다.

101) 『여지도서』 關陔：阻沉嶺。在府西四十五里。卽所冬羅南枝，接猗麟界。

102) 비변사(備邊司)를 비국(備局)·묘당(廟堂)·주사(籌司)라고도 불렀는데 그 관원 가운데서도 군사에 정통한 4인을 뽑아 유사당상(有司堂上)이라 하였다.

103) 양한치(兩寒峙)는 56번 국도에 위치한 고개로 서면 영덕리 양수발전소 홍보관 동쪽 고개로 큰 한치(大寒峙)와 작은 한치(小寒峙) 두 고개를 묶어서 양한치라고 한다. 국도로 건설되기 이전에는 개미허리같이 폭이 좁고 고개 아래쪽 골짜기는 매우 깊어 우마차로 이곳을 지나는 사람에게는 오싹한 기분이 든다고 하여 한치(寒峙)라 하였다 한다.

104)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4(軍政編四) 관방(關防)에 襄陽嶺路 五色嶺 弼如嶺 猗麟路 所冬羅嶺 阻沈嶺 九龍嶺 江陵界 兄弟峴 兩寒峙 并西路.



〈그림 3〉 양한치(큰양한치, 작은양한치) 전경

1822년~1826년에 편찬된 『관동지(關東誌)』 관애조(關陔條)에도 조침령(阻枕嶺)은 “관아 서쪽 45리에 있으며 소동라령(북암령) 남쪽 줄기로서 기린현 경계에 접하고 있다”¹⁰⁵⁾라고 기록되어 있다.

1871년(고종 8)에 발간된 『관동읍지(關東邑誌)』 양양부 관애조(關陔條)에도 조침령(阻枕嶺)은 “관아 서쪽 45리에 있으며 소동라령(북암령) 남쪽 줄기로서 기린현 경계에 접하고 있다”¹⁰⁶⁾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기록으로 미루어 조침령은 소동라령과 구룡령 사이에 있으며 춘천부의 기린현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조침령 이름에 대한 고찰

한글 표기로는 문헌 모두 ‘조침령’이지만 한자 표기는 다양하다. 1691년 양와 이세구(李世龜)의 『양와집(養窩集)』 「동유록(東遊錄)」에는 ‘조침령(曹砧嶺)’으로 되어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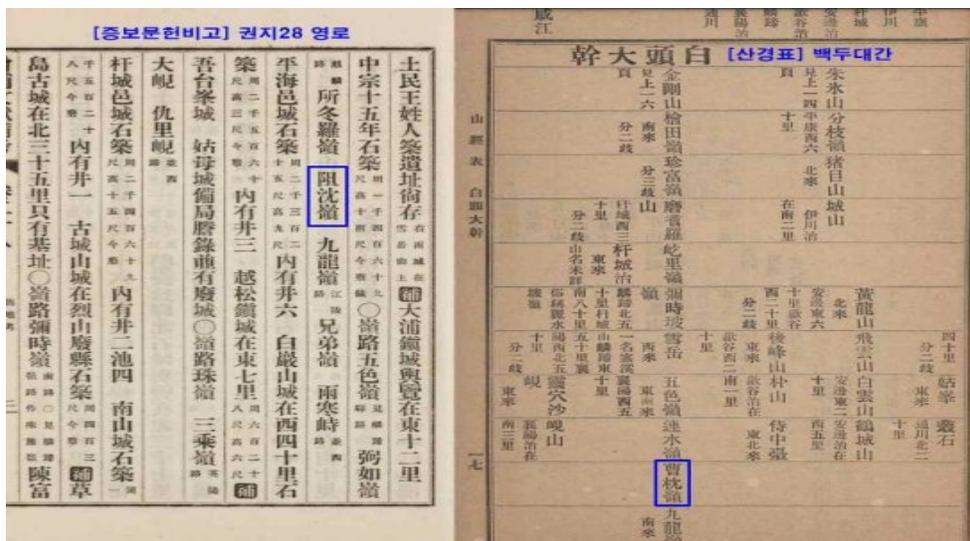
105) 『관동지』 關陔：阻枕嶺。在府西四十五里。卽所冬羅南枝，接麒麟界。

106) 『관동읍지』 關陔：阻枕嶺。在府西四十五里。卽所冬羅南枝，接麒麟界。



“한 덩어리의 모탕 같은 영”이란 뜻이다. 즉 조(曹)는 덩어리나 무리를 뜻하며, 침(砧)은 모탕을 뜻한다. 모탕이란 도끼로 나무를 썰 때 바쳐 놓는 나무인데 하도 도끼를 맞아서 가운데가 움푹 파인 형태이다.

『여지도서』에는 조침령(阻沉嶺)인데 “지세가 험하며 가라앉은 영”이란 뜻이다. 『증보문헌비고』는 영조(英祖) 대인 1770년에 편찬을 시작하여 1782년 정조(正祖) 대에 보완·증보되어 이어오다가, 1908년에 간행되었는데 조침령(阻沈嶺)으로 표기된 침(沉)자는 침(沈)자의 속자(俗字)이다.



〈그림 4〉 『증보문헌비고』, 『산경표』의 조침령

영조(英祖) 때 신경준이 편찬한 지리서인 『산경표』와 1750~1768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지도」에는 조침령(曹枕嶺)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양와집(養窩集)』 「동유록(東遊錄)」의 ‘조침령(曹砧嶺)’에서 침자만 베게 침(枕)으로 바뀌었다. 베게도 역시 가운데가 잘록하니 같은 뜻이라 하겠다.

1737~1776년에 제작된 「광여도」에는 조침령(阻枕嶺)으로 썼는데 “지세가 험하여 타고 넘는 영”이라는 의미이다. 조침령의 정상이 영의 좌우측(左右側)보다 낮아 말안장 모양의 안부(鞍部)로 보면 한자(漢字)를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 50,000분의 1 지형도에는 조침령



제1편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서쪽 영로(嶺路)

(鳥砮嶺), 1919년에 편찬된 『조선지리지』는 조침령(鳥沉嶺)으로 각각 다른 한자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새가 넘는 잘록한 영”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림 5> 「조선지도」의 曹枕嶺과 「광여도」의 阻枕嶺

백두대간 표지석에는 조침령(鳥寢嶺)으로 표기하였는데 “새들도 자고 넘는 고개”로 다분히 문학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요약해보면 조침령의 한자 표기 과정은 다음과 같다.

- 曹砮嶺 → 阻沉嶺 → 曹枕嶺 → 阻枕嶺 → 鳥砮嶺 → 鳥沉嶺 → 鳥寢嶺

Ⅲ. 조침령로의 변화

1. 옛 조침영로

조침령은 양양군 서면 서림리와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를 연결하는 고개로 주로 소금을 지고 넘나들었다고 한다. 조침령도 구룡령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길이 본래의 옛



길이 아니다.

본래의 옛길은 지금의 조침령로보다 1.7km 남서쪽에 위치한 쇠나드리 고개가 옛 조침령이었다. 이 길은 서림삼거리에서 조침령로 서쪽 골짜기로 오르면 옛 조침령 정상인 '쇠나드리'로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바람부리'라고 불렀는데 같은 곳으로 보기도 한다. “소도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힘차게 불어 '쇠나드리'라 한다.” 는 설과 “소 풀이 많아서 그 풀을 뜯어 먹기 위해 소가 나들이 간다.” 는 뜻에서 '쇠나드리'로 부른다.” 고도한다. 쇠나드리 정상에서 진동리로 내려가면 '쇠나드리교'¹⁰⁷⁾로 나온다.



<그림 6> 인제 기린면 진동리 쇠나드리교

거꾸로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서 조침영로를 타면 옛 조침령 입구(기린면 진동2리)까지는 10여km로 도로 옆으로 방태천이 흐른다. 또한 도로변에는 방태산 휴양림과 방동약수로 가는 길이 있다. 쇠나드리교 인근에서 옛 조침령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이곳부터 산행을 시작하면 15분이면 옛 조침령 고갯마루(쇠나드리)에 닿을 수 있다. 그러나 서면 서림리로 내려가는 계곡은 가파르고 험난하다. 1983년까지는 조침령이라 불렀는데 이제는 '쇠나드리'다.

옛날에는 선질꾼들이 하루에 50여 명씩이나 넘었다고 한다. 그들은 양양에서 소금

107)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21번지 인근



이나 어물 등을 사서 지계에 지거나 말에 싣고 인제 땅에다 팔았다. 저울대를 짊어지고 조침령을 넘으면 진동리까지 70리 길이었다. 옛 조침령 정상(쇠나드리)에서 현재의 정상까지는 2km 거리로 가파르지 않은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연결된다.

옛날에는 쇠나드리를 조침령이라 하고 지금의 조침령은 '반부득 고개'라 불렀다.



<그림 7> 군부대에서 세운 옛 조침령 표지석

2. 군사도로

군부대가 만든 군사도로는 418번 지방도의 전신으로 3군단 공병여단이 1983년 6월 10일 착공하여 1984년 11월 22일 완공한 도로이다.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서 양양군 서면 서림리까지 21km의 임도를 군사 도로로 개설하면서 진동리와 서림의 거리가 급격히 좁혀들며 왕래가 손쉽게 되었다.



이 길은 비포장이라 해도 선질꾼에게는 신작로였기에 옛 조침령 고갯길을 힘겹게 넘을 필요가 없었다.

공사를 마치고 군부대에서 강들을 주어다 시멘트와 배합해서 단을 쌓고 그 위에 돌을 얹어 표지석을 세웠다. 2007년 10월 25일 이 도로 정상에 인제군 국유림관리소에서 새로운 표지석을 세움으로써 옛 표지석이 되었다.

3. 418번 지방도

418번 도로는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서 인제군 기린면 진방삼거리를 잇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도(地方道)이다.

가. 조침령로(鳥寢嶺路)

인제군 기린면 진방삼거리 현리교 입구에서 ~ 양양군 서면 서림삼거리까지를 “조침령로”라 하며 약 27km에 달한다.

2006년에 조침령 터널을 포함한 조침령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실제 조침령로인 서림삼거리에서 진동삼거리까지는 약 6km이며 조침령 터널 길이는 1.145km이다. 서림삼거리에서 조침령 터널 입구까지는 약 4.2km이다.

현재 양양에서 서쪽 영으로 통행하는 포장도로는 오색령, 조침령, 구룡령이 있는데 조침령 포장도로가 개통되기 전 인제읍에서 양양까지 오색령을 경유하면 1시간 30분인데 반해 조침령이 포장되면서 30분이 소요되어 약 1시간가량 단축되었으며, 거리 또한 83km에서 43km로 40km가 단축되었다.

나. 서면 서림리 ~ 현북면 면옥치리

이 구간은 비포장 임도다. 사실상 통행 불가 구간으로 현재 확장 및 포장 계획이 없다. 현재 이 구간은 임도로 지정되어 있어 봄, 가을, 겨울에는 바리케이드를 쳐서 통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서림에서 어성전까지 가려면 56번 국도와 59번 국도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확장이나 포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다만 이 구간의 도로 개설을 대비하여 서림삼거리에 단절된 형태의 사거리가 만들어져 있다. 지금은 이곳을 조침령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파열의 위험을 대비한 임시 충격흡수시설로 쓰이고 있다.

다. 송이로(松茸路)

418번 지방도 중 송이로로 지정되어 포장된 2차선 도로는 현북면 면옥치리에서 어성전리, 명지리, 상광정리, 중광정리를 지나 하광정리 7호선 국도와 만나는 지점까지이다.

IV. 조침령로의 이용실태

1. 옛 조침령로 쇠나드리

현 조침령로(418지방도로)가 포장되기 이전의 옛 조침령(쇠나드리)은 양양군 서면 서림리에서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로 넘어가는 백두대간의 고개로 진동리와 방동리 일대 주민들이 양양으로 장을 보러 다니던 길이기도 했다.

진동리에서 정상의 바람부리 쪽에서 쇠나드리를 넘어 옛길을 통하여 서림으로 내려가는 계곡은 온갖 산나물과 야생화 군락지로 봄에는 계곡 전체가 꽃밭이 되며 야생화가 만개하면仙境(仙境)이 따로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계곡 가장자리를 따라 계속 내려오다 보면 군데군데 축대가 남아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목재 반출을 위해 만든 산판(山坂)길 흔적이라고 한다.

과거 영을 넘나들던 장사꾼들은 인제에서 양양(영동)으로 넘어올 때는 발곡식인 콩과 팥 등을 싣고 오고 양양에서 조침령을 넘어 인제로 갈 때는 소금, 고등어, 콩치, 미역 등을 가지고 가는데 주로 소금에 절인 고등어를 많이 가지고 갔다.

선질꾼 1명의 짐은 대략 쌀 한 가마니인 100근(60kg) 정도의 짐을 지고 영을 넘어 다녔으며 힘이 좋은 선질꾼은 한 번에 고등어 100마리나 소금 한 가마를 지고 다녔다고 한다.



<그림 8> 옛 조침령 입구 서림 삼거리

이들은 대부분 양양 서림에서 인제 기린까지의 약 6~7군데의 주막에서 묶는데 밥값은 당시 화폐로 10~15전(9,600원~14,400원)¹⁰⁸⁾을 받았다고 한다.

서림리에서 옛 조침령으로 올라가는 골짜기 입구에는 마꾼이 말과 함께 묶을 수 있는 마방터(구룡령로 2081 일대)가 있었으며 조침령 정상인 쇠나드리에도 마방이 있었다. 마꾼이나 선질꾼은 취급하는 품목이 같으며, 마꾼의 경우에는 말 한 마리가 선질꾼의 약 3배가 넘는 짐을 싣고 다닐 수 있었다. 콩과 팥을 각 10말씩 총 20말을 싣고 다녔다. 마꾼 행렬이 많은 경우에는 한 번에 20여 명이 약 25필 정도의 말을 몰고 다녔다. 이들은 선질꾼보다 더 많은 물건을 운반하기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지에서는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였다. 마꾼은 8.15해방 전후로 모두 없어졌다.

당시 인제로 통하는 영로(嶺路) 중에서는 주로 조침령과 박달령을 많이 넘어 다녔다. 조침령은 말은 다니기 쉬우나 거리가 멀었고, 단목령(박달령)은 말이 다니기에는 험하지만 거리가 짧아서 바꾸미들이 이 영을 넘나들었다. 특히 진동리(설피밭)는 한 때 약초 재배가 성행하면서 약초를 판매하려는 농장주가 많이 넘어 다녔다.

108) 1910년 당시 화폐가치는 금본위제로 환산하면 1원은 순금 2푼(750mg)의 가치로 발행되었으므로 1푼은 0.1돈이니 0.375g이다. 2024년 10월 현재 금 1돈에 480,000원이므로 당시 1원은 현재 96,000원의 가치이다. 따라서 당시 밥값 10전은 9,600원이고 15전은 14,400원으로 어렵하여 환산된다.



<그림 9> 조침령 정상

2. 현 조침령로

1984년 이후부터는 비포장 군사 도로를 이용하다가 2006년부터는 770m의 고개가 600m로 낮아지면서 모든 것은 차로 운반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조침령 마루금은 백두대간을 종단하는 대간꾼들의 발길만이 이어지는데 오색령에서 단목령(박달령)까지 거리는 약 13km, 단목령에서 북암령(소동라령)까지는 2km, 북암령에서 조침령까지는 7.3km, 조침령에서 구룡령까지는 22.4km로 인터넷에 종단 후기와 코스를 안내하는 글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조침령과 구룡령은 자전거 힐클라임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라이더에게는 손에 꼽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매년 대회가 열리기도 하지만 한 번 도전하면 쉽사리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높고 험한 지형이라 완주의 자부심이 대단한 곳이다.

극한의 짧은 업(up)힐(hill)에는 조침령이 제격이며, 구불구불한 끝없는 오르막길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다면 구룡령이 최고의 코스이다.

조침령은 마치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듯 고개가 우뚝 솟아있어 라이더들은 이 고개의 모습을 보고 일명 ‘뺨침령’이라고 한다. 오르막이 보통은 11~16% 내외의 경사로 극한을 이룬다. 서림삼거리에서 조침령의 정상인 터널까지는 약 4.2km로 처음에



는 직선의 길고 높은 경사도를 이루고 있으며, 이후부터 정상까지는 거의 300도 이상의 코너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에 서면 막힘없이 뺨 뚫린 시야가 시원하게 펼쳐지며 긴 업, 험에 지친 마음을 위로한다.



<그림 10> 눈 덮인 조침령 모습

V. 맺는 말

인제 진동리에서 군사도로로 정상 삼거리에 올라 단목령 방향으로 150m를 가면 헬 기장이 나오고, 다시 100m를 더 이동하면 1984년에 공병여단에서 만든 조침령 표지석이 나온다. 이곳에서 50m를 더 가면 2007년 10월 25일 인제 국유림관리소에서 세운 '백두대간 조침령(鳥寢嶺)이라고 쓴 대간석(大幹石)에 이르게 된다.

조침령 표지석 뒤편에는 백두대간 조침령(770m)은 백두에서 지리산까지 1,400km의 중간지점이라 새겨있다. 그러나 산림청 관계자는 “전체 백두대간의 정중앙지점은 휴



전선 북쪽으로 40km 올라간 강원도 평강군 지점이고 남한 구간의 정중앙지점은 오미자(五味子)로 유명한 문경시 동로면 황장산(1,077m) 별재 부근이다.”라고 밝혔다.

옛 조침령은 선질꾼과 마방이 사라지면서 바꾸미 길의 기능을 잃었기에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터널 개통으로 쓸모없어진 조침령 옛길은 백두대간 숲길로 복원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내면서 남긴 자취는 세세손손 전해 주어야 한다.



<그림 11> 2007년 산림청이 세운 조침령 표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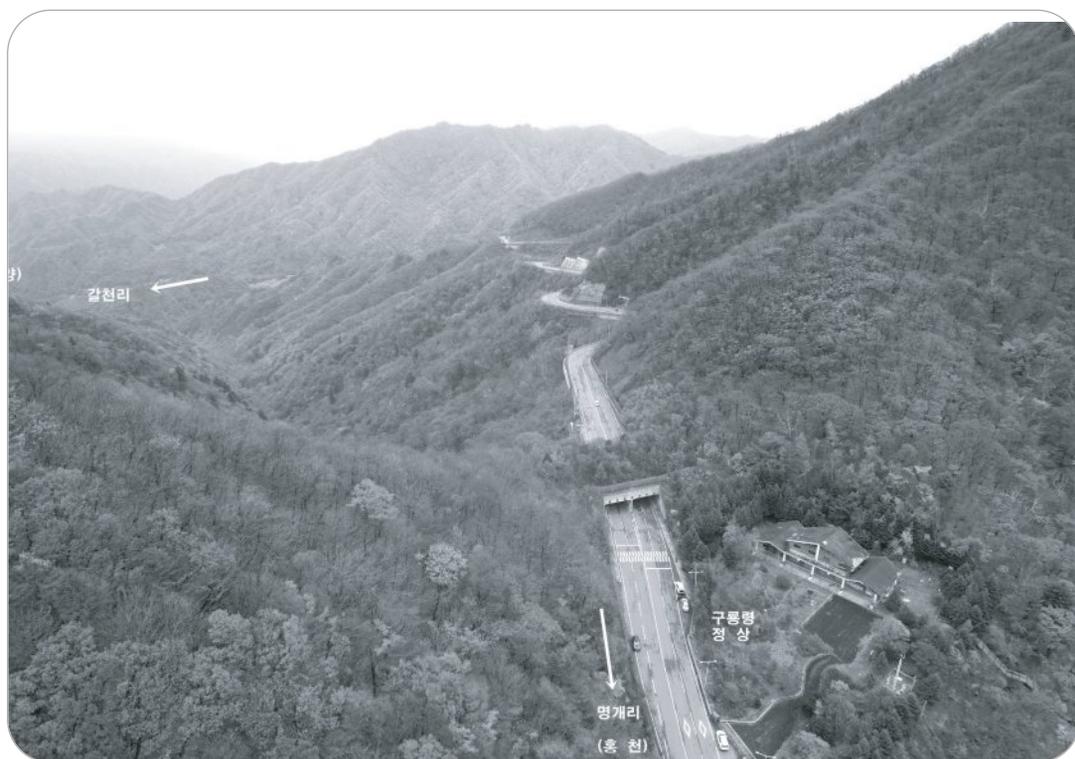
『정감록』에서는 강원도 홍천과 인제의 골짜기 중 일곱 곳을 들어 “3둔 4가리”¹⁰⁹⁾라 하였다. 흉년과 전염병이 없고, 전쟁과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평피아, 우리나라 최고의 피난처가 바로 우리군의 영로와 연결된 장소들이다. ‘둔(屯)’은 골짜기가 깊어 사람 몇이 숨어 살 만한 작은 은둔처를 가리키고, ‘가리 [耨]’는 화전을 일구어 밭갈이할 만한 곳으로, 난세를 피해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3둔은 구룡령 너머로 내린천 상류인 홍천군 내면에 있는데 살둔(生屯), 달둔(達屯), 월둔(月屯) 세 곳을 지칭하고, 4가리는 박달령, 북암령, 조침령 너머의 인제군 기린면의 진동계곡인 진동리와 방동리에 있는데 아침가리(朝耨洞), 연가리(煙耨里), 적가리(適巖洞), 명지가리 [큰소(沼)가 있던 마을로 명지동(明池洞)] 이다.

영로의 확·포장으로 이제 신비의 3둔4가리도 세상을 헤집고 나올 날도 머지않았다.

109) 『鄭鑑錄』 피장처(避藏處), 삼재불입지처(三災不入地處) : 물·불·바람 세 가지 재난이 들지 않는 곳.

제6장

구룡령(九龍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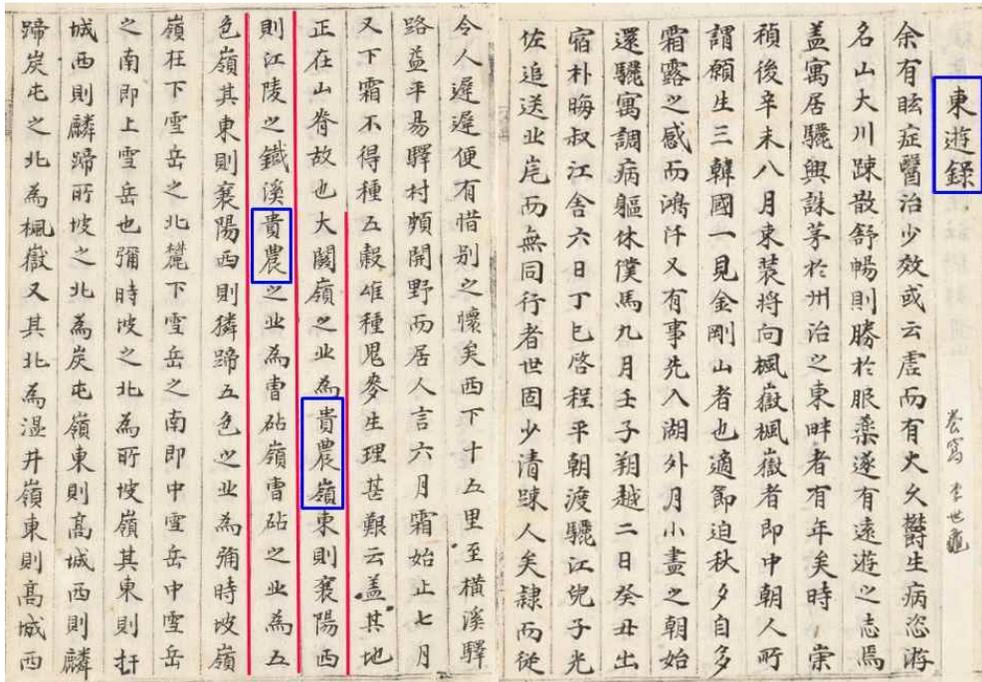
구룡령 전경





I. 이름의 유래

구룡령은 지그재그 모양으로 길을 낸 것이 마치 구불구불한 용 아홉 마리가 하늘로 오르는 형상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려시대에는 ‘구름을 잡는 높은 고개’라는 뜻의 구운령(拘雲嶺)으로 불렸다. 구운령(狗雲嶺)이라는 설도 있다. 양양 갈천에 사는 장가를 못 간 어느 총각이 흥친 처녀 한 명을 보쌌하여 영을 넘어오던 중 구름이 짙어져 길을 잃어 당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각이 집에서 키우던 개가 나타나 구름을 뚫고 길을 안내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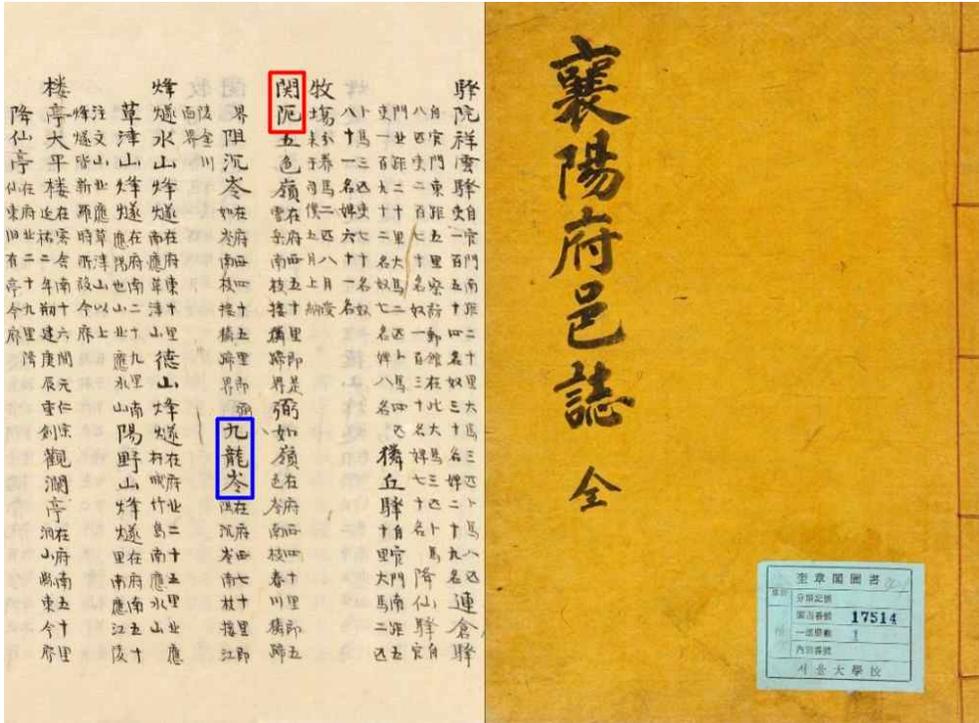


<그림 1> 『양와집』 13책 「동유록」에 표기되어있는 귀농령(貴農嶺)

조선 중기의 문신 이세구의 시문집 『양와집(養窩集)』 제13책 「동유록(東遊錄)」에는 귀농령(貴農嶺)으로 표기되기도 하였으나, 『양양부읍지』와 「비변사인방안지도」 등에 구룡령(九龍嶺)으로 표기되었고, 1860년대의 「대동여지도」와 『대동지지』에도 구룡령으로 표기되어 현재에 이른다. 서해에서 동해를 찾아오던 아홉 마리 용이 이 고개를



넘다 지쳐서 엎드린 자세로 갈천약수에서 목을 축인 후 동해로 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고개이다.



<그림 2> 『양양부읍지』 관애조의 구룡령 (규장각한국학연구원)

II. 구룡령의 변화

1. 두 개의 구룡령길

구룡령길은 두 개이다. 둘 다 양양군과 홍천군을 잇는 길이지만 하나는 56번 국도이고 다른 하나는 트레일로 유명한 옛길이다.

구룡령옛길은 양양군 서면 갈천리와 홍천군 내면 명개리에 걸쳐있는 고개로 양양군의 남쪽에서 백두대간을 넘는 길이다. 옛길 정상(해발 1089m)을 기준으로 명개리까지 약 3.7km, 갈천리까지 약 2.76km인데 옛길 정상은 56번국도 구룡령 정상(해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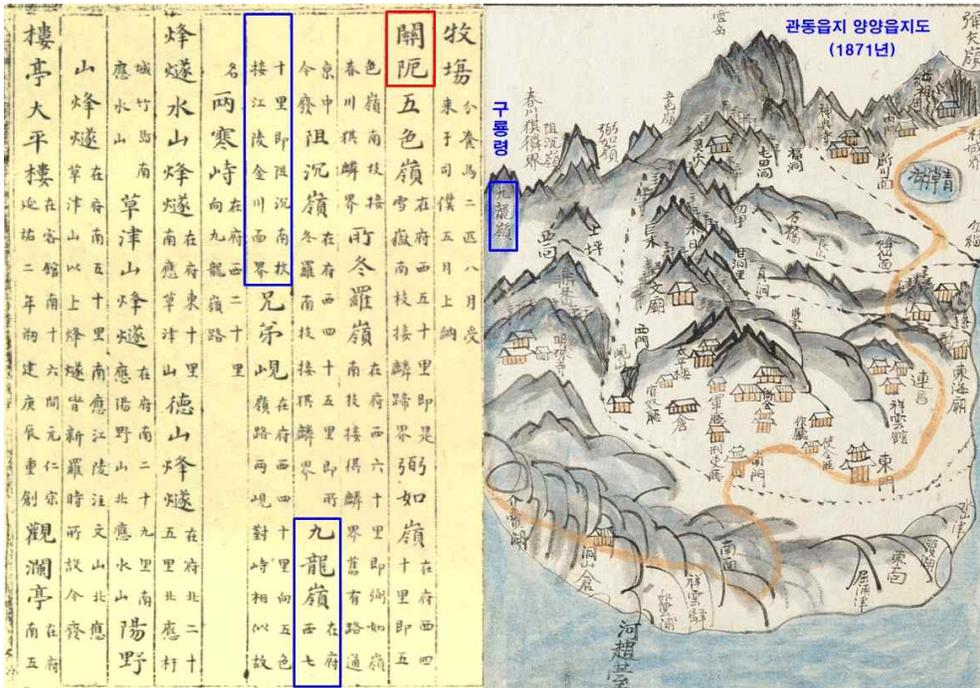


1013m)에서 1.2km 정도 더 올라간다.

56번 국도는 총연장 231km로 양양군 양양읍~홍천~춘천~화천~철원군 김화읍을 연결한다. 1987년 춘천~동면 구간을 시작으로 1991~1995년에 걸쳐 갈천~양양 구간이 완공되었는데 이 중 일부 구간은 일본이 수탈한 물자를 운송할 목적으로 1908년 개설되었다.

구절양장(九折羊腸) 굽잇길 모습은 옛길보다는 56번 국도에서 확인하다.

2. 동서와 남북 교류의 흔적, 구룡령옛길



<그림 3> 『여지도서』 관애조의 구룡령과 『관동읍지』 양양읍지도에 표기된 구룡령

구룡령옛길 정상은 북위 37도 53분, 동경 128도 30분에 위치하는데 위도로 보면 강릉과 인접한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와 비슷하니 양양군 최남단에서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영(嶺)이라 하겠다. 『여지도서』 양양도호부편에 ‘관문에서 서남쪽으로 서림까지 30리, 서림에서 구룡령까지 40리, 구룡령에서 강릉 경계 인암(印巖)까지 30리다’



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구룡령을 기점으로 양양-홍천-강릉 사이에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옛길 정상은 강릉과 평창 사이에 있는 진고개(약 21km)와 양양과 인제를 사이에 있는 조침령(약 21km)을 잇는 백두대간 마루금*의 중간에 위치한다. (*마루금 : 산마루와 산마루를 잇는 선)

3. 바꾸미들이 넘던 고개

명개리는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으로 양양군 서면에서 홍천군 내면으로 이관되었으니 그 이전 구룡령옛길은 영동의 양양과 영서의 양양을 연결하는 길이었다.

구룡령 너머
감 익는 마을 있을까
가을 서성이는 고갯마루

새털구름 따라
노랑 가노라니
집집마다 마중 나온 감나무
홍등 밝힌다
여기가 어디래요
말씨 꼬수분 아낙
야양 서림이래요
그래 노을처럼 하룻밤 자고 가자
앞장서니
달 삼킨 듯
그대가 웃으며 따라온다



- 허림, 〈서림이라는 곳〉 전문

허림 시인은 홍천 출신인데 그의 시 한 편을 보더라도 구룡령 너머 두 마을이 거



리는 멀지 않지만 자라는 식물도 다르고 쓰는 말도 다름을 알 수 있다.

영동에서는 소금과 해산물이, 영서에서는 감자 같은 고랭지 작물과 콩 팥 수수 깨 등 곡물이 구룡령옛길을 통해 교환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양양 지역의 임산물과 광물 자원을 외지로 반출하기 위해 현 56번 국도의 일부 구간에 도로를 놓았는데 이 길이 개통되면서 구룡령옛길은 점차 교역로의 기능을 잃게 되었다.

Ⅲ. 역사속의 구룡령

1. 양양남대천 수원(水源) 중의 하나

양양남대천의 수계(水系)는 본천, 후천과 오색천의 세 갈래인데, 후천은 구룡령에서 발원한 서림천과 약수산에서 발원한 청계천 그리고 응복산에서 나온 벽계천이 서면 황이리 미천골 입구에서 합류한 것이다.

응복산은 양양군 서면과 현북면 및 홍천군 내면에 걸쳐있는 산으로 두로봉에서 구룡령 사이에 위치하는데 산의 형상이 매가 엮드린 거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약수산에는 명개리약수가 있다.

갈천리 본동에서 서쪽 하천을 따라 2Km가량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이곳을 약수골 또는 단이골이라 한다. 갈천약수는 탄산 성분이 높고 용출량도 많아 양양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에게도 환영을 받는다.

2. 구룡철광

구룡령옛길에는 폐철광인 구룡광산이 있는데 서면 갈천리 산 28번지에 약 90헥타르(약 272,250평) 넓이에 분포한다. 태평양전쟁 중인 1940년대 초, 일본인들에 의해 개발되어 전쟁물자로 공출되다가 해방과 더불어 채광이 중단되었다. 한국전쟁 후 함태광산에서 인수하여 월 300톤 규모로 채굴하였으나 채산성이 없어 1974년 이후 생산을 중단하였다. 강점기에 사용하던 삭도(索道)와 원형이 보존된 갱도 1개소 및 입



구가 함몰된 갯도 두 곳이 남아있다. 징집을 면한 젊은이들이 끌려와 정과 지렛대 같은 조악한 공구로 100미터 정도의 갯을 뚫었다 하니 그 노역의 고달픔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림 4> 옛 구룡광산 갯도 입구

3. 반쟁이

반쟁이는 두 지점 가운데의 가운데쯤 되는 곳을 일컫는 반정(半程)에서 나온 말로 구룡령옛길에는 몇 개의 반쟁이가 있어 위치를 알려준다. 갈천에서 정상 방향으로 보면 묘반쟁이, 술반쟁이, 횃돌반쟁이 순이다. 묘반쟁이는 전설이 전해온다. 양양과 홍천의 경계를 정할 때 두 지역에서 각자 출발하여 만나는 지점을 경계로 하기로 했다. 이때 양양을 대표하는 청년이 양양 땅을 조금이라도 넓히고자 열심히 달리다가 지쳐 죽었는데 그 공적을 기리고자 묘를 만들어 묘반쟁이로 기념하였다 한다. 횃돌반쟁이는 묘에다 회 다짐을 할 때 넣는 석회석을 캐던 곳이고 술반쟁이는 황장목급 소나무가 자생하는 곳이다.



4. 황장봉산(黃腸封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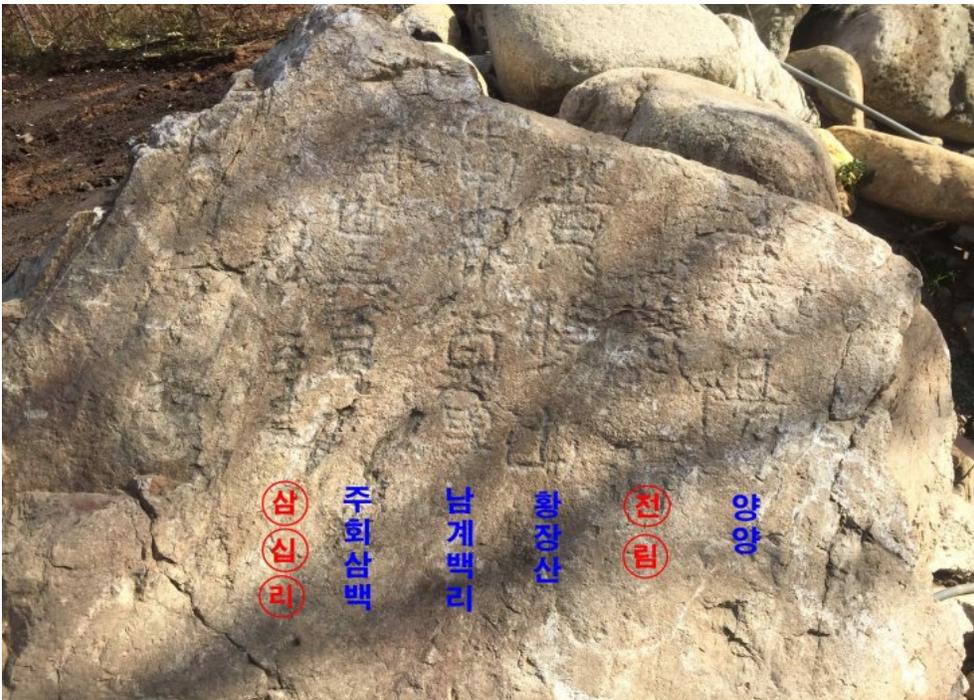
조선은 왕실에서 사용하는 질 좋은 소나무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나무 군락지를 국가에서 지정하여 황장봉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양양군에는 황장봉산이 두 곳에 있는데, 하나는 ‘부연산 황장봉산’으로 현북면 범수치·어성전리·원일전리·장리 일대이고 다른 하나는 서면 구룡령 일대의 ‘전림산 황장봉산’으로 그 둘레가 330리에 이르렀다. 구룡령 황장봉산의 금표는 홍천군 명개리 산 43번지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양양군 서면 영덕리 김해김씨 문중의 소유이다. 이 금표는 당초 명개리 산 43번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2010년 4월 농업용수관 매설공사로 명개리 210번지로 옮겼다가 2021.7.21일 홍천박물관으로 이전되었는데, 역사적 또는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땅히 당초에 세워져있었던 그 자리에서 보존되어야 문화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림 5> 「비변사인방안지도」의 전림 황장봉산이 둘레가 330리 이다.



이 땅을 경작하던 최종열 씨의 증언에 의하면 1960년대 초반, 이 지역에서 벌채한 아름드리 소나무는 속이 대부분 적색을 띠었고 GMC 화물차보다 길었는데 그런 황장목을 화물적재함 양쪽 옆으로 길게 동여매고 일제강점기에 닦은 구룡령 좁은 길을 통해 운송하였다 한다. 그 당시 최종열 씨는 갈천국민학교로 학용품을 타러 갈 때 구룡령옛길을 이용했다. 뛰다시피 하면 명개리에서 갈천초등학교까지 2시간 정도 걸렸는데 같은 시간대에 출발한 소나무를 실은 차와 학생들이 거의 같은 시간에 갈천초등학교 부근에 도착했다고 한다. 벌채한 소나무는 선박 건조에 사용한다고 들었다.



<그림 6> 2021년 7월 명개리에서 홍천박물관으로 이전한 전림황장산 금표
(주) 남계백리(南界百里)는 양양관아에서 100리에 위치한 지점이라는 뜻이다.

1990년대 경복궁 복원에 쓰인 금강송 중 40그루는 구룡령옛길에 있는 군락지(갈천 입구에서 묘반쟁이 사이에 위치함)에서 벌목되었다.



5. 명승 제29호

명승(名勝)은 국가지정문화재로 문화재청에서 경치가 뛰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구룡령옛길 정상에서 양양까지의 구간은 2007년 12월 대한민국 명승 제29호로 지정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길로서 명승에 등재된 곳은 문경새재, 죽령옛길과 문경도끼비리를 포함하여 네 곳뿐이다.

IV. 구룡령옛길의 가치

구룡령이 위치한 마을 갈천은 오래전부터 화전민이 살던 곳이다. 어려울 때 화전민들은 칩으로 연명하였는데 칩뿌리를 얼마나 씻었는지 냇물이 온통 칩빛으로 변할 정도였다. 갈천이라는 마을 이름은 칩 갈(葛)과 내 천(川)에서 유래한 ‘칩내’였는데 음운 변화를 거쳐 ‘치래’라고도 불렀다.



<그림 7> 구룡령 옛길과 구룡령 56번국도



제1편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서쪽 영로(嶺路)

치래마을 안내판에는 '갈천7보'라는 보물을 소개하고 있다. 1보는 구룡령고개, 2보는 갈천약수, 3보는 회귀한 송어가 올라오다 더 이상 뛰어오르지 못한다는 송어직소, 4보는 기와집 모양의 제집바위, 5보는 삼석봉, 6보는 금강송 그리고 7보는 성황당이다.

제1보인 구룡령옛길은 경치가 뛰어난 명승일 뿐 아니라 상품 교역로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금강송 자생지라는 생태계적 의미도 크고, 일제강점기에 수탈당한 현장도 보존되어 있어 문화적 가치가 크다 하겠다.

제2편

7호선 국도로 이어지는 영(嶺)





7호선 국도로 이어지는 영(嶺)

○ 고송(古松)고개와 말령(末嶺)고개

양양군청을 중심으로 남쪽을 향하는 영(嶺) 중 가장 첫 번째가 고송(古松)고개이다.

고송고개는 손양면 송현리(松峴里)와 손양면 간리(間里)의 접경지역에 있는 고개로 국도 7호선 양양대교 남단에서 102기갑부대 앞까지이다. 고개 이름은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지어졌다고 한다.

이곳은 신속하게 공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역에서 사용하는 말(馬)이 사육되고 전령(傳令)이 대기하고 있던 곳이다. 이 파말마(擺撥馬)들이 당도하는 지역의 고개는 출발하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불려지기도 하는데 주문진에 있는 고개가 “양양고개”로 삼척시에 있는 고개가 “명주고개”로 불리는 것이 그 예다.

고송(古松) 고개와 말령(末嶺) 고개가 이웃하여 있어서 같은 고개로 오해(誤解)를 하는데 말령고개는 간리에서 양양읍 율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군청의 안산(案山)¹¹⁰⁾ 동쪽을 넘는 고개라 하여 “안산 앞고개”라고도 하였다.

말령고개는 오대산의 지맥(地脈)이 한 줄기는 정족산에서 혈(穴)을 맺고 한줄기는 서면 용천리(龍川里) 앞의 구탄봉(九嘆峰)에서 동으로 이어지다가 7번 국도로 인해 끊어지니 마지막 고개라는 뜻으로 말령(末嶺)이 되는 것이다.

○ 밀양(密陽)고개

국도 7호선 손양면 하왕도리(下旺道里) 양양국제공항호텔 앞에서 와리(瓦里), 밀양

110) 안산(案山) : 풍수지리에서 가택이나 묘택이 있는 혈 맞은편의 낮고 작은 산.



리(密陽里)를 통과하여 상양혈리(上陽穴里) SK주유소로 이어지는 3km 구간이다. 밀양 고개가 4차선으로 확·포장 되기 이전에는 눈만 내리면 차량이 체인을 치고도 고개를 넘지 못하여 발이 묶이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4차선으로 확·포장 되면서 곡선을 직선화하고 정상부의 높이를 10m 이상 깎아 낸 이후부터는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

고갯마루의 마을이 밀양리(密陽里 : 햇빛을 조밀하게 받는 마을)라 그런지 눈이 오래도록 쌓이지는 않고 금방 녹는 특징이 있다.

○ 진등고개

진등은 과거 일제가 수탈을 위해 개설한 신작로(新作路) 이전의 국도로 102기갑여단 앞 산(국도 7호선 동쪽 손양면 송현리 산36-3임)에서 손양면 하양혈리 상운교(祥雲橋)까지 이어지는 5.5km의 산길이다. 이 도로 인근 마을은 모두 이 도로와 이어지는 지선(枝線)이 있었다.

진등은 말 그대로 길이가 긴 고개(嶺)로 “장산등(長山嶺)”이라고도 하였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군청을 중심으로 진손(眞巽)¹¹¹⁾ 방향에 있는 언덕이란 뜻으로 “진손치(眞巽峙)”라고도 하였다.

신작로가 개설되면서 점차 이용 빈도가 줄어들다가 국도 7호선이 확·포장 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진등고개 마루에는 설해원(雪海園) 골프리조트와 양양국제공항이 들어서면서 흔적마저도 사라졌다.

○ 만세(萬歲)고개

국도 7호선의 현북면사무소에서 현북면 기사문리(其士門里) 어민복지회관까지 약 1.8km 구간을 말한다.

본래 이 고개는 “기사문고개”, 또는 “관고개(館峴)”라고 부르다가 기미독립운동 당시인 1919년 4월 9일의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대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그날의 사건을 간략히 묘사한다.

111) 진손(眞巽)은 풍수지리의 8방 중 진실한 동남방을 말한다.



현북면의 600명 이상의 군중이 면사무소 주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양양면으로 가려고 할 때 손양면 동호리 사람 김익제(金翼濟)가 양양면에는 이미 일본 경찰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다며 인명 피해를 우려하여 행진을 저지시켰다.

이에 계획을 바꾸어, 기사문주재소 앞에 가서 만세를 부르기로 하였다. 하광정리와 기사문리 사이에 있는 해발 50m의 관(館) 고개로 이장들이 각 마을의 선두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올라갔다, 때마침 신작로에 가로수를 바쳐놓은 지주목이 있었는데 일부 군중이 이것을 뽑아 들고 관 고개를 넘어갔다.

기사문주재소에는 며칠 전부터 현북면 일대의 만세운동 분위기를 짐작하고 강릉에서 수비대가 도착하여 있었다. 군중이 주재소 전방에 있는 다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주재소 순사 이흥근이 나와 선두를 막았다. 한참 동안 군중과 일경(日警)이 대치하며 옥신각신하다가 만세를 불렀고 분위기가 고조되자, 주재소 옆 개울가 언덕에 숨어 있던 5명의 수비대와 일경이 발포하였다. 순식간에 선두에 있던 군중이 쓰러졌다. 현장이 피바다가 되면서 군중은 흩어졌다. 이날 현장에서 9명이 사망하고 약 20여 명이 부상하였다.

그 사건 이후부터 이 고개를 “만세(萬歲) 고개”라 부르게 되었다.

○ 잔교리(棧橋里)고개

잔교리고개는 국도 7호선의 현북면 잔교리 38선교(三八線橋)에서 무궁화동산(경찰 전적비) 북단까지 약 1.5km 구간이다. 고개의 정상부에는 탱크 저지선이 있는 아주 낮은 고개이다.

이 고개 동북쪽에는 기사문항이 있으며 그 남쪽에는 커다란 38선 표지석이 있는 38선 휴게소이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미국과 소련에 의지하던 정국은 북한은 1945년 11월에 보안대(保安隊)를 조직하였고 남한은 11월 13일 국방사령부(國防司令部)를 설치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남한의 정부 수립으로 38선이 고착되는데 동쪽 끝은 잔교천(棧橋川)이 바다와 잇닿는 곳에서 잔교리 297번지를 관통하여 서쪽으로 지나다 보니 기사문리는 북한이고 잔교리, 대치리와 명지리는 남한이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 이후 전세를 뒤집어 10월 1일 10시에 국군 제3사단 23연대가 38선을 공식적으로 돌파한 바로 그 장소가 잔교리고개이다.



이후 1956년에 10월 1일을 “국군의날”로 지정하였으며 “양양군민의 날”이 되었다.

○ 동산(銅山)고개

국도 7호선의 현남면 북분리 솔밭캠핑장 남단부터 동산리 죽도해양레포츠센터 앞까지 약 1.3km 구간을 “동산(銅山)고개”라고 한다. 동산리에는 명주(溟州)의 속현인 동산현(洞山縣)이 있었는데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양양의 옛 이름인 익령현(翼嶺縣)에 내속(內屬)되었다.

현이 있었던 이 고개를 중심으로 남쪽은 현남면, 북쪽은 현북면이 되었으며 동산의 한자도 고을을 뜻하는 동(洞)자에서 구리동(銅)로 바뀌었다.

요즘은 고개 동쪽으로 해수욕장도 2곳이나 운영하며 양양군의 많은 투자로 서핑의 메카가 되었다.

○ 광진(廣津)고개

국도 7호선의 현남면 인구리 해송교(海松橋)에서 광진리 현남중학교 앞까지 1.6km 구간을 “광진(廣津)고개” 혹은 “광나루고개”라고 한다. 이 고개의 정상은 휴휴암(休休庵) 주차장 근처가 되는데 이곳은 광진리(廣津里) 소재이다 보니 광진고개라고 칭하게 되었다.

과거 광진리는 “큰 바다”라고 부르던 것이 한자표기로 바꾸면서 광진리(廣津里)라 부르게 되었고 “넓은 나루”라는 뜻에서 속칭 “광 나루”라고도 부른다.

○ 남애(南涯) 고개

국도 7호선의 현남면 남애리 포매교(浦梅橋)에서 남애1리 해수욕장 입구인 남애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이다. 정상 부근에는 일명 “미룡마을”이라는 자연부락이 있다. 과거 1970년대 중 후반에 당시 신작로(新作路)라 불리던 국도 7호선을 2차선으로 확·포장하면서 생겨난 이름이다.

이 사업은 지금의 동부그룹 전신인 미룡건설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도로를 닦으면서 고개 밑으로 보이는 남애항(南涯港)의 전경에 매료되어 후에 리조트 등 대규모 관



광지를 꿈꾸며 이 지역의 많은 땅을 매입하면서 미룡마을이 되었다.

이 고개에서 내려다보이는 남애항은 강원도 3대 미항(美港)으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우며 주변의 백사장마다 해수욕장과 캠핑장, 서핑의 천국이 되었다.

○ 눈고개(臥峴)

군청을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별로 고개라 할 곳이 없는데 그중 유일한 곳이 눈고개이다. 눈고개는 와현(臥峴)으로 누운고개이나 이를 줄여서 눈고개로 불린다.

낙산사 주차장이 있는 4거리에서 동덕여자대학교 설악수련원(설악해수욕장 입구)까지 약 1.5km 구간이다.

이 고개의 동쪽은 오봉산(五峯山) 낙산사로 다섯 봉우리 중 마지막인 신선봉(神仙峯)에 낙산사가 자리한다.

낙산사 바로 옆 동네는 세 번째 봉우리 밑의 답리(畓里)로 “냉천(冷泉)”이 나오는데 신라 때 원효대사의 전설이 전해오고 있어 “냉장터”라고도 하는데 과거에는 피부병에 좋다고 하여 많이 이용하였다.

눈고개는 높지도 않은 고개인데 눈만 오면 차들이 고개를 넘지 못하고 길옆에 누워있어서 이름이 “누운 [臥] ” 고개라 그렇다고 하다가 눈 [雪] 고개라 그렇다고도 하였다.

요즘은 답리와 용호리(龍湖里) 사이로 기압골이 생성되어 눈고개는 다른 곳보다 눈과 비가 더욱 많이 온다고 한다.

부록
(附錄)

읍면별 영(嶺), 치(峙), 현(峴) 현황



【읍면별 영(嶺), 치(峙), 현(峴) 현황】

영,치,현 명	현재명	소재지	위치 및 방향
북문고개	북문고개	양양읍 군행리	문안에서 청곡리 방축말로 넘어가는 고개
성재고개	성재고개	양양읍 성내리	성내리 북쪽 능선으로 올라가는 고개
북문고개	북문고개	양양읍 구교리	성 북문(우시장)에 있던 고개
용 코	용 코	양양읍 연창리	사잇말 북쪽 뒤 언덕을 용의 코 라함.
관고개	관고개	양양읍 연창리	고개 너머 관청이 있었음.
미륵고개	미륵고개	양양읍 연창리	구교리로 가는 고개로 미륵바위가 있었음.
범재고개	범재	양양읍 송암리	청곡리로 통하는 고개로 산 형국이 호(虎)형이라 붙임.
달래넘어마을	월곡동(越谷洞)	양양읍 내곡리	달맞이 고개로 본동 앞산
안산재	안산재	양양읍 포월리	포월농공단지터로 고인돌 1기가 있었으나 없어짐
성재(城峙)	성재(城峙)	양양읍 조산리	대포영지 북문에 위치
해현(蟹峴)	게고개	양양읍 사천리	연당말에서 강현면으로 가는 고개로 게와 같은 지형
함덕재(咸德峙)	함덕재	양양읍 사천리	연당(蓮堂)말 북쪽 고개
넘에말	너메말	양양읍 감곡리	큰말 북쪽으로 고개 넘어 있다하여 너메말임.
된버찌고개	된버찌고개	양양읍 화일리	늦조골 서쪽에 있다.
쟁패재	쟁패재	양양읍 화일리	임우골에 있는 큰 언덕
질매재	질매재	양양읍 화일리	쟁패재 남쪽에 있다.
장승고개	쌍 고개	양양읍 임천리	마을 서북쪽에서 서면으로 가는길
봉양고개	봉양고개	양양읍 기정리	기정리와 정소리 경계
진등고개	진등고개	서면 수상리	임천리와 수상리 사이의 국도
진등	상고개	서면 수상리	양양읍 임천리 뒷산에서 수상리 뒷산까지 긴 능선
아리랑고개	얼롱고개 (元龍峙)	서면 서선리	서선리와 장승리사이 고개로 일제 강점기에 아리랑 이라는 술집이 있어 애국지사가 모임을 함.
되너미 고개	된 고개	서면 서선리	서선리와 화일리 경계
성황당 고개	서낭 고개	서면 서선리	본 마을에서 화일리로 가는 고개인데 성황당이 있다.
망령재	망령재	서면 논화리	송천리로 넘어가는 경계령
논거리재	논거리재	서면 논화리	가리피리로 가는 국도 고개



영,치,현 명	현재명	소재지	위치 및 방향
도투고댕이	도투고댕이	서면 논화리	논거리재 넘어 언덕길
원댕이 고개	원댕이 고개	서면 논화리	본동에서 원당골로 넘는 고개
가랍재	가랍재	서면 가라피리	가라피리와 송어리 경계
서낭당 고개	서낭당 고개	서면 범부리	북평리로 가는 마을 뒷고개로 서낭당이 있었다.
큰자리 고개	큰자리 고개	서면 범부리	용천리로 가는 동쪽 고개
되넘이 고개	되넘이 고개	서면 범부리	용천리로 가는 남쪽 고개
죽살 고개	죽살 고개	서면 수리	마을 서북쪽 고개로 스님의 화장터다.
삼바릿재	삼바릿재	서면 수리	삼바릿보의 뒤에 있는 고개
수동재(水洞峙)	수동재	서면 내현리	수리에서 내현리로 가는 강 건너편 윗 고개
말치(末峙)재	망치재	서면 내현리	남양리와와의 경계
안고개(內峴)	안고개	서면 내현리	정족산 안쪽에 있는 마을 뒷고개
송재(松嶺)	송재	서면 송어리	가라피로 가는 고개
장등(長嶺)	장등	서면 송어리	북암리와와의 경계 능선
큰 기름재	큰 기름재	서면 송어리	가라피로 넘어가는 큰 고개
상산(上山)재	상산재	서면 북암리	송어리로 넘어가는 큰 재
진고개	진고개	서면 영덕리	큰 양아치 동남쪽에 있으며 산야골과 본동 사이 언덕
망령(望嶺)고개	망령고개	서면 송천리	논화리 경계로 북암리로 가는 행로
작은벌 등	작은벌 등	서면 서림리	조침령골 서북에 있다.
매자리 등	매자리 등	서면 서림리	마을 남쪽 조봉으로 가는 길
벽실령	벽실령	서면 서림리	마을관리 휴양소에서 정족산으로 오르는 길
성주고개	성주고개	서면 갈천리	노루목재 북쪽 절터 목으로 가는 고개
진등	진등	손양면 하왕도리	옛날 양양에서 강릉가는 국도로 하왕도리와 학포리 경계를 따라 하양혈리까지 연결되어 길다란 길
영셋재(嶺間峙)	영셋재	손양면 하왕도리	상왕도리로 가는 국도변 윗길
고송(古松)고개	고송고개	손양면 간리	8군단 앞에서 송현리로 가는 7번국도 언덕
말령(末嶺)고개	안산 앞고개	손양면 간리	오대산 정족산에서 뺀 산맥의 끝의 고개로 마을 북쪽에 있어 안산 앞고개라고도 한다.



영,치,현 명	현재명	소재지	위치 및 방향
새잇골 고개	사잇골 고개	손양면 송현리	사잇말 뒷고개
송현(松峴)	송현고개	손양면 송현리	마을 뒷고개에 소나무가 울창하여 붙임.
감나무재	감나무재	손양면 수여리	흥덕말에서 동쪽 청룡으로 가는 고개
쇠뺏재(牛臛峴)	쇠뺏재	손양면 수여리	솔말 북쪽 언덕
서당(書堂)고개	서당고개	손양면 가평리	본동 서쪽 작은 산 고개로 서당이 있었음.
말등(馬嶺)	송장봉	손양면 오산리	말등처럼 생겼으며, 마을 동남쪽 능선
장승배기	장승배기	손양면 학포리	웃말에서 하왕도리로 가는 진등의 끝이 장승배기다.
하고개	하고개	손양면 도화리	북쪽 학포리 경계의 고개
이질고개	이질고개	손양면 도화리	하고개 맞은편 동남쪽 고개
화심이등	화심이등	손양면 동호리	동호리 남서쪽 산등성
뒀할미재	뒀할미재	손양면 동호리	큰말에서 노고봉가는 언덕
큰 굴등(窟嶺)	큰굴등	손양면 동호리	동해북부선 동호리와 도화리 사이의 터널 윗길
작은 굴등	작은 굴등	손양면 동호리	동호리 본동에서 장촌리 사이에 동해북부선 터널 윗길
진손재(眞巽峙)	진손재	손양면 동호리	동호리 본동에서 진등으로 이어지는 언덕
화심말(花心洞)	화심이등	손양면 상운리	상운리에서 서북쪽으로 오르는 등
상등(上嶺)	상등	손양면 상운리	동호리로 가는 산등
풍재(風峙)	바람부리등	손양면 하양혈리	뺏골 앞산으로 장리로 가는 영
땅재	땅재	손양면 하양혈리	뺏골에서 말곡리로 넘어가는 산언덕
민재고개	민재고개	손양면 밀양리	우암리로 가다가 와리로 가는 산 고개
밀양고개	밀양고개	손양면 밀양리	상양혈리서 하왕도리까지 이어지는 7호선 국도의 고개
방우재	방우재	손양면 상왕도리	상왕도리에서 송이밸리로 가는 언덕
영통(永通)고개	영통고개	손양면 주리	신론버덩에서 영통으로 가는 고개
수력등	수력등	손양면 남양리	우암리에서 넘어오는 첫 고개
웃터고댕이	웃터고댕이	손양면 남양리	마을 중심에 있는 고댕이
둔정고댕이	둔정고댕이	손양면 남양리	동북쪽에서 들어오는 첫 고개
하마치(下馬峙)	하마치	손양면 남양리	본동 서쪽으로 하석계리와 경계



영,치,현 명	현재명	소재지	위치 및 방향
상마치(上馬峙)	상마치	손양면 남양리	본동 남쪽으로 상석계리와 경계
부소치재	부소치재	손양면 남양리	본동 남쪽 3km 지점, 부소치리와 경계 산등성
수령고개	수령고개	현북면 하광정리	스틸하우스에서 안기사문리로 가는 고개
흥정고개	흥정고개	현북면 하광정리	하조대로 가는 낮은 고갯마루
보릿고개	보릿고개	현북면 중광정리	7호선 국도에서 중광정리 골말로 가는 언덕
굴개골등	굴개골등	현북면 상광정리	현북초교 옆 방축골에서 손양면 여운포리로 가는 언덕으로 동호리 굴개(銅浦)가 보였다.
만세고개	만세고개	현북면 기사문리	하광정리로 통하는 7호선 국도로 1919년 4월 9일 만세운동 현장
임재(荏峙)	임재	현북면 기사문리	기사문리에서 대치리로 가는 고개
얼고개	얼고개	현북면 말곡리	하양혈리로 통하는 고개 이름으로 양혈을 열이라고 하며 땅재를 말곡리에서 부르는 명칭임.
인부골등	인부골등	현북면 말곡리	샘재산 옆으로 해서 상광정리로 넘어가는 골짜기와 등강
박실등	박실등	현북면 말곡리	인부골 서쪽 산등
농거리재	농거리재	현북면 말곡리	한천산(寒泉山) 북쪽 산등
뒷고개	뒷고개	현북면 말곡리	풍암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임재골등	임재골등	현북면 대치리	상광정리와 잔교리로 통하는 골짜기와 등강
직시재	직시재	현북면 대치리	직시골에서 현남면 정자리로 넘어가는 고개
곱돌고댕이	곱돌고댕이	현북면 대치리	명지리 납다골(納大谷)으로 가는 등마루로 곱돌이 난다.
질마재(叱馬峙)	질마재	현북면 명지리	원일전리로 가는 산등
망령재	망령재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에서 상월천리로 가는 산재
희목재(熙默峙)	희목이재	현북면 어성전리	대치리로 가는 동쪽 고개
고적재(高積峙)	고적재	현북면 어성전리	지금의 포장도로가 있기전에 법수치리로 가는 예전의 산악 도로로 동쪽은 어성전2리이고 북쪽은 어성전1리이다.
풀밭재(草田峙)	풀밭재	현북면 어성전리	어성전2리에서 연곡면 삼산리로 가는 59호선 국도변에 있는 개잔리로 가는 첫 언덕
개잔이재	개잔이재	현북면 어성전리	개잔리로 가는 큰재



영,치,현 명	현재명	소재지	위치 및 방향
바디재	바디재	현북면 어성전리	연곡면 부연동(가마소)를 넘어가는 재로 탁장사 전설 지임.
즐마재(叱馬峙)	질마재	현북면 원일전리	명지리로도 가지만 말곡리, 당산리로 넘는 세 갈래 길
달하치(月下峙)	다라치	현북면 장리	장리 연화동 남쪽에 있는 화전민촌을 달아치라 부르며 달아치 뒷 등을 넘으면 상면옥치리다. 달이 유난히 밝은 언덕이라서 달하치(月下峙)라 불렀음.
말굽이잔등(馬轉峙)	말구비잔등	현북면 장리	장리에서 면옥치리로 가는 길
벽실령	벽실령	현북면 장리	연화동 서쪽 산 능선으로 서면 서림리로 통한다.
덕고개	덕고개	현북면 도리	본동과 내현리 사이의 고개로 59호선 국도 양천교 부근
벽실령	벽실령	현북면 면옥치리	서림리로 통하는 령
고적치(高積峙)	고적치	현북면 법수치리	우탄에서 어성전리로 가는 높고 긴재로 포장도로 이전의 마을간 도로
소누고개	소누고개	현남면 포매리	후포매리에서 전포매리로 넘는 고개
던바위재	던바위재	현남면 포매리	전포매리에서 입암리로 넘어가는 등강
대왕등(大王嶺)	대왕등	현남면 상월천리	어성전리 망령재로 오르는 등성이
달내고개	달내고개	현남면 상월천리	본동에서 정자리로 넘는 고개
두마치(頭馬峙)	두마치	현남면 상월천리	본동에서 건불리로 넘는 고개
마지막재	마지막재	현남면 북분리	양지말에서 잔교리 차골로 가는 북쪽 끝재
용거지고개	용거지고개	강현면 강선리	강선리에서 하도문리로 넘는 고개
소금재고개(鹽峙)	소금재고재	강현면 하북리	양지말과 중북리 사이 고개로 토색이 희다
송암 고개	송암고개	강현면 중북리	중북리에서 남쪽 회룡리로 넘는 고개
동지미 고개	동지미 고개	강현면 중북리	하북리 경계에서 너븐들로 가는 고개
어일정고개	어이정고개	강현면 회룡리	본동에서 석교리로 넘는 고개
질고개(陶峙)	질고개	강현면 사교리	북쪽에서 석교리로 가는 고개
장승고개	장승고개	강현면 사교리	북쪽에서 침교리와 적은리로 가는 고개
뒷고개	뒷고개	강현면 금풍리	적은리로 넘는 고개



영,치,현 명	현재명	소재지	위치 및 방향
고래골 고개	고래골고개	강현면 금풍리	감곡리로 넘는 고개
잼고개	잼고개	강현면 금풍리	답리와 전진리로 넘는 고개
웃쟁고개	웃쟁고개	강현면 금풍리	방축리로 넘는 고개
어둡고개	어둡고개	강현면 침교리	장산리로 가는 고개
호무고개	호무고개	강현면 침교리	침교리마을에서 서쪽 석교리로 가는 고개
까치미고개	까치미고개	강현면 적은리	장산리로 가는 고개
가자미 고개	가재미 고개	강현면 적은리	북쪽에서 장산리로 가는 고개
가랭이 고개	가랑이 고개	강현면 적은리	남쪽에서 금풍리로 가는 고개
뒷고개	뒷고개	강현면 광석리	광석리 아랫말에서 용호리로 넘는 고개
눈고개(臥峴)	눈고개	강현면 답리	답리와 전진1리(낙산사)의 경계로 7호선국도에 있는 언덕
함지고개	함지고개	강현면 용호리	적은리로 가는 고개
내밤툽골고개	내밤툽골고개	강현면 정암1리	본동 서쪽에서 장산리로 가는 고개
집넘애고개	집넘애고개	강현면 정암1리	정암2리로 가는 고개
부충고개	부충고개	강현면 방축리	부충골에서 광석리 가는 고개
양지말고개	양지말고개	강현면 방축리	양지말에서 장산리 넘는 고개
장밭고개	장밭고개	강현면 방축리	마을 남쪽에 있는 고개
성재	성재	강현면 둔전리	마을 남쪽 1km 지점의 관모봉에서 물갑리로 이어지는 재 이름
도툽고댕이	도툽고댕이	강현면 둔전리	대청봉으로 오르는 능선



영(嶺)을 집필(執筆)하면서

우리 군에는 많은 고개가 있으나 길과 마을이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은 확·포장 되었거나 높이가 낮아져 옛 모습과 달라졌고, 어떤 것들은 사용되지 않아 기억에서마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고개마다 적지 않은 애환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바 《양양학연구소》에서는 관내의 모든 영(嶺)과 지(峙)를 정리해 보았다.

우리말과 한자어에는 고개나 언덕을 부르는 명칭¹¹²⁾이 다양한데 명칭만으로는 언덕의 크기나 모양을 짐작하기 어렵다. 이중환(李重煥, 1690~1752)은 택리지에서 “영이란 등마루 산줄기가 조금 나지막하고 평평한 곳을 말한다. 이런 곳에다 길을 내어 영의 양쪽과 통한다. 나머지는 모두 산이라 부른다.”라고 설명하여 영(嶺)과 산(山)을 구분하였다.

이 책을 집필할 때 처음에는 44호선 국도와 56호선 국도를 중심으로 백두대간을 넘어 동서로 통하는 영로(嶺路)를 조사하였으나 나중에 그 범위를 넓혀 7호선 국도 인근의 남북으로 연결되는 언덕도 정리하여 보강하였다. 또한 마을 내에 있거나 마을 간에 있는 작은 고개도 망라하였다.

정리하다 보니 고개 이름 자체가 마을 이름이 된 곳도 적지 않게 보인다. 서면 내 현리에는 마을 중간에 ‘안고개’가 있는데 이를 한자로 표현하여 내현리(內峴里)가 되었고 손양면 송현리는 소나무가 울창한 언덕이 있는 연유로 송현리(松峴里)가 되었다. 현북면 대치리는 사방이 큰 산으로 막혀 있어 마을을 벗어나려면 높은 재를 넘어야 했는데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대치리(大峙里)로 불린 것으로 보인다. 치(峙)가 들어간

112) 영의 개념 중 언덕(峙)은 땅이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 고개(峴)는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도록 길이 나 있는 비탈진 곳, 재는 길이 나 있어 넘어 다닐 수 있는 높은 산의 고개, 령(嶺)은 재나 산마루로 높은 산의 줄기로 넘는 곳, 산마루는 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곳을 말하며 이 밖에도 등(嶺), 등강(嶺崗), 산등성, 언덕배(岬)기, 꼬개, 꼬등패기, 고등(阜登), 고덩이, 등마루 등이 있다.



다른 마을 이름은 면옥치리(綿玉峙里)와 법수치리(法水峙里) 등이 있다.

과거 양양부(襄陽府)에서 서쪽 고을로 통하는 영로는 총 6개가 있다. 이들 영로를 소개하면서 영로의 쓰임뿐만 아니라 영을 매개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발굴하여 전하고자 하였다. 오색령이 역로(驛路)로였던 것으로 오인하여 소동라령(북암령)과 동일한 영이라는 인식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역사 속에서 영의 이름이 변하면서 의미도 완전히 달라진 것도 있었기에 고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문헌마다 전하는 거리와 위치가 조금씩 달라서 현장을 찾아가 현대의 지도를 바탕으로 오류를 바로잡았다.

이렇게 모든 영의 흔적을 찾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할 수 있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모쪼록 양양문화원 부설 《양양학연구소》에서 1년여에 걸쳐서 옛 문헌을 찾고 우리 연구소의 이종우 고문 등 여러분의 증언을 바탕으로 고증하여 완성한 책자가 양양을 이해하고 과거를 추억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24. 11. .

양양학연구소 연구원 일동

양양지방의 영_嶺

2024년 12월 23 인쇄

2024년 12월 24 발행

발행인 양 문화원장 박 상 민
편집인 양양문화원부설 양양학연구소
소 장 윤 여 경
고 문 이 종 우
선 임 연구원 김 재 환
연 구 원 김 준 호
" 김 영 미
" 한 상 호
감 수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김 진 하
인쇄처 대 양 프 리 컴 T.033) 257-3400

(비매품)

※ 이 도서의 저작권은 양양문화원에 있습니다.

